

장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통권 9호



성장의 길

돈이 보이는 내비게이션

September 2020

창업, 벤처, 투자, R&D, 정책자금, 수출,
소상공인, 글로벌 기술·창업 사업화

9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Mutual edification
자료문의 010-3899-6160

이웃사랑 참사랑
K-BMC

목 차

1장 사람과 말, Opinion

1. 잠자는 기술 깨우면 韓벤처도 '백조'될 수 있죠 1
2. 40년전 뿌린 벤처의 씨앗...플랫폼시대 혁신DNA 꽃피웠다 4
3.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① 8
4.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② 14
5.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③ 20
6.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④ 26
7. 스케일업 벤처 육성이 필요한 이유 31
8. '혁신의 열쇠' 테슬라의 오픈특허 전략 33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1. 창문에 부착하는 환기청정기 인기몰이 35
2. '한 번에 모발 10개' 식모기에 메디시티 대구선도 37
3. 레트로 냉장고·저당밥솥... '취향 명중' 중소기업 가전 뜬다 39
4. 결로없는 '토종' 합성수지 지중재 나왔다 42
5. 해외여행을 국내로 재빨리 전환 '대박' 44
6.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심전도 측정 새 시장 연다 45
7. 일본서 조사한 '세계 1위 품목'...한국, 미·중 이어 '3위' 47
8. 세계가 놀란 '환자 모니터링 무선 센서'... 한국인이 만들었다 50
9. 셀프살균 기능 탑재 투명 마스크 나온다...美 FDA 승인 54
10. AI·데이터 광범위 활용...신산업 창출·고부가가치화 돕는다 57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 모태펀드 추경 등 3,655억원 출자사업 공고 59
2. 그린뉴딜 선도할 그린벤처, 경쟁률 14.5:1 기록 63
3.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시동 68
4. 11번가·지마켓·아마존 등 연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72
5. 중소기업 기술전략 품목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 77
6. 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79
7.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85

목 차

8.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증가	88
9.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많은 스타트업이 호응	100
10.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1호 벤처투자조합 탄생	104
11. 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전환 본격 돌입 ...	108
12. 마이제조테이터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착수....	111
13. 다양한 창업정보를 한번에, 창업지원포털 『KStartup』 개편 ...	119
14. 예비유니콘 등 유망 스타트업, 온라인 해외IR 개최	125
15.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131
16. 포스트 코로나 유망 중소기업 소개 영문 책자 발간	136
17. 한국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파크, 대전과 천안에 추가 조성 ...	141
18. 스타트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145
19.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 ...	150
2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 본격 출범	153
21. '20년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모집	155
22. 다쏘시스템,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기업 육성에 나서	159
23. 스타트업 축제 '컴업' 기업설명에 1천76곳 신청...경쟁력 9:1	161
24. 모빌리티 전북·제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166
25. 한국판 뉴딜, 소공인 지능형공방 지원 경쟁률 4.8:1 기록	172
26.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경연, '청청콘' 개최	175
27. 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	178
28. 비대면 건강관리, 최초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개시	180
29. K스타트업의 별,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120개 기업 선정	186
30.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성과 발표	192
31.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195
32.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선정	201
33.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205
34.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	207
35.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11
36. 9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비셀' 선정	223
37. 코 건강 지키는 '쑥부쟁이'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	228

1장 사람과 말, Opinion

1. "잠자는 기술 깨우면 韓벤처도 '백조'될 수 있죠" (9.13)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인터뷰
한국·이스라엘 산학연 손잡고
대학·연구소 유망기술 사업화뎌
글로벌 시장서 큰 효과 가능성
양국 '기술협력센터' 설치 필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사업화’를 펴면 시너지가 크게 날 것입니다.”

이원재(37·사진)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는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양국이 협력해 시너지를 낸 좋은 예로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의료장비 회사인 나녹스(Nano-X)를 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스라엘로 가 히브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군대를 마쳤다. 이후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실 아시아 경제보좌관으로 일했고 현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지역 투자와 기술이전을 맡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선임병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배웠다(웃음)”고 운을 뗀 뒤 “양국은 외세에 시달리고 안보환경이 녹록치 않고 광물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적자원이 뛰어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을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교했다. 한국은 제조능력이 뛰어나고, 이스라엘은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탄탄해 보완관계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국의 우수 협력사례로 든 이스라엘 ‘나녹스’의 경우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뒤 17거래일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SK텔레콤이 이 회사에 2대주주로 참여했고 한국에서 핵심부품의 제조까지 이뤄지도록 힘 썼

다. 최대주주인 란 폴리아킨 대표는 최근 방한해 핵심 부품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칩 생산 공장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가동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를 활용해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것으로 기존 진공관 방식보다 방사선도 매우 적고 비용도 10%선에 불과해 선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이 대표는 “일본 소니가 TV 화질 개선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했던 것인데 2010년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기술사업화에 강한 이스라엘이 헬스케어로 방향을 돌려 적용하게 됐다”며 “일본 후지필름과 대만 폭스콘도 나녹스에 투자했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헬스케어 기반이 있는 한국에서 제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원 등에 기기(나녹스 아크)를 무료 설치하고 엑스레이와 CT를 찍을 때 각각 14달러와 40달러를 받으면 3개월 뒤 기기값도 회수할 수 있고 나녹스 클라우드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나녹스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모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 한국 AI 기업 인수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요즈마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제조를 위해 한국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히브리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세먼지·바이러스의 분자 단위 정화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요즈마는 이전에도 코스닥사인 바이오리더스의 항암제 개발을 위해 와이즈만연구소의 P53 유전자 활용기술을 이전했고, 신테카바이오(유전체 빅데이터)와 SCM생명과학(줄기세포)에도 투자해 코스닥 상장을 도왔다. 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만한 한국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백조 찾기 프로젝트’가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유망한 R&D 기술을 사업화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에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은 ‘한국 벤처가 세계로 나

가면 백조가 될 수 있는데 작은 시장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됐다’고 비유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적으로 K-방역이 높이 평가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 **바이오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U878TT9>

1장 사람과 말, Opinion

2. 40년전 뿌린 벤처의 씨앗...플랫폼시대 혁신DNA 꽃피웠다



고(故) 이민화 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1주기 추도식이 지난달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휴맥스빌리지에서 열렸다. 한국 벤처산업계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벤처 대부답게 이날 벤처 1세대부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젊은 창업가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장홍순 블루카이트 대표 등 이민화 명예회장과 한국 벤처의 싹을 틔운 1세대 창업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를 추모했다. 벤처 태동기부터 창업 기업인들을 지켜본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이 아닌 1980년대 이후 탄생한 창업기업들은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며 "기술 국산화와 창의적 모방에 힘썼던 1세대, 인터넷·게임 2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3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90년대 벤처 태동기	2000년대 인터넷·게임	2010년대 플랫폼 스타트업
삼보컴·비트컴·메디슨...	네이버·카카오·넥슨 등	배달의민족·마켓컬리·토스...
장홍순·이범천·안영경 등	대기업집단으로 급성장	김봉진·김슬아·이승건 등
KAIST 출신이 생태계 주도	김택진·이해진·김범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결성
다우키움, 재계 58위로 성장	서울대 공대 출신이 주축	회원사는 기업 1500곳 달해

◆ 벤처 시대 연 1세대 창업 기업인

1980~1990년대는 벤처가 시작된 시기다. 1980년 이용태가 창업한 삼보컴퓨터를 시작으로 1981년 큐닉스컴퓨터(이범천)와 YG-1(송호근), 1983년 비트컴퓨터(조현정), 1985년 메디슨(이민화) 등이 생겨났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엔 3저 호황 속에 기업 창업이 늘어났다. 1986년 김익래가 큐닉스컴퓨터에서 독립해 다우기술을 창업했으며 장홍순의 터보테크, 이찬진의 한글과컴퓨터, 변대규의 휴맥스 등이 시장에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서도 창업가들이 속속 나타났다. 오봉환의 가산전자와 장영승의 나노기술, 김형순의 로커스, 박병엽의 팬택, 김동연의 텔스전자, 황철주의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생겼다. **1995년에 벤처기업협회가, 1996년엔 코스닥이 설립됐다.** 이장우 교수는 "벤처산업 초창기 인맥 주류는 카이스트 출신들이었다"며 "벤처기업에 몸담는 카이스트 동문이 늘면서 모임이 결성됐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의 주축은 카이스트 기업인동우회(과기회)**였다. 큐닉스컴퓨터를 창업한 이범천을 비롯해 이민화 장홍순 안영경 원종욱 등이 과기회를 이끌었다.

그런데 초기 창업가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인은 많지 않다. 현재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는 벤처 1세대는 변대규 회장, 송호근 YG-1 회장, 조현정 회장, 황철주 회장 등이다.

특히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다우키움은 소위 '재벌'로 불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

함될 정도로 성장했다. 1세대 벤처 중 유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우키움은 공정자산 기준 재계 58위다. 자산총액은 5조7000억원이며, 계열회사는 48곳에 달한다.

◆ 인터넷 · 게임으로 성공한 2세대 창업 기업인

2000년대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닷컴(.com)기업들이 약진했다. 각각 네이버와 한게임을 창업한 이해진과 김범수를 비롯해 이재웅(다음), 김정주(넥슨), 김택진(엔씨소프트), 나성균(네오위즈), 송병준(게임빌) 등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진호(골드뱅크), 김영삼(아이러브스쿨), 전제완(프리첼), 이동형(싸이월드), 오상수(새롬기술) 등 시장에서 사라진 경영인들도 있다.

2세대 경영자들은 회사를 조 단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대부분 인터넷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회사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한게임 창업, NHN과 합병, 이후 아이위랩(현 카카오)을 세웠다. 카카오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23위로 성장했다. 계열사 97개, 자산총액은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네이버는 재계 41위이며, 넥슨은 42위, 넷마블은 47위다. 엔씨소프트는 기업집단은 아니지만 6월 기준 자산이 3조6444억원이며, 올해 2분기 매출은 5385억원에 달한다.

2세대 기업가들은 서울대 공대 인맥으로 얹혀 있기도 하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85학번이며,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동기다.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이며, 이해진 GIO와 삼성SDS에서 직장생활을 함께했다.

이들은 자선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 김정주 대표, 김택진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5명은 2014년 'C프로그램'을 설립했다. C프로그램은 자선사업을 위한 회사다.

◆ 3세대 플랫폼 스타트업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업가 인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rea Startup Forum)'이다. 회원은 1500개사에 달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9월 출범한 모임이다. 포럼은 네트워크 활성화와 투자, 인수·합병(M&A) 지원, 규제 개선 촉구 등의 일도 한다.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요즘 뜨는 비즈니스를 알 수 있다.

김봉진 대표는 포럼 시작부터 의장을 맡아왔으며, 2018년 포럼이 사단법인이 되면서 의장에 재선출됐다. 2020년 2기 의장단은 김슬아 켈리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3인 체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1등인 배달의민족, 켈리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한다. 직방은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이며,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서비스 '토스' 운영회사다.

이사진도 든든하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해 박재욱 VCNC 대표, 서영우 풀러스 대표, 김문수 스마투스 대표, 김미균 시지온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박민영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대표, 유범령 모비데이즈 대표, 윤문진 피유애피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등이다. 운영위원으로는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 문보국 레저큐 대표,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윤형준 제주패스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 정재욱 센디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 대표는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포럼을 통해 인맥 확대와 새로운 아이디어 습득 등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다"며 "포럼은 또한 규제 혁신과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입법활동 지원 등 정책 분야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19610/>

1장 사람과 말, Opinion

3.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① (8.18)

[① 한·독 중소기업 비교]

독일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대기업 70% 수준

한국 1980년 55수준에서 33으로 급감 ...
정부 R&D지원 56.8%, 독일보다도 높아

글 쓰는 순서

① 한·독 중소기업 비교

- ②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기원
- ③ 독일 시장경제의 중소기업 지원
- ④ 중소기업과 아우스빌둥
- ⑤ 독일의 중소기업 방향과 아우스빌둥 활용

코로나19로 한국경제의 아픈 손가락인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감기 앓듯 지나가지만 기저질환자나 노약자에게선 목숨을 앗아간다. 어떻게 한국경제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에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내일신문은 정미경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인력양성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이끌며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독일의 사례를 재조명한다.

OECD는 2018년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역동성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중이 대기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32.5에 그쳤다.(표1)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한국보다 낮을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50~60% 선에 달하던 대기업 생산성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00대 이후 30%에 미치지 못하기

도 한다.<표2> 기업 규모간 생산성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하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 생산성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커졌다. 2019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58.6% 수준이다. 이것도 낮은 생산성을 메꾸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노동시간을 늘려 달성한 것이다.



◆독일 중기, 세계 최고수준 생산성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약 70%까지 따라잡고 있다. 자세히 보면 독일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들이다. 세계적으로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바겐(VW), 세계 자동차시장을 리드하는 BMW 와 다임러(Daimler), 세계 최대의 전기·가스회사 에온(EON),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기업 지멘스(Siemens), 세계 굴지의 화학회사 바스프(BASF). 독일의 중소기업은 최고의 생산성을 보유한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과 비교해 약 70%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중기 독일과 비교해 영세 = 2018년 기준 독일 전체 기업의 수는 약 347만개이다. 한국 전체 기업수가 381만개인데 독일의 인구 규모 8300만명과 비교하면 독일은 인구 24명당 한개의 기업이, 한국은 인구 14명당 한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한국 기업의 수가 더 많다.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Bonn)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 그리고 매출 5000만유로(약 7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99.5%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하고 그 숫자는 약 346만개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평균 매출이 약 400억원 이하에서 약 1500억원 이하까지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다양한 다른 기준이 추가된다.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의 수를 독일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에 속한다.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면 한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을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9인 이하 소규모 기업 비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62.1%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비율이 88.6%**다. **독일에 비해 중소기업이 규모에서 영세**하다.



◆**변변치 않은 일을 하면 실업자** = 독일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기준으로 약 1777만명이다. 사회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변변치 않은 노동(Geringfügige Beschäftigung)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변변치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1년에 두 달 이하 또는 1년에 50일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제한된 경우 또는 월 보수가 450유로(약 63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들은 독일 국내법상 실업자이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취업자중 변변치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약 57.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에 대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종사자수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한국 중기 취약은 대기업 취약으로 이어져** = 독일은 중소기업이 독일 전체 기업매출의 34.4%를 감당하고 있다. 346만개 기업이 매출 2조4000억유로(3363조원)를 달성한다. 2017년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381만개 기업이 1804조원을 달성했다. 그 비중은 전체 기업매출의 37.9%로 집계됐다. 대략적으로 하나의 중소기업이 달성하는 매출액을 계산하면 독일의 경우 연 평균 9억7000만원, 한국의 경우 평균 4억7000만원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이 한국의 중소기업 매출에 비해 약 두배에 달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총 매출이 1804조원으로 독일에 비해 적지만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은 중소기업이 독일에 비해 영세할 뿐 아니라 대기업도 독일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OECD 기준 2017년 전체 기업 수 대비 대기업 비율은 한국은 0.09%인데 독일은 0.48%에 달한다. 2015년 OECD 보고에 따르면 국가별로 전체 수출금액 중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은 32.5%인 반면 우리나라는 20.5%이다.

◆**한국 중기 연구개발비 독일에 뒤지지 않아** = 독일에 중소기업이 크고 강하고 경제적 성과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 중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종업원수 500인 미만인 독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년 104억유로(약 14조원)다. 이는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11.2%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기준 13조6910억원으로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이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도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 **2016년도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비 전체 집행액 19조44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은 2조 8973억원**에 달했다. 250명 미만의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56.8%로 독일(45.0%)과 비교해 높다.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에 더 많은 연구비가 지원됐고 지출된 연구개발비와 견줘 한국의 중소기업이 보인 매출과 수출의 성과는 높지 않다.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서 만큼은 독일에 비교할 만큼 지출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 있는 것, 한국에 없는 것** = 한국 중소기업에는 없지만 독일 중소기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업의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그로부터 달성된 이윤을 관리해 기업의 투자와 직원의 복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중심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기업현장과 학교로 이원화된 기술인력 양성제도, 아우스빌등을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숙련 위주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아우스빌등 훈련생의 81.7%가 중소기업과 훈련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배워 직업인이 된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양성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이른바 독일의 히든챔피언이다. 기업 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은 기술인력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합리적 가족주의, 지역이 강한 독일의 전통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것이 독일 중소기업의 차별성이다. 이를 기초로 독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정미경 박사는 현재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며 단국대 초빙교수로 있다.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등위원회 위원장이다.

독일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했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한국과 독일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9128

1장 사람과 말, Opinion

4.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② (8.24)

[②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기원]

가족·지역을 기반으로 장기 생존전략 펼친다

혈연보다 가업 중시하는 가족경영 ...
중소기업 지역사회 발전의 책임자

글 쓰는 순서

- ① 한·독 중소기업 비교
- ②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기원
- ③ 독일 시장경제의 중소기업 지원
- ④ 중소기업과 아우스빌동
- ⑤ 독일의 중소기업 방향과 아우스빌동 활용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제국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39개의 군소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통일된 뒤에도 독일제국은 4개 왕이 다스리는 나라, 6개 대공의 나라, 5개 공작의 나라, 7개 후작의 나라, 3개의 자유시, 그리고 엘자스-로렌 제국령으로 나뉘어진 연방국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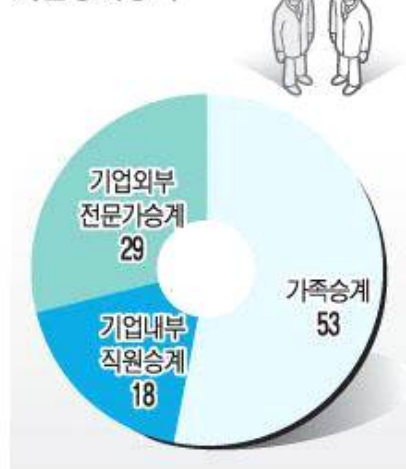
이렇게 소국으로 나뉘어진 독일의 경쟁력은 무엇이였을까? 괴테(1749~1832년)는 "**독일의 위대한 점은 놀랄 만한 국민문화가 나라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림1> 독일 중소기업의
'made in Germany' 경영모델



*출처: The Best of German Mittelstand
- The World Market Leaders(2015)

<그림2> 독일 가족기업이 선택한
기업승계방식



*출처: <https://www.ifm-bonn.org/statistiken/>

괴테는 이러한 국민문화를 발산하고 담당하고 육성해온 것은 바로 '군주들의 수도'라고 했다. 괴테의 시대 독일엔 20여 개의 대학과 1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나라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다.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인문계중고등학교 기술공업학교 등 국민교양과 교육시설의 숫자도 상당했다. 학교는 오히려 남아도는 형편이었다. 군주들이 자기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건설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괴테는 독일이 통일돼도 큰 나라의 수도는 단 하나이고, 큰 수도 하나에서 인재도 양성하고 국민생활의 번영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현대 독일의 연방주의는 과거 군주국가들이 각자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듯 각 지방에서 공간적 지배권을 갖는다. 연방주는 각자 헌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독자적으로 주의 세금을 징수하고 영역 안에서 주를 다스리는 통치기구를 갖는다. 수평적 분권에 의해 각자 지분을 갖는 연방을 구성한다.

◆**보쉬, 2만명 시골도시엔 본사 뒤** = 독일 기업은 이런 지방도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기반한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동차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이고 옛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 본사가 있다.

지멘스(엔지니어링) BMW(자동차) MAN SE(트럭) 린데(가스) 알리안츠(보험) 뮌헨 리(재보험) 그리고 로데 & 슈바어츠(전기)는 옛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 그리고 바이에른의 주도 뮌헨에 본사를 둔다. 화장품업계의 대표주자인 니베아는 융성한 중세 자유시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 본사가 있다. 많은 기업이 시골도시나 시골마을에 본사를 두기도 한다. 세계적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인구 12만명의 볼프스부르크에, 의약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바이엘은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한 레버쿠젠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쉬는 인구 약 2만명의 게를링겐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림3〉 독일 중소기업의 공동체 · 사회참여 동기

*단위:%(복수응답)



◆**특유의 중소기업 전략** = 지방에 뿌리내리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은 미국의 기업들과 달리 익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기보다 **세대를 이어 내려온 단골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단기 손익에 연연하기보다 **가족이 기업을 소유하고 장기 생존전략**을 펼친다. 2015년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들을 연구한 논문, 프로리안 랑엔샤이드와 베른드 베노어의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들;세계시장의 리더들’에 따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경영모델의 특징을 △세계적 틈새시장 지배전략 △‘계몽된’ 가족자본주의 전략 △핵심공정 세계최고 지향 그리고 독일 특유의 지역적 비즈니스 환경의 이점 활용하는 전략**이다.(그림1) 가족이 중심이 돼 이끄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서로 긴밀한 협조 속에 발전한다. 지역의 번영은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가족기업의 경제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남의 돈을 잘 쓰지 않는 중소기업**= 지역경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뱅크제도**다. 독일어 하우스(Haus)는 집을 뜻하고 뱅크(Bank)는 은행을 말한다. 향토성이 진한 지역의 저축은행이다. 독일의 은행은 상업은행, 주립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 가족이 소유한 독일의 중소기업은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자기 자본이 있어 남의 돈을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익명의 사람들

에게 기업을 공개하고 주주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남의 돈이 필요한 경우 긴밀하고 장기적인 거래로 다져진 지역의 저축은행을 찾아 돈을 빌린다.

◆**지역기업을 꿰뚫고 있는 저축은행** = 저축은행은 시·군 단위의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한다.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한 지역에 하나의 저축은행만 있어 동종업종 내에 경쟁하지 않고 다른 업종과 기업 결합을 할 수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설립된 저축은행은 지방정부가 이사의 2/3를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는 직원들 중에서 임명된다. 이들은 공익성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부실대출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금융에 집중하게 된다. 즉 차입자와의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거래에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5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 73.5%** = 은행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업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2013년 말 독일 저축은행이 기업에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을 한 비중은 73.5%에 달한다. 대규모 상업은행(51.4%), 주립은행(68.8%), 신탁중앙회(53.2%)에 비해 장기대출의 규모가 크다. **저축은행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보다 자금 동원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2013년 독일의 중소기업 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전체의 8%(유럽연합 28국 평균 15%)에 불과하다. 기업 내부의 자본이 풍부해서 대출신청이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 전체의 58%(유럽연합 평균 50%)였다. 2013년 중소기업대출신청에 대한 기각률은 2.5%로 EU평균(14.4%)과 비교해 낮다.

◆**지역 일자리 지키면 상속특례** = **2014년 독일 전체 기업의 93.6%가 가족기업**이다. 대기업도 가족기업이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이다. **독일은 가족기업이 경제의 안정적 발전, 좋은 일자리,**

세계시장 개척에 기여함을 알고 가족기업이 지속되길 위해 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 가족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자는 세금을 납부하려고 물려받는 기업의 현금성 재산을 인출하거나, 기업재산의 일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출과 매각이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곤 한다.

정부는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기업이 상속 당시의 고용수준, 임금수준, 자산을 5~10년간 유지하는 경우 상속된 기업재산의 대다수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도덕·윤리의 문제** = 가업승계는 조기에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이다. 15~18세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족기업들은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 양성을 위해 아들이 13살 정도가 되면 당시 산업의 중심지 멀리 베니스로 보내 도제훈련을 받도록 했다. 독일의 가족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혈연보다 가업이다. 창업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큰 아들이 기업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다.

가업의 지속을 위해 가족 중 경쟁력 있는 후계자가 없을 경우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과감히 분리**한다. 혈연적인 경영권의 상속보다 가족이 대를 이어 기업에 심어놓은 뜻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한다. 이런 가족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의 수명도 길다. 평균 20년 이상 가족기업을 맡아 경영을 한다.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짧으면 단기실적에 급급해 장기적인 회사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중소기업은 지역사회의 책임자** = 이러한 가족기업은 지역의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정치와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파트너다. 대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한다.

그러나 독일의 중소기업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바라본다.(그림3) 또 기업이 나서 지역 환경과 인간 삶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족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가족과 지역을 기반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을 창출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면서 발전한다.**

정미경 박사는 현재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며 단국대 초빙교수로 있다.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등위원회 위원장이다.

독일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했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한국과 독일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9735

1장 사람과 말, Opinion

5.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③ (8.31)

[③ 독일 시장경제의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세계적인 중소기업 키운다

부품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 ...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에,
유럽연합까지 지원

글 쓰는 순서

- ① 한·독 중소기업 비교
- ②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기원
- ③ **독일 시장경제의 중소기업 지원**
- ④ 중소기업과 아우스빌동
- ⑤ 독일의 중소기업 방향과 아우스빌동 활용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경쟁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시스템을 갖춰 사회가 경쟁의 효율성이라는 과실을 지속적으로 향유" 하는 것이다.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가가 불공정과 무질서로부터 자유를 지키도록 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쟁능력이 없는 사람은 배려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 이러한 자기책임과 사회적 균형을 기초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세계를 리드하는 중소기업을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 균형의 중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 균형 있는 원하청관계를 의미한다. 균형 있는 원하청 관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이 된다.

독일은 1957년 경쟁제한 금지법(GWB)이라는 소위 반카르텔법을 도입했고 이 법이 독점금지 및 경쟁의 핵심규범이 됐다. 독일과 유럽의 엄격한 반카르텔법에서 대표적인 예외가 중소기업의 카르텔 허용이다.

한국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조항과 동법 시행령 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 요건) 등으로 중소기업의 카르텔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외형은 이미 도입됐다. 세계에서 좋다는 법은 거의 다 한국에 도입이 됐다. 문제는 제도의 외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사용자협회 1000년 전통** = 독일의 경우 법적인 강제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독일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하지만 수출품 경쟁력은 제품의 알맹이인 부품의 경쟁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협력업체의 품질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원청의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업체가 조용히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잘 굴러가게 돕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길드 방식에 따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사용자 협회가 1000년이 넘는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동일시장에서의 경쟁은 가능한 피하고 시장분할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산업화 이후 등장한 대기업에 대한 대응력도 높다. 거대한 기업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것은 어렵다.

◆**1개 대기업 납품비중 25% 못 넘게** = 정부도 중소기업 보호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말 독일 철도청이 민영화되자 부품업체들에게 납품가격을 3%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부품업체들은 이를 카르텔청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철도청이 인하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또 협력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 최장 30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1개의 대기업과의 주문 생산이 하청기업 매출액의 20~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원청의 선급금에 대해 연방, 주정부가 하청을 보증한다. 2011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하청비율은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한다. 또 이들 기업은 매출액에서 대기업 납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5%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의존성이 원하청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었다.

◆**불리한 시장조건, 공정경쟁 지원** = 독일에서 산업발전의 주역은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이다. 국가는 시장이 일궈낸 산업구조의 맹점을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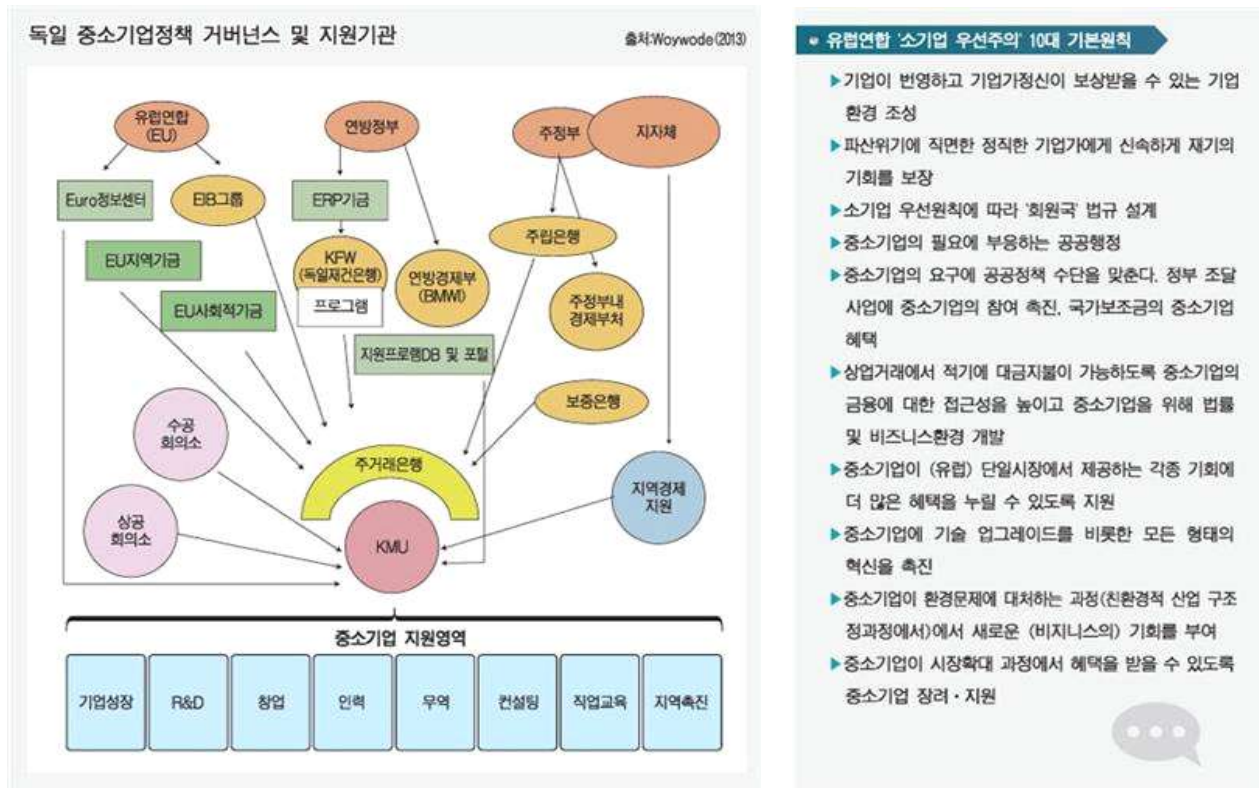
정부는 이런 원칙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시장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KMU) 지원에 중앙정부 소속인 연방경제부 중소기업정책국과 독일재건은행(KfW)이 앞장선다. 주정부의 경제부처와 주립은행, 기초지자체와 저축은행, 유럽연합과 유럽투자은행 모든 정치·행정 주체가 중소기업지원에 나선다.(그림 참조)

◆**환경변화에 맞춰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높여** = 연방정부는 각 주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실시한다. 독일연방정부의 경제부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구학적 변화, 에너지전환,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발전해야 한다며 정책을 리드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음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해 기업이 혁신성과 노후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신을 강조한다. 특히 창업과 승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간 과소평가된 여성과 외국인에게 창업 또는 승계에 매력을 느끼도록 한다.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을 지원한다. 투자는 혁신의 기본전제이다.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본을 조달한다. 연방정부는 상장 대기업에 비교해 자본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투자와 혁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독일재건은행(KfW)과 유럽투자기

금을 중심으로 약 20억유로를 확보하여 대출을 보장한다.



독일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한국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돼 한국에 비해 훨씬 오래된 문제다. 이는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우수인력 확보경쟁이 발생한다. 국가는 이에 대응해 충분한 인재풀을 조성한다. 한편 국내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자와 난민에게로 눈을 돌린다. 이민자와 난민을 도전의식이 강한 인력군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에 적극 나선다.

공적지원의 의존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자주 관공서를 찾고, 더 많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기업이 본업인 혁신 생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는다. 중소기업이 자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일은 제1·제2 관료주의 경감법과 조달법을 현대화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독일식 답답한 관료주의는 사라졌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절차의 간소화로 약 20억유로의 행정비용 경감됐다고 한다.

중소기업 업무와 생산의 90% 정도는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관심은 대기업에 비해 적다. 연방경제부는 전국 25개 지역에 '중소기업4.0역량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이 최신 정보통신기술,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효력을 체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R&D사업을 추진하지만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R&D 수행이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독일 중소기업의 약 44%가 직·간접적으로 독일의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경제부는 '글로벌 중소기업'이라는 기치아래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또 독일의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 표준과 규정이 독일의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국제조직에서 치열한 로비활동도 벌인다.

이밖에도 독일식 이원화 직업훈련제도 및 마이스터 제도, 산업별 협회,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 등 독일식 제도를 유럽으로 확산해 중소기업이 독일에서 향유하던 비즈니스 환경을 유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럽 '소기업 우선주의' 실현** = 독일이 중심이 돼 유럽연합은 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확대하고 소기업활동의 법적 행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소기업 우선원칙'은 유럽중소기업법으로 제도화됐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매우 혁신적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57.0%가 특허상품 출원 등 시장에 혁신을 제공했다(EU 평균은 38.4%). 독일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균형을 조성하고 중앙 지방 유럽의 정부가 모두 나서 중소기업을 도와 다방면에서 공정한 시장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가족과 지역에 뿌리를

돈 전통 있는 기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미경 박사는 현재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며 단국대 초빙교수로 있다.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등위원회 위원장이다.

독일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했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한국과 독일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0393

1장 사람과 말, Opinion

6. 중소기업 경쟁력, 독일식 비결을 찾는다 ④ (9. 7)

[④ 중소기업과 아우스빌둥] 첨단기술보다 숙련된 인력이 경쟁력

아우스빌둥, 전통 잇고 수익 올려 ...

훈련생 고용, 외부채용보다 생산성 높다

글 쓰는 순서

- ① 한·독 중소기업 비교
- ②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기원
- ③ 독일 시장경제의 중소기업 지원
- ④ **중소기업과 아우스빌둥**
- ⑤ 독일의 중소기업 방향과 아우스빌둥 활용

본에 있는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Bonn)에 따르면 2018년 독일 기업의 총 매출은 6조9600억유로(9783조원)이다. 중소기업의 총매출은 34.4%로 2조3970억유로(3369조원)에 달한다. 같은 해 독일에는 전체 3090만명이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에서 일했다. 그 가운데 57.6%가 중소기업에 근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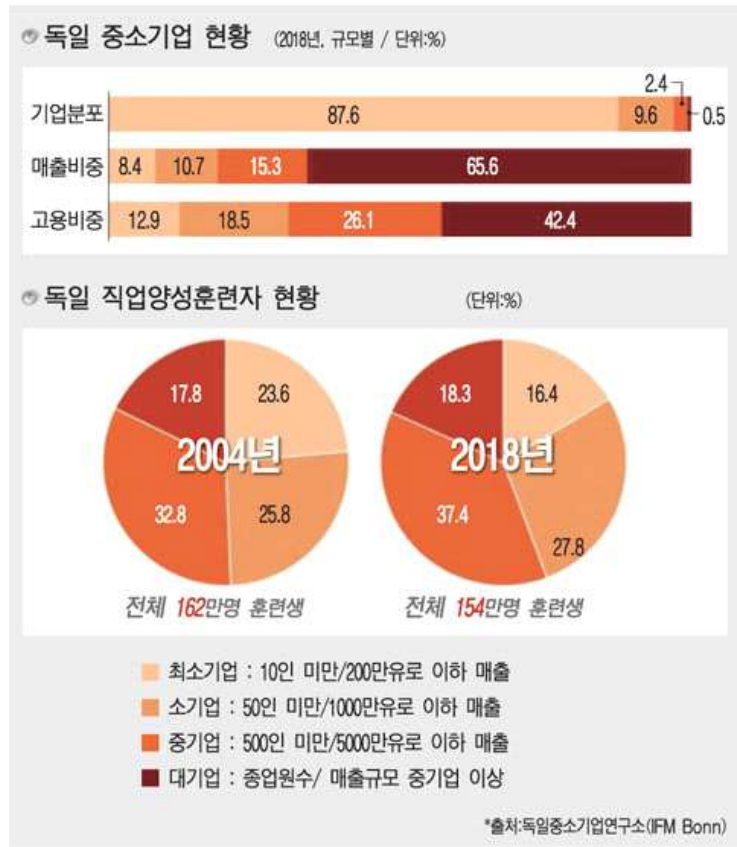
독일 전체에서 아우스빌둥, 즉 직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직업훈련을 받은 청소년은 154만명이었고 그중 81.7%가 중소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반면 2017년 기업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R&D 비용은 6879만유로인데 5990만유로가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중소기업은 889만유로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R&D 비용의 비중은 13%였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첨단 시설과 설비보다 잘 훈련된 인력 의존성이 높다는 얘기다.

근속연수가 길고 한번 회사에 몸을 담으면 드물지 않게 대를 이어 한 회사에 근무하는 전통을 지닌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숙련위주의 경쟁력이다. 대기업의 기술력 위주의 경쟁력과 대비된다.

◆수공업의 전통을 잇다

= 이런 숙련위주 경쟁력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산업화 이전 독일의 수공업은 길드제도와 도제제도에 기반해 독일 중소제조업의 싹을 틔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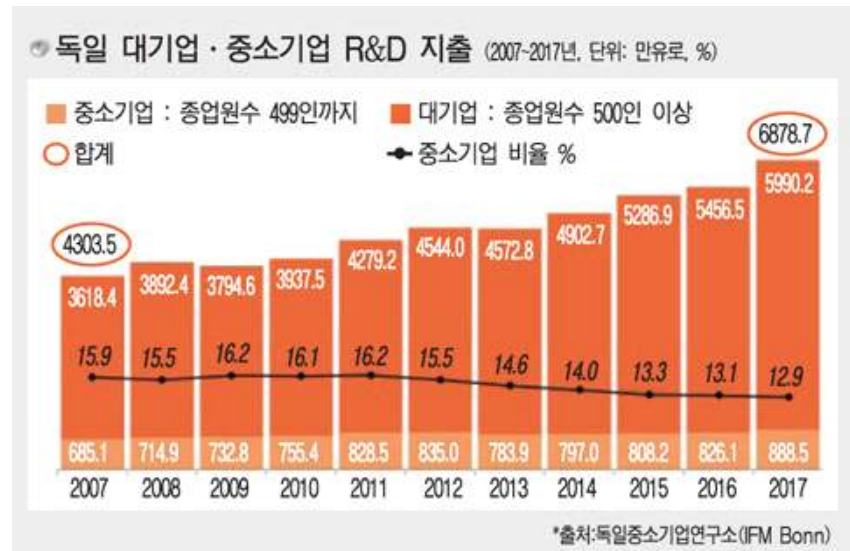


수공업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에서 출발했다. 도시가 발전해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독자적인 제조업으로 발전했다. 중세도시에서 수공업자는 상인과 더불어 권력의 두 축을 형성했다. 수공업자들은 정치를 이끄는 귀족은 아니지만 도시의 행정에 참여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 여기서 가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꺼이 계승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근대이전 수공업자가 되려면 도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직인이 된 후 약 6년간 유랑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는 후 마이스터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유랑은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다른 지역에 신기술을 습득하고 해당 업종의 비즈니스 현황을 두루 섭렵하는 방법이었다.

마이스터가 되면 도제를 양성할 수 있었고 또 작업장(Werkstatt 공방)을 소유하는 수공업자가 될 수 있었다. 길드는 길드규정에 따라 수공업 제품의 가격,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직인과 마이스터의 자격증

발급, 임금결정 등 수공업과 도제제도를 관리했다. 이런 길드가 폐지된 것은 직업의 자유와 영업자유가 보장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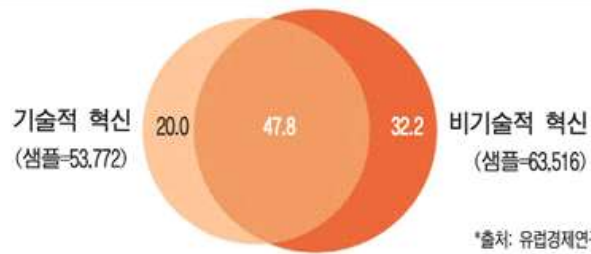


◆**산업화 과정에 흡수된 길드·도제 제도** = 독일의 산업화를 이끈 비스마르크는 고전적 자본주의 질서가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지켜봤다. 그리고 수공업자,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농과 같은 소시민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불안을 잠재우고자 산업사회 전환 과정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도제제도를 재건했다.

그는 1878년 북독일동맹 영업법을 개정하면서 "영업자유권이 보장되고 길드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제가 미숙련 노동력으로 장기적으로 착취되고 있다"며 '도제의 노동은 교육과 훈련이 목적'임을 법으로 명시했다.

1908년 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자만이 도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자격증명제도가 다시 부활됐고 1935년 나치 하에서는 대자격증명제도까지 부활시켜 수공업자가 되려면 마이스터 자격을 갖춘 자가 수공업협회에서 사업자 자격증을 받아야했다. 영업자유권이 제한된 것이다. 현재 마이스터의 창업은 창업성공률이 98%에 달한다. 20세기 초 등장한 수공업협회와 상공회의소는 길드조직의 후신으로 현재 상공업과 직업훈련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이 선택한 혁신의 유형 (2014년 / 단위: %)



독일 중소기업 훈련생 1인 평균 손익비교 (51개 기업 선택 / 단위: 유로)



◆아우스빌둥, 수지타산 맞는 투자 = 중소기업이 독일 아우스빌둥의 약 82%를 담당한다. 그리고 아우스빌둥에 들어가는 비용의 70%는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부담한다. 회사는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진다. 이런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도제제도의 전통을 유지해 아우스빌둥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아우스빌둥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다. 회사가 훈련을 포기하더라도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훈련의 총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기업은 훈련을 지속할 것이다.

먼저 기업은 아우스빌둥을 위해 훈련생의 인건비, 공장설비 사용, 재료비 및 기타 비용을 지출한다. 하지만 훈련생은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을 통해 훈련 중에 수입을 창출한다. 수입을 총비용에서 공제하면 아우스빌둥의 순비용이 나온다. 연방직업훈련협회에 따르면 훈련생에게 들어가는 총비용 중 2/3를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다고 한다. 2013년 1년간 훈련생 한사람에게 지출된 비용이 년 1만8041유로였다. 훈련생은 그중 1만2871유로를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여 실제 훈련비용은 5170유로가 된다.

◆**기업의 특수한 직업능력 양성** = 기업에게 교육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혜택은 다양하게 달성된다. 먼저 훈련생의 생산활동은 해당 직급의 정규 노동자가 수행하는 생산활동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생은 회사밖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사외교육을 받거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금 또 유럽사회기금, 연방고용기관, 산업협회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또 훈련이 종료된 후 훈련생이 정규직으로 회사에 고용되면 지속적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린다. 기업은 훈련생을 숙련노동자로 양성해 고용하면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된다. 나이가 어린 숙련노동자는 실제 그들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훈련은 일반적인 직업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의 특수한 직업능력을 양성하게 된다.

때문에 훈련이 끝난 후 숙련노동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유용한 특수한 직업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만큼 임금의 저하의 감수해야한다. 이에 젊은 숙련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해도 훈련받은 기업에 남게 된다. 기업은 생산성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젊은 숙련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연방직업훈련협회는 아우스빌등의 비용과 편익조사에서 스스로 양성한 훈련생을 고용하면 그에 준하는 기술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다. 독일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아우스빌등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 독일의 아우스빌등은 전통뿐만 아니라 실속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1118

1장 사람과 말, Opinion

7. 스케일업 벤처 육성이 필요한 이유 (8.23)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스케일업(scale up)은 매출·고용 등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기업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스케일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한다.

벤처기업의 진화 과정은 스타트업(창업)에서 시작해 스케일업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주체는 성장하는 기존기업, 즉 스케일업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을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책 방향을 스타트업 창업 장려 단계를 넘어 스케일업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 가운데 스케일업 기업의 비율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체 벤처 이력 기업 중 중견 벤처라고 할 수 있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벤처 창업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벤처의 스케일업에서 매출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의 허리가 되는 스케일업 벤처기업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 극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케일업이 가능하려면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돕는 다양한 환경요인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신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기업가정신 회복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벤처 스케일업에 있어 성장 단계별 적기의 자금 투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 것은 외국계 자본의 인수자금이었다. 최근 발표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방안과 벤처투자촉진법은 그동안 정책자금 위주의 벤처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와 민간자금의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스케일업 정책이 너무 투자 쪽으로 쏠리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의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없던 규제가 사업 확장 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유니콘을 선발해 R&D·보증·융자 등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유니콘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 유사사업이 단순 R&D 자금지원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갖춘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부처 내에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글로벌 트렌드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들이 스케일업 벤처에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가들은 지속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와 우수 해외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OWBW0MX>

1장 사람과 말, Opinion

8. '혁신의 열쇠' 테슬라의 오픈특허 전략 (8.19)

1416년 베니스에서 처음 시작된 특허제도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600년 이상 혁신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기고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그러나 최근 혁신 활동이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특허제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첫째는 특허공개와 기술표준을 통한 시장 형성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 자동차로 바꾸기 위해 관련 특허를 공개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필요한 제도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하고 미래 수요까지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가 모바일과 연동된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감에 따라 기술표준 선점을 통한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특허제도의 보호와 이행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지만 사회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어야 하는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특허공개나 기술표준 전략이 갈수록 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갈 것이다.

둘째는 속지주의 특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동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로켓의 재사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을 개척하기 시작한 스페이스X와 고속열차의 2~3배 속도로 달리는 하이퍼루프 등 초대형 벤처들이 등장하고 있다. 거대 벤처들은 나라마다 특허를 등록받도록 하는 종래 특허제도를 무색하게 한다. 중소기업들조차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가 필수적인 환경이 되어감에 따라 공동특허제도의 필요성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단일특허제도, 유라시아 특허제도 등 지역 공동특허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작고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우리도 공동특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특허 보호 대상 확대의 문제이다. 혁신 활동의 확장과 함께 특허 대상도 확대되어 왔다. 과거에는 외국 사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원유를 분해하는 박테리아, 암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실험 쥐 등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한지 오래됐다. 골수, 제대혈, 지방세포 등 인체 적출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간지놈 프로젝트와 함께 특정한 기능을 하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용했으나 이 분야의 연구가 어느 수준 이상 도달하자 2013년 미 연방대법원은 특허성을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한다.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발생을 예견하고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한 BRCA 유전자가 그것이다.

흔히 특허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지만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가 본질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해도 때로는 특허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미미하지만 혁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특허가 될 수도 있다. 특허제도는 기계적 판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허정책과 혁신정책 간의 연계와 협업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8/850570/>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1. 창문에 부착하는 환기청정기 인기몰이 (9.14)

[중기 Cool 상품]

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

외부센서 정확한 공기질 측정
창문설치로 공간 활용성 우수



엔이알이 출시한 ‘유후 환기청정기’가 창문에 설치된 모습. [사진 제공 = 엔이알]

창문형 환기청정기인 ‘유후(UHOO)’는 창문에 부착해 나쁜 실내 공기는 밖으로 빼주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정화해 실내에 유입시키는 제품이다. 창문에 설치하기 때문에 생활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공간 절약 효과도 크다. 유후 창문형 환기청정기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엔이알의 김수경 대표는 "유후 환기청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센서가 내부에 있는 일반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공기질 측정 센서가 외부에 있다는 점"이라며 "유후는 최대 10m 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센서를 사용해 원하는 생활 공간에 두고 정확한 공기질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내부 센서가 공기질을 측정하고 질이 안 좋을 때 강하게 도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센서가 기계 내부에 있으면 제품 주위에 갇혀 정화돼 나온 공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전체를 모두 감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스스로 집 안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기능도 소비자들이 유후 환기청정기를 찾는 이유다.

자동 모드로 유후 환기청정기를 설정해두면 공기질 측정 센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기량과 배기량을 계산해 환기할 수 있다. 또 ‘강제환기시간’을 설정해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유후 환기청정기가 1시간씩

3회에 걸쳐 강제로 환기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강제환기 기능은 반응이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다중이용시설에서 유후 환기청정기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판매가 전년 대비 약 6배 급증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중이용시설 환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유후 환기청정기에는 살균 기능이 없지만 엔이알은 내년에 살균이 가능한 환기청정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후 환기청정기는 지난 7월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에 선정돼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에 입점했고, 수의계약 금액 제한 없이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또 엔이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2020년 디딤돌 창업성장 과제'에도 선정돼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형태의 통합 환기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9/949401/>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2. ‘한 번에 모발 10개’ 식모기에 메디시티 대구선도 (9.14)

[내 고장 경제] 오대금속, 연발형 모발이식기 세계시장 공략

대구 스타기업 선정 오대금속
경북대 등과 ‘연발형 식모기’개발
FDA 등록 이어 세계시장 공략

신종 모발이식기기를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해 상용화시킨
오대금속 김창현 대표. 오대금속 제공



‘메디시티’ 대구에는 피부 팔이식 모발이식 성형 한방 치과 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모발이식은 메디시티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독보적인 의료서비스 분야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이 한꺼번에 모발 10개를 심을 수 있는 ‘연발형 식모기’를 개발, 상용화에 성공해 메디시티 대구에 날개를 달고 있다. 대구 달성군 논공공단에서 자동차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만드는 (주)오대금속 얘기다.

오대금속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북대 모발이식센터와 공동으로 수술시간을 40%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연발형 식모기(植毛機)를 개발해 전국 의료계에 보급 중이다. ETRI 대경권연구센터 의료IT융합 연구실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지난해 말 장비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임상시험과 국내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과 의료기기제조 인증을 통과했다. 올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마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뿌리(모낭)와 함께 채취해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이다. 주삿바늘에 모낭이 달린 머리카락을 넣고 두피에 찔러 넣어 이식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 집도의에 따라 이식법

이 다양하지만, 수 년 전부터 식모기를 이용한 이식법이 많이 쓰인다. 1개의 식모기에 1개의 모낭을 장착한 후 삽입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식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발한 연발형 식모기는 모발이식기에 장착한 바늘 10개가 한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자동 소총처럼 카트리지가 회전하며 바로 빠르게 이식하는 형태다. 식모기 교체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집도의가 그 만큼 집중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을 줄여준다. 모낭이 체외에서 노출되는 시간도 줄여주어 이식 성공률을 높여주게 된다.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에서 8차에 걸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늘과 식모기 일체형 구조여서 시술과 장비의 안정성도 높다.

오대금속은 60년대 자전거 부품 제조 기업으로 출발해 자동차 부품을 현대기아차 독일 미국 등 국내외 자동차에 납품해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8월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해 연간 373억원(수출38%)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50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다.

김창현(56) 대표는 “연발형 모발이식기 국내 매출이 아직 월 3,000만원대로 우리회사 전체 매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지만, 해외 의료기구 도매상 15개 중 4개 업체에 공급 중이고 수출시장도 개척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며 “자동차엔진부품 가공 분야에서 터득한 초정밀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외형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메디컬 신사업분야 일등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709120001821?did=NA>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3. 레트로 냉장고·저당밥솥...‘취향 명중’ 중소기업 가전 뜬다 (9.15)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 늘어 1인가구 등 위한 소형가전 인기

착한 가격 이탈리아 감성 냉장고

당뇨병 예방·다이어트 관심 커져, 탄수화물 줄여주는 밥솥 주목
IoT 젓병·초경량 워킹패드도

“다양한 소비 트렌드 확산되면서 기존에 없는 제품 출시 기업 늘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보조 가전’을 찾는 고객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중소기업의 소형가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벨(belle)은 프랑스어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고객님들의 생활 공간이 벨처럼 더 아름답고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고객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레트로 냉장고 부문에서 상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앱 라이브 홈쇼핑 방송 ‘하트라이브’에 출연한 박민규 서울전자 가전사업본부장이 소형가전 부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트로(복고풍) 냉장고 ‘벨’을 소개했다. 이날 방영된 ‘하트라이브’는 롯데하이마트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파트너사의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 소형가전 찾는 1인 가구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보조 가전’을 찾는 고객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중소기업의 소형가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김형철 이사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화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 소형가전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의 가전제품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에 경증 뛰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가전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7.8% 증가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불황 속 수출 유망품목으로 노트북, 모니터, 웹캠, 빔프로젝터, 마이크, 헤드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꼽았다.

국내에서는 주로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방 가전, 홈트(홈트레이닝)족을 위한 전자운동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겨레>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KOTRA)와 롯데하이마트 등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가전 인기 아이템을 뽑아봤다.

■ 인테리어와 공간활용을 동시에

대형 티브이(TV)나 대용량 세탁기 등 주로 ‘대형 가전’에 집중하는 엘지(LG)전자와 삼성전자 등과 달리 중소기업은 1인 가구를 위한 ‘작고 예쁜’ 가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집 인테리어와 공간 활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레트로 냉장고’다. 서울전자의 ‘벨’은 레트로 냉장고의 원조인 이탈리아업체 스메그와 비슷한 감성의 디자인을 갖췄지만 가격대는 5분의 1 수준이다. 박민규 본부장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와인이나 음료수를 보관하기 위한 보조 냉장고로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밥솥 시장은 쿠쿠와 쿠첸 등 중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여전히 높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예방이나 다이어트 등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중소기업 전기밥솥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저당 밥솥’은 전분이 녹은 밥물을 배출해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밥솥이다. 당국의 ‘저칼로리 저당밥솥’과 쿡스클럽의 ‘로우로우 미니 저당밥솥’ 등이 주목받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최준석 상품총괄팀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가심비를 추구하는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저당밥솥처럼 기존 제조사가 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중견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똑똑한’ 육아족 겨냥한 스마트 젓병

‘육아의 다음 레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복합센서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젓병인 ‘스마트 보틀’을 판매하는 리틀윈은 국외에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꿈나무 수출 중소기업이다. 스마트 보틀은 일반 젓병처럼 생겼지만 젓병 밑에 있는 센서와 가열판을 통해 분유를 최적 온도로 유지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수유할 수 있도록 했다. 리틀윈은 올해 세계 최대 가전·아이티(IT)박람회 ‘시이에스(CES) 2020’과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인 ‘IFA 2020’에도 참가했다. 이병규 리틀윈 대표는 “지난해엔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스마트 보틀을 선보여 초기 제작한 3천대를 4개월 만에 모두 판매했다”며 “올해 상반기 리틀윈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두 배 넘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이 제한되면서 홈트족을 위한 운동기구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용 운동기구는 아직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다. 경안글로벌은 집안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겨냥해 올해 알루미늄 소재의 초경량 워킹패드를 출시했다. 30kg의 무게에 6cm의 두께로 침대나 소파 밑에 수납하기도 편리하다. 경안글로벌 송환웅 차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매출이 110% 늘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2167.html>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4. 결로없는 '토종' 합성수지 지붕재 나왔다 (8.24)

석무, ASA수지 활용 'SERA' 개발
가공·단열성 좋고 반영구적 수명
축사·공장·물류창고 등 적용 가능
친환경 국제인증...시공비도 저렴
'기능성 지붕재' 수입 대체 효과도



(주)석무 유인춘 대표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본사 공장에서 ASA수지 기반 지붕재 'SER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돼지·닭 우리의 경우 하·동절기 천장 결로(結露)가 잦다. 이 차가운 물방물은 가축의 성장과 휴식, 출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건축자재기업 (주)석무(대표 유인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합성수지 기반 지붕재를 개발한 업체.

이 회사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ASA수지를 활용해 결로방지 기능을 부가하고 색상을 다양화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능성 지붕재를 국산화한 것이다.

ASA수지는 PVC나 ABS수지에 비해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공성이 좋은 게 특징. 다양한 색상 구현, 내후(耐候)·내식(耐蝕)·내열성 등에서 기존 수지들에 비해 뛰어나다. 또 화재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호르몬도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성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석무는 이 ASA수지에 부직포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결로현상을 해결

하고, 6종류의 색상을 구현한 지붕재 ‘SERA(Semipermanent Economical Roofing ASA)’를 개발, 공급 중이다. 말 그대로 반영구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지붕재란 뜻이다.

석무 유인춘 대표는 “SERA는 변경된 건축법시행령에 맞춰 개발한 신제품으로, 자외선에 강해 조식이 악화되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다”면서 “축사, 돈사, 양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분뇨에 의해 부식되지 않고, 결로문제도 해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색상은 오렌지, 다크그레이, 스카이블루, 밤색, 회색 등 5~6가지 범위에서 주문생산이 가능하다. 기계설비도 직접 설계, 생산해 플랜트 자체를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SERA는 단열성도 뛰어나 기존 스틸패널보다 30% 정도 높다. 무엇보다 값이 싸면서도 기존 지붕재들에 비해 오래 견디므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회사 측은 전한다.

일반 주택용 지붕재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와형으로, 단열재만 결합해 생산하면 된다는 것. m²당 시공비 포함 2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자재가 될 수 있어 합석이 주류인 동남아시아 수출도 유망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석무는 일단 지붕재 시장에 주력하면서 벽재로 활용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루 2000m²인 생산능력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6000m²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100억원 가량인 매출액(예상)이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각종 가설건축물의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 특히, 천막에 비해선 시공비가 m²당 배 정도(10만원) 비싸지만 4, 5년내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축사를 넘어서 식품회사, 화학공장, 물류창고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생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4000522>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5. 해외여행을 국내로 재빨리 전환 '대박' (8.17)

100억 클럽 | 마이리얼트립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는 단연 여행업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4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여행 스타트업이 있다.



여행 플랫폼 기업 마이리얼트립이다. 이 회사 이동건 대표를 최근 만났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활용해 개발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리얼트립은 여행지 현지 투어·항공권을 중개하는 여행 플랫폼이다. 해외여행 붐과 맞물려 거래액이 470억원(2017년)→3600억원(2019년)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왔다. 그러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까지 하루에 1만건 넘게 들어오던 예약이 4월에는 40여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답게,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 국내 여행으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 "그 결과 예약 건수는 하루 평균 2600건까지 회복됐다. 해외 한인 가이드가 현지에서 여행을 생중계하는 '랜선투어' 프로그램도 '완판'됐다. 이 대표는 "개발 인력 덕분에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이 회사 직원 140명 중 60명이 개발 인력이다. 이번 투자(시리즈D·432억원)는 알토스벤처스의 주도하에 기존 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사인 산업은행, 액시엄캐피털(싱가포르), 파텍파트너스(프랑스), 테크톤벤처스(미국) 등이 참여했다.

※'백억클럽'은 최근 10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 소개 코너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6/202008160205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6.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심전도 측정 새 시장 연다 (9.14)

휴이노·씨어스·스카이랩스
심전도 측정기 시장 도전장
몸에 붙이는 형태로 간편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기

회사	제품	형태	식약처 허가
휴이노	메모워치 (MEMO Watch)	손목 시계	2019년 3월
씨어스 테크 놀로지	모비케어 (mobiCARE +Cardio)	패치	2019년 8월
스카이 랩스	카트-원 (CART-1)	반지	2020년 5월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웨어러블(몸에 착용하는) 심전도 측정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웨어러블 측정기는 긴 시간 심장의 이상 징후를 기록할 수 있어 심장질환 예방의 미래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휴이노의 '메모워치', 씨어스테크놀로지 '모비케어', 스카이랩스 '카트-원' 등이 국내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3사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투자까지 유치했다.

휴이노는 지난 3월 유한양행 등으로부터 총 133억원을 투자받았다. 씨어스테크놀로지도 지난 4월 라이프코어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70억원을 투자를 유치했고, 스카이랩스 역시 TBT 등에서 투자를 받았다.

실탄 확보후에는 양산과 유통채널 확대에 나섰다. 대형 제약사 유통채널을 통해 심장 질환 관련 치료제와 병행 판매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유한양행 유통망을 활용해 메모워치를 병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모비케어는 대응제약을 통해 판매한다. 대응제약은 부정맥 질환 관련 항응고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랩스 이병환 대표는 "양산이 진행 중이다. 스카이랩스 제품 유통을 희망하는 다수 회사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3사 강력한 경쟁우위는 차별화된 기술력이다. 모두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와 관련된 하드웨어(측정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인공지능)도 개발해 환자의 심전도를 기존 보다 쉽게 측정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잇달아 인허가를 받아 신뢰성도 높아졌다.

손목시계 형태 휴이노 메모워치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첫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해외 규제기관 허가도 받았다. 9.2g 가슴 부착형 패치인 모비케어는 지난해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유럽의료기기품목허가(CE-MDD)를 취득했다.

세계최초 반지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기 카트원은 지난 5월 식약처 허가를 받는데 이어 지난달 유럽의 의료기기 국제 규격(CE-MDD)도 획득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도 갖추고 있다.

심전도 측정기는 심장에 흐르는 미약한 전류를 기록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심전도 측정은 1억원이 넘는 홀터심전도검사기를 갖춘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해 환자가 최소 4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했다.

반면 1차 의료기관에서 웨어러블 측정기를 환자에게 처방하면 병원 문턱이 낮아져 예방 효과가 커진다. 몸에 계속 붙이다 보니 홀터 보다 정확도도 높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009131711201963>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7. 일본서 조사한 '세계 1위 품목'...한국, 미·중 이어 '3위' (8.14)

2019 국가별 1위 상품·서비스 품목 *자료: 니혼게이자이신문



똑같은 '세계 3등'인데...첨단기술 치고나간 한국, 뒤쳐진 일본
 닛케이, 작년 상품·서비스 글로벌점유율 발표
 한국, 스마트폰·D램·OLED 등 7개 부분 선두
 일본, 전가차배터리·VR 밀려...중국에 2위 내줘

한국이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7개 품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일본은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019년 74개 주요 상품·서비스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미국은 25개 품목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이 12개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한 계단 내려오며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D램·OLED 등 5개 분야 1위 석권
 한국의 세계 1위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이 주도했다.

이중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D램, 낸드플래시, 평면TV, OLED 등 5개 품목에서 정상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에서는 21.6% 점유율로 화웨이(17.6%), 애플(13.9%)를 따돌렸다. D램에서는 삼성전자(42.7%)와 SK하이닉스(28.9%)가 71.6%의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삼성은 낸드플래시에서도 35.9%로 경쟁사들을 압도했다.

이밖에 평면TV와 OLED에서는 삼성과 LG가 나란히 1,2위를 독식했다. 평면TV에선 삼성전자 18.7%, LG전자 15.2%를 기록했고, OLED패널에서도 삼성전자(73.5%), LG디스플레이(15.9%) 순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액정패널(LCD)에서 2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9.3%로 5위였다.

이밖에 조선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1위(16.7%)를 차지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9.8%)이 중국 CSSC를 제치고 2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 밀려나는 日..."韓中보다 둔하다"

일본은 올해 중국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한국과 공동 3위가 됐다. 전년 대비 1위 품목이 4개나 사라지면서다.

일본은 CMOS 이미지센서(소니), 전기이륜차(혼다)에서 각각 53.5%, 36.6%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고, LCD 편광판은 스미토모화학이 24.3%로 경쟁사들을 앞서갔다. 디지털카메라는 캐논, 소니, 니콘, 후지 필름, 파나소닉이 1~5위를 싹쓸이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CMOS센서와 편광판을 제외하고 일본이 1위를 차지한 5개 품목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리튬이온전지용 절연체 시장에서 중국 상하이에너지에 1위를 뺏겼다. 테슬라 등 전기차 호조세로 절연체의 지난해 출하량이 21%나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본은 발전소용 대형터빈은 미국의 GE, 가상현실(VR) 헤드셋도 미 페이스북에 밀렸다.

중소형 액정패널에서는 2018년까지 4년 연속 세계 선두를 유지하던 재팬디스플레이(JDI)가 중국 BOE에게 밀려나 2위가 됐다. 애플이 OLED패널 채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JDI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국가의 지원도 받고, 성장 유망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은 움직임이 둔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치,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중국은 휴대통신기지국, CCTV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313542829101>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8. 세계가 놀란 ‘환자 모니터링 무선 센서’... 한국인이 만들었다

센서 기술로 주목받는 기업 ‘사이벨’



1. 사이벨이 개발한 건강 모니터링용 센서. 사이벨·노스웨스턴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젊은 한국 공학자들이 주축인 의료기술 스타트업 ‘사이벨’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작고 부드러운 무선 센서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내세웠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한국인 공학자와 미국인 지도교수, 의사가 주도해 설립한 ‘사이벨’은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 아시아법인 ‘사이벨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이벨 공동창업자이자 사이벨 인터내셔널 대표인 정하욱 대표는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사이벨의 센서 기술은 선이 줄줄 달린 병원 장비를 가장 직관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줄 대안”이라며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인의 노고를 덜어주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국내 의료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생아 검진은 물론 코로나19 감시에도 활용… 과학계 극찬



2. 센서를 신생아에 착용시킨 모습. 가슴과 발에 각각 센서를 부착해 체온과 심장박동, 혈압 등을 측정한다. 측정 데이터는 무선으로 전송돼 거추장스러운 선이 필요 없다. 저소득 국가의 영아 사망률을 낮출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벨·노스웨스턴대 제공

사이벨은 2018년 미국에서 설립된 대학 스핀오프 기업이다. 노스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 대표가 지도교수 존 로저스 교수와 이종윤 연구원, 피부과 전문의 스티브 쉬 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업했다. 이들은 실리콘 소재의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패치를 이용해 체온과 심장박동수, 호흡수,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등 핵심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선 센서를 개발해 2019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발표 당시 순수과학과 공학의 발견을 주로 다루는 국제학술지에 응용기술이 게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함께 큰 화제가 됐다. 사이언스는 당시 신생아 전문가의 별도 기고까지 실으며 “의료 모니터링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지난달엔 네이처가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공동으로 신설한 ‘스핀오프상’의 첫째 수상기업 4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이벨이 개발한 무선 센서는 광센서와 전극,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안테나, 두께 0.005mm의 구리 도선 등을 집적해 만든 패치로 어

큰 손가락 두 마디 크기다. 가슴과 발바닥에 각각 붙여 데이터를 수집한 뒤 거추장스러운 전선 없이 무선으로 외부 모니터링 장비에 전송한다. 결과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다. 사이벨의 무선 센서는 가장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존재인 조기 출산 신생아 점진부터 수면 장애 모니터링, 코로나19 감시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고 비싼 의료 장비 없이 간단한 센서와 스마트폰, 노트북만 있으면 환자의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로저스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60달러(약 7만2000원) 수준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용을 600분의 1인 0.1달러(약 12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미세한 홈이 있는 특수 구조를 채택해 탈부착이 편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종원 사이벨 인터내셔널 이사는 “현재 발과 가슴에 부착하는 센서 2종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라며 “센서를 뒷받침할 무선 전송기술 등 시스템을 보완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 이끌 것”



3. 미국 노스웨스턴대 출신 한국인 공학자가 미국에 설립한 의료기기 기업 ‘사이벨’이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등의 투자를 받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사이벨 공동창업자인 이종윤 사이벨 인터내셔널 이사와 정하욱 대표, 미국 노스웨스턴대 존 로저스 교수와 앤서니 벅크스 연구원. 사이벨·노스웨스턴대 제공

과학계의 극찬을 받은 사이벨은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과 독일 드레가 사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다. 복잡하고 비싼 장비가 없어도 중저소득 국가의 신생아 및 영아사망률을 낮추는 인도적인 기술 대안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사이벨은 잠비아와 가나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의 임산부와 신생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증상을 감시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사이벨 공동창업자인 이종윤 사이벨 인터내셔널 이사는 “가장 연약하고 섬세한 존재인 신생아 중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 환자나 임산부 모니터링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호흡이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증세를 보이면 이를 알리는 방식이다. 현재 노스웨스턴대 병원과 함께 실제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 대표는 “사이벨의 목표는 고도로 선진화된 무선센서 기술을 통해 값비싼 병원 장비 없이도 모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술을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3/102611467/1>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9. 셀프살균 기능 탑재 투명 마스크 나온다...美 FDA 승인 (7.5)



▲ 셀프살균 기능 탑재 투명 마스크 나온다...美 FDA 승인



현재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에는 200만 달러(약 24억원)가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있는 제품이 있다. 이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의료기기 업체 레드클리프 메디컬이 개발한 '리프'라는 이름의 투명 마스크이다.



지금까지 여러 외신이 주목한 이 제품은 공기 질과 사용자의 신진대사를 센서로 측정해 자동으로 환기를 해주는 세계 최초의 능동형 마스크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까지 받았다.

인디고고에 따르면, 리프 마스크는 헤파(HEPA)와 유브이(UV) 그리고 프로(PRO)라는 세 가지 제품 라인이 있다.

세 제품 모두 마스크 본체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실리콘 등으로 돼 있고 자체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있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얼굴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필터를 턱 아래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입이 잘 보이게 해 얼굴 표정과 입술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중 첫 번째 라인인 헤파 제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N99 등급의 헤파 필터를 탑재했다. 이는 0.33 μ m의 미세입자를 99.99997% 차단할 수 있다.

그다음 라인인 유브이 제품은 헤파 필터에 자외선 조명(UV-C)에 의한 셀프 살균 기능이 있어 세균과 냄새를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탄소 필터를 추가한 것이다. 덕분에 이 제품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세균 번식과 불쾌감을 억제할 수 있다. 필터는 최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끝으로 프로 라인 제품은 유브이 라인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기 질과 사용자의 신진대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해 자동으로 환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 라인은 필터 부분의 색을 변경할 수 있는 컬러 키트도 포함하고 있다.

가격은 헤파 라인이 49달러, 유브이 라인 89달러, 프로 라인 199달러부터 시작하며, 배송은 모금이 끝난 뒤부터 제품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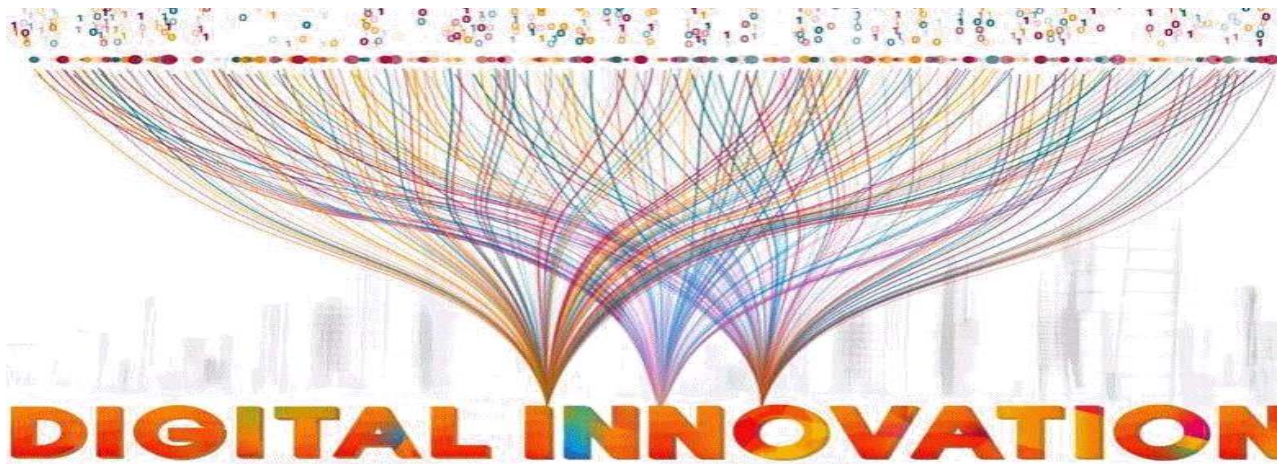
Leaf HEPA	Leaf UV	Leaf PRO
Flexible & Transparent Mask		
MERV20+, N99+ HEPA filter	MERV20+, N99+ HEPA filter & Carbon filter	
99.997% filtration of 0.3 Micron		
-	Active UV-C pathogen sterilization	
Permanent Anti-Fog, Self Cleaning coating on the inner side	Permanent Anti Fog, Self Cleaning on the inner side and Anti-Microbial and Hydrophobic coating on the inner side	
		Active iOS/ android app controller ventilation
		Active Air Quality sensing, Dust sensing
		Metabolism sensing with equivalent CO2
		Includes Color Kit
\$49 USD	\$89 USD	\$199 USD
-	Includes standard N95 exhaust filters (pack of 2 pairs)	Includes standard N95 exhaust filters (pack of 10 pairs)
Choice of Ear Strap or Head Strap		Includes both Ear Strap and Head Strap
Includes Carry case		

출처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5601005&wlog_tag3=naver#csidxf82d706c6a7401492d59fe71426e30b

2장 신기술·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10. AI·데이터 광범위 활용...신산업 창출·고부가가치화 돕는다 (8.21)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주요 추진과제




적시·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	데이터·AI 활용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문제해결형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디지털 혁신 선도 사례 창출 •디지털 기반 사업화 지원 •산업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제도 정비 •디지털 핵심 부품·장비 개발 •산업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 통상전략 추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주요 사례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개인 차량 운행 데이터  •산업 부품 고장·검사 데이터  •공공 환경데이터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전기차 부품 데이터 기반 성능개선 (배터리·모터·인버터·센서·제동 장치 등) 신제품 개발 •서비스 자동차 부품 고장 예지보전, 무인관리·카쉐어링, 보험·금융상품 개발

사물인터넷(IoT) 가전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개인 사용자 앱 활용 데이터  •산업 가전 구동·에러 데이터  •공공 환경데이터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사용자 제품 사용패턴, 라이프 스타일 등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사용자 행동패턴, AS 이력, 기기에러 등을 분석해 제품상태 및 고장 사전감지 통해 정비 서비스 제공

글로벌 기업 사례

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진하나에 센서 250개 장착, 항공기 이착륙시 수집한 데이터 분석, 엔진고장 여부·교체시기 등을 예측해 선제적 유지보수 지원 ➡ 엔진장애 검출정확도 10% 향상, 결항건수 1000건 이상 감소, 고객사 이익 1억7500만달러 상회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부 지역 700MW 규모 풍력 발전 시설 데이터와 일기예보 데이터를 학습, 36시간 전 바람과 생산 가능한 전력량 사전예측 ➡ 최적 전력공급시간, 최적 전송량 등과 연계해 생산전력가치 20% 향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정부가 20일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4차 산업혁명, 비대면(언택트) 확산이 맞물리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노키아, 코닥처럼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리 산업계 체질을 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산업 데이터 효율 높인다

산업 데이터는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다. 특정 데이터로 구조화되지 않은 이미지, 수치, 텍스트,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이를 정형화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에서 업종별 데이터 특성과 협업 유형을 고려한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업계 수요를 감안해 전환 과제를 도출한 후 데이터를 확보해 수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산업계가 요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소재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에 총 30개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입부는 “업종별 데이터 특성과 협업 유형을 고려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면서 “전략 분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조기 창출해 다른 산업 및 분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산업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를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표준·특허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을 독려한다.

표준 부문에서는 신산업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하는 한편 참조표준센터를 확대한다. 특허 부문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데 힘을 쏟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7개 기관은 개방형 시험 인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열·가스 등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플랫폼이 마련된다.

◇밸류체인 고도화 핵심 ‘데이터·AI’

정부는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보한 산업 DB와 AI를 활용해 지능형 디자인·설계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 연구·개발 모든 단계에 데이터·AI 기반 문제를 정의한 후 데이터를 축적, 결과 데이터를 환류하는 ‘지능화 방법론’을 적용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전자, 조선해양, 에너지효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유망한 제조 기반 전략분야를 발굴하는데도 팔을 걷는다. 향후 신규과제 20% 이상을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R&D)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등 전략산업의 생산공정을 혁신하는 데도 데이터와 AI를 적용한다.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4대 소재·부품의 개발 환경을 개선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재정보은행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한편 AI 맞춤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맞춤형 솔루션 개발·제공
표준·특허 활용 지식재산 확보 지원

밸류체인 고도화

생산공정 혁신에 빅데이터·AI 활용
자율주행·로봇 등 통합 R&D 추진

혁신 인프라 확보

데이터 보호·지원 강화 등 법에 명시
전문인력 양성·통상협정 체결 속도

형 데이터를 확보해 등 소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데이터와 AI로 △자율 제어 △고객 맞춤형 △제조기반 서비스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노린다. 상품 정보 판매망 등 유통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유통 서비스와 개발 및 지능형 물류 공급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 기반 사업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파 로드맵 등을 마련,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4000억원 규모 산업 지능화 펀드를 조성해 선도 기업에 60%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유망 프로젝트에 사업화 패키지 지원한다. 국가기술은행(NTB) 등 기존 기술거래·평가 시스템을 데이터·AI 기반 지능형 플랫폼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혁신 비전 확산에도 나선다. ‘산업 지능화 포럼’, ‘얼라이언스’ 등을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지능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디지털 경영전략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최고경영자(CEO)·임직원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보급도 추진한다.

◇산업 디지털 혁신 위한 인프라 확보 나서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인프라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전문 인력, 국제 협력 이 지속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는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민간의 산업 지능화 사업 패키지 지원, 실태조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 유형별 비정형화된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는 한편 상호운용성 인증을 추진한다. 산업 전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한다. 데이터·AI 활용에 필수인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센서, 임베디드 AI, 융합로봇 등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데도 주력한다.

산업 디지털 융합 부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업종 전문성을 보유한 재직자 중심으로 현장 디지털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영 전략을 선도할 변화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개 대학에서 진행된 석·박사급 산업 AI 전문인력 양성을 올해 4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수집·활용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DPA)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DPA를 우선 추진, 중견국 중심 디지털 블록 형성을 노린다. 향후 국가 간 데이터 교류·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신산업 국가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 모태펀드 추경 등 3,655억원 출자사업 공고

- ☐ 모태펀드 3,655억원 출자, 8,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하반기 벤처투자 실적 반등에 힘을 보탬 예정
- ☐ 멘토기업과 함께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지방 소재 투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 새롭게 시도되는 공유주택 펀드와 지식재산(IP)직접투자펀드 등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8월 14일(금) 모태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655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출자규모 : 중기부 2,860억원 (3차추경 2,000억원 포함), 복지부 180억원 국토부 200억원 특허청 415억원

< 출자분야별 출자금액 및 조성목표 (단위 : 억원) >

부 처	출자분야		모태출자	조성목표
중기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비대면	1,685	4,400
		그린뉴딜	500	700
	규제자유특구		250	420
	소재부품장비		275	460
	소 계		2,710	6,000 내외
복지부·중기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바이오	330	1,000
국토부	공유주택		200	250
특허청	IP직접투자		240	410
	특허기술사업화		175	350
	소 계		415	760
합 계			3,655	8,000 내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6,100억원 조성 (5,800억원 기 조성중)

한국판 뉴딜을 상징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조성에 참여하고, 정부가 투자 손실 리스크를 먼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 펀드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 (단, 모태 출자액 10% 한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7.20)을 통해 멘토기업 10개사*가 1,300억원 규모 출자를 확정했으며, 추가로 출범식 이후 멘토기업으로서 출자를 희망하는 규모가 600억원에 달하는 등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 멘토기업의 참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출자 확정 : 네이버, 신세계 그룹, 크래프톤, 넷마블, L&P코스메틱, 무신사, 베스핀글로벌 컨소시엄, 노란우산공제,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정부가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규모를 모집하여 1조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미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에 투자하기로 한 5,800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 중이며, 이번에는 6,100억원 펀드를 선정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비대면 펀드 4,400억원, 그린뉴딜펀드 700억원, 바이오펀드 1,000억원이다. 특히, 바이오펀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지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조성하게 된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는 고위험 투자처로 알려져 있지만, 모태펀드가 투자한 펀드는 평균 연수익률이 6.4%*(청산 완료 펀드 기준)에 이르는 고수익을 거둬왔다. 이는 우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면서,

* 모태 자펀드 청산실적('05~'20) : 출자 1.28조원 → 회수 1.63조원 (+0.35조원), 연수익률 6.4%

“벤처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멘토기업 등 시중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업계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펀드 : 420억원 조성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 등 비수도권 지방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도 42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와 지역 혁신주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선정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방의 투자역량 확충 차원에서 지방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유주택펀드 등 : 1,470억원 조성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트렌드 변화에 맞춰 민간 공유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유주택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공유주택을 공급·운영하거나 공유주택 관련 공유서비스(세탁대행·공유주차장 등)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이다.

*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 주방·세탁실·커뮤니티 등 공용시설 공유형태의 주택

특허청은 지난 7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지식재산(IP) 수익화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IP직접투자펀드」를 410억원 규모로, 특허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특허기술사업화펀드」를 3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상반기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소재부품장비펀드」도 46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된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 및 전망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기록을 지속 갱신하며 성장해왔으나, '2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약 17.3% 감소(△3,448억원)한 1조6,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설명회 취소, 투자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 '16~'20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16	'17	'18	'19	'20
연간 투자실적	21,503	23,803	34,249	42,777	-
상반기 실적	9,750	10,016	16,327	19,943	16,495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감	-	+266	+6,311	+3,616	△3,448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	-	+2.7	+63.0	+22.1	△17.3

다만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작년 12월말보다 2,4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투자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희망적인 결과이다.

*** '20.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691개사 고용 : ('19.12) 19,483명 → ('20.6) 21,953명**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는 “하반기는 벤처투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다. 4월 발표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하반기에 본격 적용되고, 8월 12일부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모태펀드가 상반기 선정한 2조5,000원 규모 벤처펀드도 하반기에 결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제2벤처붐이 단단히 자리잡고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반등의 모멘텀이 되겠다”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 그린뉴딜 선도할 그린벤처, 경쟁률 14.5:1 기록

- 그린벤처 모집('20년, 20개사)에 중소벤처기업 290개사 신청
 - 서면평가, 토론식 심층평가 거쳐 최종 선정 시 **기술개발(R&D)과 사업화자금 최대 3년, 30억원 내외 지원**
- 선정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 제시할 **그린벤처 국민평가단 8월 19일부터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10일 접수 마감한 2020년도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중소벤처기업 290개가 접수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그린벤처 지원을 위해 '20년 3차 추경예산으로 20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전용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에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예정이다. : [\[참고1\]](#)

지난 8월 1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그린벤처 프로그램에는 총 290개의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 기술개발(R&D) 사업의 평균경쟁률('19년기준 4.4:1)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분야별로는 **환경보호·보전 23.8%(69개)**, **그린 정보통신기술(IT) 23.1%(67개)**, **신재생에너지 10.7%(31개)** 순으로 지원이 많았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기술분야별) >

구분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수송기계
기업 수 (개)	31	19	28	67	28
비율 (%)	10.7	6.6	9.7	23.1	9.7
합계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 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290	9	19	6	14	69
100	3.1	6.6	2.1	4.8	23.8

업력별로는 창업 3년 미만 17.9%(52개), 3년 이상 7년 미만 30.0%(87개)로, 신청기업의 절반 정도가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었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업력별) >

구분	합계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기업 수 (개)	290	52	87	82	22	27	20
비율 (%)	100	17.9	30.0	28.3	7.6	9.3	6.9

기업규모별(매출액기준)로는 20억원 미만 49.7%(144개), 20억 이상 100억 미만 31%(90개) 순이었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매출액 규모별) >

구분	총합계	20억 미만	2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기업 수 (개)	290	144	90	39	10	6	1
비율 (%)	100	49.7	31.0	13.4	3.4	2.1	0.3

선정평가는 신청시 기업들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통과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계획을 보완해 토론식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참고2\)](#)

토론식 심층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민평가단도 참여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벤처 국민평가단은 8월 19일부터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윤세명 기술개발과장은 “이번에 선정되는 그린벤처 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으로 긴급 추진하는 만큼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중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중기부는 녹색기술 대상 '그린벤처', 환경부는 5대 선도 녹색분야 대상 '녹색혁신기업'을 지원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구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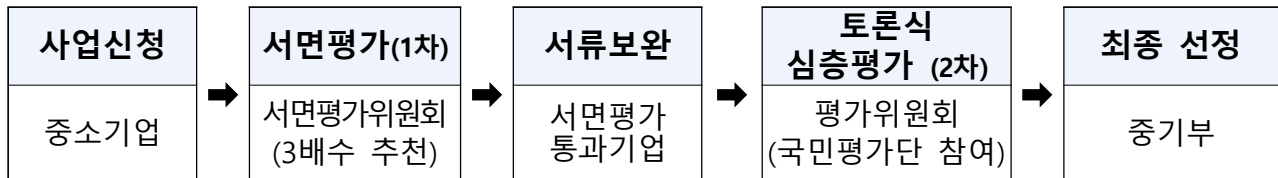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참고 2 그린벤처 평가 절차

- **(추진방향)**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기술성 및 사업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그린벤처로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적합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해당 기업 과제가 그린뉴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평가

- ① **(기술역량)** 핵심기술, 기술개발 가능성, R&D역량, R&D인프라 등 R&D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평가**
- ② **(성장가능성)** 시장성장성, 마케팅 전략, 그린 분야 혁신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
- ③ **(정책부합성)** 신청기업의 녹색기술 해당여부와 그린벤처 취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 평가

- **(선정절차)**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①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3배수 추천)
- ② **(토론식 심층평가)** 성장전략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R&D·사업화 사업계획서*를 토론식 심층평가로 평가하여 그린벤처 최종 선정
 - * 서면평가 통과기업은 서류보완 기간 동안 해당 계획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 그린벤처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의견을 제출
- ③ **(최종선정)** 2단계 평가결과(국민평가단 포함)를 반영해 최종 선정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시동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교식 개최

- 글로벌 기업 및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장 등이 참석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 의지 표명
- 글로벌 기업 (NVIDIA, MS, AWS, INTEL), 글로벌 창업기획자(500Startups, Plug&Play, SOSV, Startupbootcamp)등이 함께 60개 인공지능(AI) 창업팀 육성 시작

최초로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국내에 상주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AI)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개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9일(수), 강남구 소재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강남 본교 (스파크플러스 강남 2호점 20층)에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 일 시 : '20.8.19(수), 14:30~15:30
- 장 소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강남 본교(스파크플러스 강남 2호점 20층)
- 참석자 : (현 장) 중기부 장관, 글로벌 기업 및 엑셀러레이터 한국대표,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장, 중진공 이사장, 창진원 원장, 입교생 10여명 등
(온라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60여명
- 주요내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소개, 글로벌 기업·축하영상
입교생 다짐 및 건의, 세레머니 등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세계 10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국내 기업이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해 올해 신설된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이다.

*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가 '20.3월 선정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NVIDIA, MS, AWS, INTEL) 4개사와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500Startups, Plug&Play, SOSV, Startupbootcamp) 4개사가 교육과 보육에 참여하기로 해 개교 전부터 창업팀의 큰 관심을 모았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16일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6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① 교육은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내부 교육과정 활용 등 기업별 특색을 살린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4개 글로벌 기업이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나눠 교육과정을 순차 운영한다.

* 교육과정 운영 시점 : MS (8월), AWS (9월), INTEL (10월), NVIDIA (11월)

글로벌 빅데이터 솔루션 플랫폼인 캐글(Kaggle)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해 입교팀의 실전 사업화 역량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②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보육 전문가 각 2인이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창업팀을 밀착 보육한다. 창업팀은 여러 글로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경험하며, 최적의 해외진출 국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진출 전략도 세워나가게 된다.

③ 국제기구 등을 통한 해외 스타트업과의 교류 등을 통해 창업팀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입교팀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사업장 공간도 제공한다.

개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한국지사 대표, 카이스트 인공지능(AI) 대학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입교팀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NVIDIA 대표 유용준, MS 대표 이지은, AWS 대표 윤정원, INTEL 대표 권명숙
500Startups 대표 김경민, Plug&Play 대표 송명수, 카이스트 AI 대학원장 정송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본사에서도 대표 등이 축전을 보내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비대면 분야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을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K-유니콘 프로젝트,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공지능(AI) 등 비대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21년 2월까지 약 8개월 간 운영되며, 구로 G스퀘어 완공이 예상되는 내년도 초부터는 구로로 이전해 계속 운영하면서 인근에 집적해 있는 1만 여개 중소·벤처기업과 교류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 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교식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20. 8. 19(수), 14:30~15:30 / 스파크플러스 강남2호 20층

□ 참석자 : 76명 (현장 16명 + 비대면 60명)

- (현장) 장관, 글로벌기업 및 액셀러레이터 한국지사 대표 6인, KAIST AI대학원장, 중진공 이사장, 창진원 원장, 입교생 대표 5인

* 한국지사 대표 6인 : (글로벌 기업) NVIDIA, MS, INTEL, AWS
(액셀러레이터) 500Startups, Plug&Play

- (비대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60인

□ 핵심메시지

**국내에서 경험하는 글로벌 수준의 AI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AI 유니콘으로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세부 일정

시간		일정	비고
14:30~14:38	8'	교육장 투어 및 착석, 내빈소개	사회자 진행
14:38~14:40	2'	오프닝 영상 시청	
14:40~14:50	10'	모두말씀	중기부 장관
14:50~14:54	4'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소개	중진공 이사장 & 창진원 원장
14:54~14:58	4'	글로벌 기업·액셀러레이터 본사대표(또는 임원) 축하 영상	글로벌기업 본사 임원 4명,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대표 4명
14:58~15:25	27'	입교생 다짐 및 건의 1) 입교생 다짐 및 건의 → 참석 내빈 화답, 답변 2) 중기부 장관 마무리 말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 장관, 중진공이사장, 창진원장, 글로벌 기업 및 액셀러레이터 한국대표, KAIST AI대학원장 ■ 온라인 : 창업팀
15:25~15:30	5'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전체 참석자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4. 11번가·지마켓·아마존 등 연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 국내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간 연계 통한 원스톱 수출지원
신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목) 서울 스퀘어 11번가 행사장에서 ‘**국내외 플랫폼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중기부가 추진해 온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국내에서는 11번가와 지마켓, 해외에서는 미국의 아마존 글로벌셀링·이베이, 동남아의 쇼피·라자다·큐텐, 일본의 큐텐재팬, 대만의 라인, 그리고 전자무역 전문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까지 총 11개 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제품으로 글로벌 판매가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을 초청해 사업설명 및 질문과 답변(Q&A) 등으로 진행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상품과 수출유망상품 등은 글로벌 온라인몰의 개별적인 입점과 번역,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상품 등록과 판매 연계가 가능해진다.

대형 온라인몰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KTNET의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에서는 국내 인기·유망상품 풀(Pool) 구축과 마케팅 기획을, 국내 몰은 국내 인기·유망상품의 상세 설명에 대한 번역과 제품 취합을, 이베이 등 글로벌 판매자들은 현지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K-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아마존글로벌셀링은 기업대상 마케팅 교육에 특화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e-커머스’ 시장을 적극 공략할 때”라며, “향후 온라인·비대면을 통한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비대면을 통한 수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업과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협약대상 플랫폼 및 한국법인(협약체결자) 현황

구분	국가	플랫폼명	플랫폼 개요	한국법인		비고
				업체명	협약자	
국내 * 가나다순		 < 11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Top3 오픈마켓 플랫폼 (11번가, G마켓, 옥션) - 쇼핑물에 검색기능을 강화한 '이커머스 포털'로 차별화 전략 	11번가(주)	이상호 대표이사	-
		 < 지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위 오픈마켓 플랫폼 - 국내 유일 자체 전담 배송 서비스 구축 	이베이코리아(유)	변광운 대표이사	-
		 < KTN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에 의거해 1991년 한국무역협회의 100% 출자로 설립 - 10만 2천여 고객과 614종에 달하는 수출입 문서를 전자화(연평균 3억 8천만건 처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김용환 대표이사	-
글로벌 * abc순	미국	 < 아마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전세계 3억명 이상의 고객과 1억 5천만명 이상의 셀러 보유 (16개국 진출) - 독자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FBA) 	한국아마존글로벌셀링(유)	이성한 대표이사	-
	미국	 < 이베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양대 B2C 플랫폼 (아마존, 이베이) - 2억명 규모의 셀러와 10억여개 거래품목이 거래중인 대형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유)	변광운 대표이사	-
	동남아	 < 라자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독일기업 '로켓인터넷'에서 설립 - 동남아 6개국 진출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2016년 Alibaba 그룹이 인수 - COD(후불현금결제) 시스템으로 운영 	알리바바코리아(유)	정형권 대표이사	-
	대만	 < 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 LINE의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 라인 페이, 라인 포인트 연계 등 기존 고객 DB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 가능 	(주)라인플러스	강현빈 이사	(주)라인 대만·홍콩 대표이사 (온라인)
	동남아	 < 쿠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최대 오픈마켓 (창업자 : 한국인 구영배 대표) - 글로벌 및 아시아 5개국 등 6개 사이트 운영 	지오시스(유)	정용환 대표이사	김효종 전무 (대참)
	일본	 < 쿠팡재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4대 이커머스 플랫폼 - '18.2월 ebay에서 인수 - 한류상품(K뷰티 등) 판매비중이 높음 	이베이재팬(유)	전항일 대표이사	일본 ebay Japan 대표이사 (온라인)
	동남아	 < 쇼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그룹에서 2015년에 설립한 e-커머스 신생 플랫폼 - 창립 4년만에 동남아 6개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대만 진출 	(유)쇼피코리아컴퍼니	팽지민 대표이사	Shopee 총 대표이사 (온라인)

참고 2 협약식 개요 및 주요내용

□ 행사개요

- (행사명) 국내외 플랫폼간 연계사업 (Platform to Platform) 추진 협약체결식
- (일시/장소) 8.13(목) 14:30~15:40(70분), 11번가 행사장(서울스퀘어 16층)
 - * 1부 : 협약체결식 및 사업프로세스 시연 (40분) / 2부 : 중소기업-플랫폼간 간담회 (30분)
- (형식) 국내-해외 온·오프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
- (참석자) 중진공 이사장, 중기부 국장, 플랫폼사 대표(9명) 등 45명 내외
 - (국내플랫폼) 11번가, 지마켓,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가나다순>
 - (글로벌플랫폼) amazon(글로벌), ebay(글로벌), Lazada(동남아), Line(대만), Qoo10(동남아), Qoo10 JP(일본), Shopee(동남아) <abc 순>
 - *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글로벌 플랫폼사 전원 참석

□ 세부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Part I	14:30 ~ (3')	오프닝 영상 * 사업참여 플랫폼 소개 등	
	14:33 ~ (2')	개회	사회자(국제 아나운서)
	14:35 ~ (5')	인사말씀	중진공 이사장
	14:40 ~ (15')	협약체결식	
		14:40~(5') 인사말씀	중기부, 중진공, 플랫폼사 대표
		14:45~(5') 해외 외빈 화상 연결 및 인사말씀	ebay JP, Line, Shopee
Part II	14:50 ~ (5')	14:50~(5') 협약체결 (태블릿PC, LED 시연) * 협약체결 이후 기념촬영	중진공, 중기부, 국내외 플랫폼 전원
		사업 시연회 및 기념촬영 * 시연회 : 중진공 이사장 주도(국내외플랫폼 MD 협조) * 기념촬영	중진공 이사장, 국내외플랫폼 MD
Part II	15:10 ~ 15:40 (30')	국내셀러를 위한 사업설명 간담회 * 11번가 / 지마켓 5개사씩 2개실에서 별도 진행	11번가, 지마켓 셀러 - 국내외플랫폼

※ Shopee 대표 화상 연결시(음영부분) 한국어·영어 동시 진행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글로벌 플랫폼이 선정한 국내 인기상품에 대해 상품페이지 번역, 글로벌 플랫폼별 자체 계정 내 상품등록 및 프로모션 연계
- 중소기업은 별도 판매계정 개설 없이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상품을 신속하게 판매

< 플랫폼 연계사업 전·후 비교 >

단계별 편익	Before	After
입점판매 효율성	셀러가 글로벌 플랫폼마다 입점절차 진행 후 상품페이지 별도 제작, 번역, 디자인 및 리스팅 별도 추진	한번의 내수 플랫폼 상품등록만으로 다수의 글로벌플랫폼에 자동 연계(상품페이지 제작, 번역, 리스팅 대행)
마케팅 효과성	개별 (소액) 마케팅 진행에 따른 낮은 광고비 대비 매출 및 시행착오 애로 등	플랫폼사의 마케팅 역량과 한국소비자 반응도를 기반으로 한 공동마케팅으로 노출도 향상 등 시너지 효과
배송 편의성	EMS 등을 통해 셀러가 각각 별도로 개별 해외배송 절차 필요	주문상품에 대해 셀러가 국내배송(예: G마켓 공동물류창고)만 하면, 내수 플랫폼사에서 일괄 해외배송
수출신고 자동화	개별 수출신고에 따른 공수, 비용(인건비,대행료) 등 애로로 대부분 누락(건당 200만원 미만 수출신고 면제)	KTNET*을 활용, 내수플랫폼 명의로 수출신고 후 내수셀러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수출기업화)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무역협회 자회사로 전자무역문서 처리업무 수행

□ (기대효과) 한 번의 국내플랫폼 상품등록으로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신속한 상품연계·등록 및 판매가 가능

- 인기 '내수상품'의 자동적인 '수출상품'화를 통해 수출기업 수 증대(KTNET 협업*) 및 제품판매·수출확대 등 도모

* KTNET의 전자상거래무역지원포털(cbt.utradehub.or.kr) 활용하여 해외판매액 수출 신고, 참여기업 구매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기 입점기업의 온라인 수출기회 제공·판매확대(국내 플랫폼) 및 한국 내 인기 기반의 유망셀러 확보(글로벌 플랫폼)로 win-win 효과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5. 중소기업 기술전략 품목 추천에 국민 참여 열기 가득

- ☐ '21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국민 기술 수요조사'와 '온라인 토의'에 1,326건 제안
- ☐ 국민 수요형 기술개발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정에 국민의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국민기술 수요조사](#)'와 '[온라인 토의\(이하 재밍\)](#)'에 [1,326건의 국민 제안과 7,000여건의 토의](#)가 이뤄지는 등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집중육성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개발할 수 있게 [연간 1,5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지정 시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지원 효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방식의 '온라인 설문'과 '재밍'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이 511건의 기술을 제안했고, '재밍'에는 625명*이 참여해 815건의 기술 제안과 7,370건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 일반인 237명, 기업인 196명, 학교 109명, 연구원 83명

수요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보안기술, 자율주행 로봇 등 산업 현장에 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많이 제안](#)했다.

일반 국민들은 [치매·독거 노인을 위한 지원기술, 지능형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주로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질병 진단 플랫폼 기술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생명건강 관리(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국민 기술수요 사례>

- (치매·독거노인 지원)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비 접촉식 센서, 진료기록,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 빅데이터를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원시설과 연계되는 인공지능 기술
- (디지털 범죄 예방) 인터넷 범죄의 예방을 위해 특정인의 이상 행동 감지, 반복된 위협 행동 분석 등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알려주는 기술
- (원격진료) 치과 진료 분야 중 골격 교정은 대면치료로 이루어지기에 '개인맞춤형 구강 내 장치를 통한 악정형 치료(골격교정)' 기술을 통해 원격진료

중기부는 국민들의 적극 참여로 진행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을 선정하고 기술성, 시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21~'23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희수 기술정책과장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기술수요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반영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라며,

“올해 시범 도입한 국민 참여방식의 정책 수립에 일반 국민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정책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분야의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6. 소재·부품·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

기술개발 과제 31개 선정

- ☐ '기술이전 보증 - 기술개발자금 지원 - 양산자금 보증' 연계지원으로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 지원(2년간 최대 8억원)
- ☐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연계, 토론식 대면평가, 국민평가단 평가 등 혁신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 높은 과제 선정

* '20년 1차(상반기) 31개 과제 모집에 70개 기업 신청 (경쟁률 2.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학·연구소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1차로 31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R&D** : 소재·부품·장비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년간 최대 8억원)

** **테크브릿지 플랫폼** :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대학·연구소 보유기술(38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 : [\(참고1\)](#)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최대 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될 대학·연구소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이전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함께 하게 된다. : [\(참고2\)](#)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15개), 화학(7개), 기계소재(7개) 순이며, 공동개발기관으로는 12개 대학과 19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분야별 과제선정 현황>

단위 : 개

계	전기전자		화학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31	15		7		7		1		1	
공동개발 기관	대학	연구소	대학	연구소	대학	연구소	대학	연구소	대학	연구소
	6	9	3	4	2	5	1	-	-	1

선정 기업 중 지투파워주는 특허 67건 등 전력 개폐장치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분야,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 등에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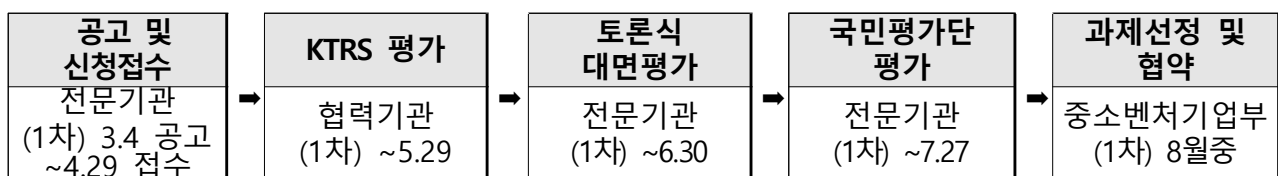
파워반도체 핵심부품 중 하나인 ‘클립(Clip)’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엠제코(주)는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 파워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로봇, 스마트 공장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원 시급성이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차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KTRS)* 연계평가, 토론식 대면평가**와 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사업화 역량이 높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시스템(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은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등과 관련된 33개 소항목 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전검토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심층 토론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 기술보증기금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해당 분야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일반 국민 등 78명이 참여했다. : (참고3)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산권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 (IP인수 보증) 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기술개발(R&D) 완료 후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국산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리지(Tech-Bridge) 플랫폼 개요

□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 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38만건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 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일배치로 업데이트

【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



- 참여기관과 온라인에서 정보교환과 협의가 가능한 대화형 화면 제공

참고 2

‘20년도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R&D)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Tech-Bridge(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

□ 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 지원 규모 : 130억원(50개 과제 내외)

* 1차(상반기) 31개/ 1차(하반기) 19개

□ 지원 조건

지원기간	사업비 구성		지원방식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부담금)		
최대 2년 이내	80% 이내 (연간4억, 최대 8억원)	20% 이상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지정공모	기술이전기관 과제 의무참여

□ 지원 내용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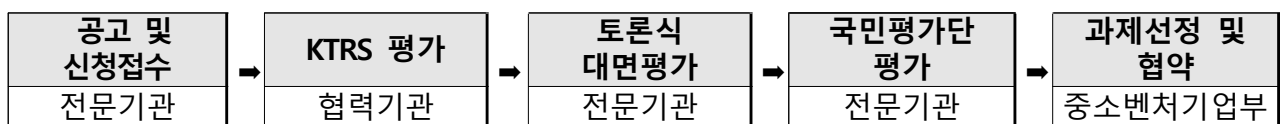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연계지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완료 후 양산에 소용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

□ 지원 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관 : 기술보증기금

참고 3 중기부 기술개발(R&D) 국민평가단 운영 현황

□ 목적

- 중기부 기술개발(R&D)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과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평가단 모집·운영 ('20년 신규)

□ 구성 현황 : 총 2,566명 ('20. 8월 현재)

업계	연구소	대학	기타*
1,615	84	507	360

* 공공기관, 협·단체(비영리단체 포함), 시니어 과학자 등

□ 운영 현황

- (신청자격) 정부 기술개발(R&D)에 식견과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 '20.2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해 상시 모집 중
- (활동내용) 기술개발(R&D) 최종 선정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 (적용대상)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중요도가 높은 5개 기술개발(R&D) 사업*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성과를 점검해 확대
* (5개 사업) [Tech-bridge활용](#), [AI](#), [빅데이터](#), [미세먼지 저감](#), [기술규제해결형](#)
- (활용현황) SMTECH내에서 위촉된 국민평가단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의사를 확인 후 희망자를 위촉 후 과제선정평가에 참여

< R&D 사업별 국민평가단 활용 현황 >

사업명	Tech-bridge	AI	빅데이터	미세먼지	기술규제 해결형	계
활용(명)	78	59	54	61	109	361

*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규제해결형, 인공지능(AI)는 연 2회 공고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7.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발표
- ☐ '21년까지 16만개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해 원격근무 확산
- ☐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에 판로 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년과 '21년 각각 8만개 총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대규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전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 K-Startup(www.k-startup.go.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신청 가능 비대면 서비스 분야(예): 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21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으로 2년간 총 6,400억원의 재원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플랫폼 내에서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기업간의 경쟁과 수요자의 선택권이 한층 보장되어, 향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며 속도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8.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증가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중점편성 방향 >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2조원
-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1.8조원
-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1.1조원
-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 0.3조원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금융 강화 : 10.9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본 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0) 1.8조원 → ('21 예산안) 2.2조원(+3,190억원, 17.3%)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 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①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AI·5G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목표) 1.8만개→('21목표) 2.4만개→('22목표) 3.0만개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하였다. 또한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본예산) 67억원 → ('20추경) 49억원 → ('21안) 134억원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하였다.

②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24억원, 전문기관 위탁)

특히 금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하여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IoT, 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형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형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③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하였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하였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0. 2,563→'21안. 3,995억원), 스마트센서기술개발('20. 47→'21안. 110억원),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신규 45억원), 스마트서비스솔루션(신규 60억원) 등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 글로벌중소기업육성('20. 442→'21안. 491억원), 해외인증규격('20. 72→'21안. 105억원),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신규86억원),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신규 59억원) 등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20) 1.4조원 → ('21 예산안) 1.8조원(+4,597억원, 34.0%)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하여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
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 결과('20년 상반기 기준, 2020.8월 중기부 발표) >

- 벤처기업 총고용은 66.8만명(4대그룹 수준), '19년 상반기 대비 2.7만명 고용 증가
-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3.0%)의 3배 수준

④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
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20년
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1년에도 1
조원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5
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
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을 지원한다.

아울러 **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하여 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예시) A대기업(제조업분야)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AI 개발, B선배벤처(e커머스분야)의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시해주는 AI 개발 등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백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 그린 유망 기업 선정 계획 : (‘20) 40개 → (‘21) 35개 → (‘22) 25개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여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20) 0.9조원 → (‘21 예산안) 1.1조원(+1,284억원, 13.8%)

셋째,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⑥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 안. 88억원)한다.

⑦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 → (‘21안) 1,445억원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 (‘20) 2,322억원 → (‘21 예산안) 2,703억원(+381억원, 16.4%)

넷째,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 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⑧ “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 4억원→’21안 62억원)

⑨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 * 해외규격인증 지원(107→153억원, 532→630개사)
- * 수출바우처(998→1,064억원) : 수출기업의 제품 홍보, 컨설팅 등 바우처 확대
-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359→379억원) : 온라인 전시회, 판매대행 공동물류 등 확대 지원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20) 7.8조원 → ('21 예산안) 10.9조원(+3조 929억원, 39.6%)

다섯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하였다.

⑩ 융자는 '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하였다.

< 최근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예산 추이 >

	'20년 계	본예산 (B)	추경 등	'21안 (A)	B-A	%
계	10.04조원	6.89조원	3.15조원	9.29조원	+2.4조원	34.8%
· 소진기금 융자	4.55조원	2.3조원	2.25조원 ^{1J}	3.6조원	+1.3조원	56.5%
· 중진기금 융자	5.99조원	4.59조원	1.4조원 ^{2J}	5.69조원	+1.1조원	24.0%

1J (1차 추경) 1.72조원 + (기금변경) 4,800억원 + (3차 추경) 500억원

2J (1차 추경) 4천억원 + (기금변경) 1.0조원

⑪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하였다.

- *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안) 4,500억원
-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안) 4,600억원
- *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안) 2,369억원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美 줌(Zoom) : 세계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전세계 대기업을 비롯, 미국 상위 200개 대학 중 90% 이상이 줌(Zoom) 사용, 현재 투자규모 1.5억불

참고 1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

	'19예산	'20예산 (A)	'21년 예산안 (B)	B-A	%
계*	102,664	133,640	173,493	39,853	29.8
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13,518	18,489	21,679	3,190	17.3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3,125	4,150	4,152	3	0.1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93	93	-	-
-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	-	67	134	67	100.0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75	313	734	420	134.0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17	220	204	1,233.3
- 스마트 공방	-	10	294	284	2,840.0
-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	-	24	24	순증
- 제조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R&D)	-	-	45	45	순증
- 스마트 서비스 ICT솔루션 개발(R&D)	-	-	60	60	순증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등	1,055	2,563	3,995	1,432	55.9
2.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육성	6,558	13,518	18,115	4,597	34.0
- 모태조합출자	2,400	8,000	9,000	1,000	12.5
-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정 3,114)	2,880	2,880	순증
- 비대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	450	1,050	600	133.3
- 그린뉴딜 유망 100(사업화)	-	-	252	252	순증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	-	145	145	순증
3.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	8,202	9,273	10,556	1,284	13.8
- 온누리상품권 발행	1,772	2,313	2,749	436	18.9
- 산업단지 대개조R&D	-	-	90	90	순증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974	1,227	253	26.0
- 규제자유특구	22	1,103	1,445	342	31.0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등	-	44	88	44	100.0
4.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2,239	2,322	2,703	381	16.4
- 브랜드K육성관리	-	-	62	62	순증
- 수출바우처	985	998	1,064	66	6.6
- 해외규격인증획득	107	107	153	47	43.7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32	80	144	63	79.2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등	116	125	190	65	51.8
5.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강화	61,720	78,186	109,115	30,929	39.6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	13,300	17,500	4,200	31.6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	1,000	5,000	4,000	400.0
- 소상공인지원(융자)	19,500	23,000	36,000	13,000	56.5
- 지역신용보증재보증	319	1,011	2,369	1,358	134.3
- 기술보증기금출연	630	1,700	4,500	2,800	186.7
- 신용보증기금출연 등	910	2,700	4,600	1,900	70.4

※ 5대 중점분야 외에 기타(기관경비, 완료사업 등) 분야

('20) 11,852억원 → ('21안) 11,324억원(△527억원, △4.4%)를 포함한 수치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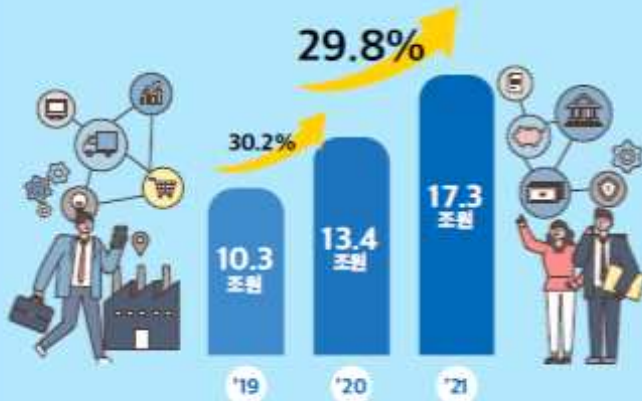
2021년 예산안 회계별 현황

(단위:억 원, %)

	'20년 예산 (A)	'21년 예산안 (B)	'20년 대비(B-A)	
			증감	%
계	133,640	173,493	39,853	29.8
○ 예산	41,968	54,060	12,092	28.8
- 일반회계	35,041	45,601	10,560	30.1
- 군특회계	4,341	5,106	765	17.6
- 소특회계	2,586	3,353	766	29.6
○ 기금	91,672	119,433	27,761	30.3
- 중진기금	60,209	72,660	12,451	20.7
- 소진기금	31,463	46,773	15,310	48.7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1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20 1.8조원 → '21 2.2조원 +3,190억원 17.3%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152억원
제조데이터 플랫폼	134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734억원
스마트 상점·공방	514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995억원

2 |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육성

'20 1.4조원 → '21 1.8조원 +4,597억원 34.0%

모태조합출자	9,000억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2,880억원
비대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1,050억원
그린 유망 벤처 100 육성	252억원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145억원

3 |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 0.9조원 → '21 1.1조원 +1,284억원 13.8%

온누리상품권 발행	2,749억원
규제자유특구	1,445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	1,227억원
산업단지 대개조(R&D)	9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88억원

4 |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20 2322억원 → '21 2,703억원 +381억원 16.4%

브랜드K 육성 관리	62억원
수출바우처	1,064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	153억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144억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90억원

5 |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강화

'20 7.8조원 → '21 10.9조원 +3.1조원 39.6%

중소기업 정책 융자	5.7조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	3.6조원
기술보증기금출연	4,5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4,600억원

성과창출

줌(Zoom), 페이스북(FaceBook)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육성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9.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많은 스타트업이 호응

□ 첫 번째 공모전(디지털 드림9)에서 208개 스타트업이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제시한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디지털 드림 9’ 공모전에 208개 과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에 공개한 9개 기업*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표하는 6개 분야의 9개 과제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KBS, LG디스플레이, KT, LGU+, SKT, 필립스, 더본코리아, 롯데중앙연구소, 로레알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실감미디어’ 분야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푸드테크’ 분야 순으로 많았다.

< 과제별 접수현황 >

분야	인공지능(AI) 콘텐츠	실감 미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푸드테크	친환경 소재	합계
신청수	60개	60개	38개	19개	12개	19개	208개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야의 시청률 예측과제에 대해서는 인물관계 분석, 콘텐츠 소비 데이터, 비정형 가치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해법을 제시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적용 과제는 새로운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활용범위 확장을 제시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실감미디어 분야는 과제 기획 의도에 맞게 가상현실(VR)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시됐으며 실감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아이디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모바일 야구중계 생동감 증진 과제는 야구공 궤적 정보 제공과 이에 기반한 경기 결과 예측방법, 화질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심을 반영하듯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감염병·입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솔루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진의 임상 결정 지원 솔루션 개발 과제에는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교통수단 이용자의 주관적 선호도를 반영한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적의 이동경로를 분석한 모임 장소 추천, 물류 배송 경로 추적 등 과제 범위를 확장·적용한 아이디어도 신청됐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고난도로 평가되었던 푸드테크 분야의 ‘짬뽕맛 식별 센서 개발’ 과제에는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센서가 제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 분야는 그간 공모전 개최가 거의 없는 분야로 스타트업의 참여가 많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 소재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문가와 대기업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며, 9월 중 아이디어 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혁신성, 과제 적합성, 기술적 가능성’ 등을 우선 평가하고, 11월 중 피칭대회를 열어 대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스타트업 최대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협력기반의 융·복합 기술개발, 신시장·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의 중요성 부각

* 포브스500의 52.4%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공모전, 액셀러레이터, 사업지원, 공간제공, 기술자문 등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 활동을 전개('19.10월, 한국무역협회)

- 대기업이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기업-스타트업간 호혜적 시너지 창출 필요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분업적 협업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를 대표하는 6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

* 인공지능(AI·콘텐츠, 실감미디어, 미래모빌리티, 푸드테크, 디지털헬스케어, 친환경

- ①혁신성, ②기술적 성숙도, ③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문제해결 기간을 두어 타 공모전과 차별화

* 3차에 걸친 엄격한 평가(서면평가 → 대면평가 → 데모데이)를 거쳐 대기업과 협업을 가능한 1~3개의 스타트업 선정

□ 추진경과

- 관련 기업들과 6개 분야, 9개 과제 추진 합의('20.6월)

* KBS, LG디스플레이, KT, SKT, LGU+, 더본코리아, 필립스, 롯데, 로레알이 참여하고, 마이크로소프트(클라우드), 다쏘시스템(3D 모델링), ARM(시스템반도체) 기술지원

- 중기부, 해당 대기업, 전문가로 9개 '과제기획작업반' 구성·운영('20.6월~)

* 문제 구체화, 과제 기획, 평가 기준 설정 등 총 20회 회의 개최

□ 공모전 추진 계획 및 일정

① 【과제 공개】 대기업이 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온라인 (유튜브) 및 케이블 TV(KTV) 실시간 중계(7.30)

* 과제 세부내용, 제출서류 등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8.3~27)

【6개 분야, 9개 과제 개요 및 참여 대기업】

분야	과제	대기업
AI·콘텐츠	AI 기반 KBS 미니시리즈 성과 예측	KBS(한국마이크로소프트)
	LG디스플레이의 OLED에 적용 콘텐츠	LG디스플레이
실감미디어	스포츠·공연·영화 등 실감형 VR 서비스 솔루션	KT
	LGU+프로야구' 생동감과 현장감 극대화	LGU+
미래모빌리티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설계	SKT(다쏘시스템)
푸드테크	홍콩반점의 짬뽕 맛 식별 센서	더본코리아
디지털헬스케어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및 AI 기반 환자상태 분석	필립스
친환경	친환경 맥주 PET 소재, 가식성 음료 캡슐	롯데중앙연구소
	이커머스 고객용 친환경 화장품 포장 소재	로레알

② 【아이디어평가】 과제해결을 위한 컨셉, 혁신성, 창의성 등을 중심의 서면평가 (9월초)

③ 【대면평가】 문제해결방법 중심으로 '과제 적합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중점적으로 대면평가를 하여 10개 내외 선정(9월말)

* 2~3주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전문가 토론을 통한 과제와의 적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및 UI/UX가 중요한 과제는 인문학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 병행

④ 【데모데이】 문제해결 방법의 고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2개월)을 부여하고 대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스타트업 선정(최대 3개팀)

* 수요기업·기술지원기업의 멘토링을 거쳐 시연·피칭을 통해 최종 우승팀 선정 (11월)

⇒ 사업화자금(1억원), R&D(최대 4억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원) 지원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0.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1호 벤처투자조합 탄생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에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 결성

□ 지난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첫 사례 나와

○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

□ 벤처투자조합으로 창업기획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획자인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이하 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발굴 프로그램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

이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 「벤처투자법」에서 민간중심의 초기투자 생태계 확대를 위해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이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창업기획자 기준 조합별 결성요건 및 투자 의무 비교(약정총액 기준) >

구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법인출자	30% 이내	제한없음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	50% 이상	40% 이상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주)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텍 홀딩스의 유주현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포스텍 홀딩스 소개 및 연혁

- (회사소개) 대구·경북 최초 창업기획자('17.1.등록)로서 IMP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초기창업자 발굴·투자·육성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 보유
- (육성) 국내 기술지주 회사 최초 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18~'19년도 2년 연속 TIPS 운영사 평가 A등급 달성
- (보육) 중기부 지정 '18년도 경북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이며, 중기부와 함께 국내 최초 민간협력 팀스타운 운영('20.7.~)

[포스텍 홀딩스 주요 연혁]

회사명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 (POSTECH Holdings)	
설립일	2012년 6월	
주주 구성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100%)	
재무 현황	자산 65억원, 자본 46억원(현금 29억, 특허권 등 현물 17억), 매출액15억원	
주요 업무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요 연혁	'20.09	'IMP 1호 펀드' 등록 (벤처투자조합,약정총액: 51억)
	'20.08	'포스텍 홀딩스 4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75억)
	'20.06	'포스텍 홀딩스 5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40억)
	'20.03	POSCO IMP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19.12	'포스텍 홀딩스 3호 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50억)
	'18.11	'포스텍 홀딩스 2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40억)
	'18.09	'포스텍 경북 챌린지 씨드 1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개인투자조합, 약정총액: 50억)
	'18.03	유주현 대표이사 취임
	'17.05	포스텍 포항 창업보육센터 운영 업무 이관
	'17.01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16.11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16.11	서울 창업보육센터 개소
	'16.03	포스텍 기술이전 업무 수탁
	'13.12	박성진 대표이사 취임
	'13.03	제1호 자회사 편입(엔비포스텍)
	'12.06	포스텍 홀딩스 설립(김승환 대표이사)

참고 2

벤처투자법 제정 전·후 창업기획자 비교표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보육	보육공간개념	초기창업자의 사무실 제공	초기창업자의 보육공간 제공
	시설보유방법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유지	기존 외 공유오피스 등과의 협약도 인정
	보육 거리	사무실과 보육공간과의 거리기준 없음	동일 광역시·도내 원칙. 다만, 전문인력 상주 등 예외 인정
투자	투자준수기간	기간 미설정	3년 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최소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없음
	투자비율	초기창업자에게 50% 이상	초기창업자에게 자본금 40% 이상, 개투조합 50% 이상, 벤투조합 40% 이상
	의무투자 기준계산식	자본금+개투조합 출자비율	자본금, 조합 등 각각의 의무투자비율 계산
	조건부지분 인수계약	본계정만 가능	본계정 및 조합투자 가능
투자 조합	개투조합	초기창업자 100% 투자	초기창업자 50% 이상 투자
		법인출자 49% 이내 가능	법인출자 30% 이내 가능
	벤투조합	결성 불가	조합결성금액 1%이상 자본금 (200억 조합 시, 2억원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관리	행위제한	없음	비업무용부동산취득,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사행산업, 금융 회사 등에 투자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 거래요 구 등 12가지
	과태료	변경등록, 결산서,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최대 5백만원)	변경등록, 결산서, 공시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3백만원 ~ 최대 3천만원)
	등록취소	거짓등록, 등록요건 미준수, 투자금액기준 미달, 전문 보육 미시행, 부정이익 유구 등 5가지 (위반 1차 → 2차 → 3차[취소])	기존 외 행위제한의무, 대주주가 영향력 행사, GP로서 위반 행위, 임직원 징계 미이행 등 8가지 (경고→시정명령→업무 일부정지 →등록취소)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1. 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전환 본격 돌입

- 공급기업 613개 신청, 수요 중소기업도 이미 3,000여개사 신청
- 수요기업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바우처 결제수단 도입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신청·접수 결과 공급기업은 613개사가 신청했고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수요기업도 이미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2,880억원, 지원 예정 기업수는 8만 개사다.

접수를 마감(8.13~8.24)한 공급기업은 총 613개의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595개, 중견기업 18개)이 신청했으며, 서비스 기준으로는 964개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다.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 제공 가능)

< 분야별 공급기업 서비스(건수) 신청·접수 현황(중복신청 포함) >

구 분	화상회의	재택근무 (협업 Tool)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합계
중소기업	153	291	103	241	36	113	937
중견기업	5	7	2	11	-	2	27
소계	158	298	105	252	36	115	964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이력, 전문가와 수요자의 평가 등을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은 연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 8월 19일 접수 개시 이후에 3,413개사(9.2일 기준)가 신청했다. 서비스 공급기업이 아직 선정되지 않는 가운데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 신청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신청 현황(기업 기준) >

(단위 : 개사, %)

구 분	창업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율)	2,354 (69.0)	1,059 (31.0)	3,413 (100.0)

< 신청 현황(희망 서비스 기준) >

(단위 : 건, %)

구 분	화상회의	재택근무 (협업 Tool)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계
신청 서비스 (비율)	1,761 (22.6)	2,573 (33.0)	1,301 (16.7)	827 (10.6)	272 (3.5)	1,063 (13.6)	7,797 (100.0)

*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분야별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중복신청 가능)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로 지급 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급기업이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내에서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9월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중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되면 해당 플랫폼(www.knoncontactvoucher.com)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는 바우처 사업 전용카드 외 간편결제(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바우처 카드를 연결되도록 해 수요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결제유형 >

- ❶ 개인명의 체크카드 : 온라인 발급, 보유중인 모든 은행계좌 연결 가능(9.17~)
 - ❷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 온라인 발급, 은행계좌 연결 불필요(9.17~)
 - ❸ 선불카드 : 온라인 발급, 은행계좌 연결 불필요(10.23~)
 - ❹ 법인명의 체크카드 : 온라인 발급 불가, 4개 은행계좌(신한, 농협, 기업, 우체국) 연결 가능(10월말~)
- * 추후 연결가능한 은행계좌 범위 확대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속에서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급기업 선정, 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을 조속히 완료해 중소기업이 신속히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2.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착수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선정 결과 및 사업 추진계획 발표

-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3개 컨소시엄* 구성해 공모 참여, 최종 엔에이치엔-케이티 컨소시엄 선정

*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엔에이치엔-케이티,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 세계 최초 민관협력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화와 제조데이터의 마이제조데이터 전환 추진

* 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인공지능(AI) 제조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를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로 엔에이치엔(이하 NHN)과 케이티(이하 KT)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NHN, KT(인프라), T3Q, 아이브랩(플랫폼), 스코인포(소프트웨어), 경남TP(기업 지원)

정부는 지난 7월 23일(목)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중기부는 지난 8월 13일(목)까지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공모에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HN-KT,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등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은 다년간 클라우드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보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SaaS(Software-as-a-Service) 솔루션 확보와 서비스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으며,

스마일서브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사물인터넷 서비스(Azure IoT Hub) 지원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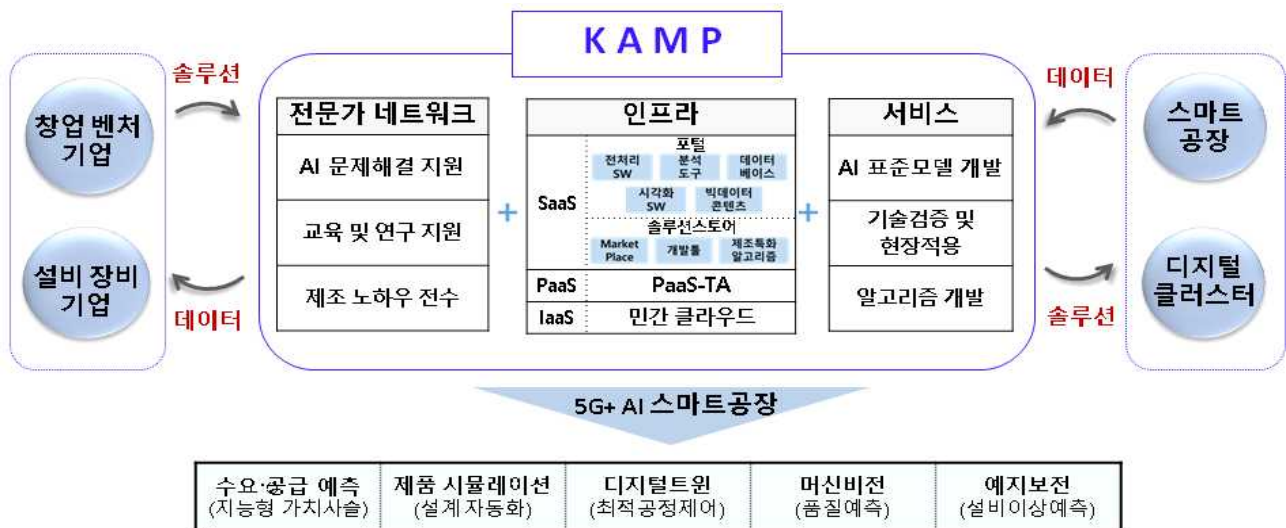
최종 사업수행자로는 NHN과 KT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에이아이(Brightics AI), 아이센트로(AICentro), 티쓰리큐 에이아이(T3Q.ai), 아이브랩(AIBLab)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측면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데이터가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고 분석과 활용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성과 :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납기준수 15.5%↑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은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인공지능(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AI)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스토리지,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해킹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상 문제점을 인공지능(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을 개발·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허브로서, 중소 제조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한다. (20下)

우선 중소 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CSA STAR(국제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국내 공공부분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을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 보장

** 2PFLOPS/월 이상 연산처리가 가능한 컴퓨팅(GPU) 자원, 총 2PB 이상의 스토리지 등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 규격화*해 클라우드에 연동하고 스스로 인공지능(AI)를 활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통합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 공급기업, 솔루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X2MDIS 규격으로 전환

** 엣지 디바이스-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IoT, 데이터 탐색·전처리 자동화, AI 개발 언어·함수, 공개 알고리즘 및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등

또한 중소기업이 설비·공정상 문제를 인공지능(AI)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표준모델 50개를 구축·개방하고 현장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을 지원한다.

2단계 :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21下)

제조기업이 다양한 인공지능(AI) 제조 솔루션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스토어를 구축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개발자에게는 제조 특화 솔루션 개발도구,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등 편리하고 강력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실증이 완료된 표준모델 등을 기반으로 양질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중점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솔루션 스토어의 우수한 인공지능(AI) 제조 솔루션을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에 확산한다.

3단계 :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22上)

'22년 상반기부터는 제조데이터 생산기업과 활용기업을 매칭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제조데이터공유규범(MDSR)을 마련해,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거래자, 유통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22년)

**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20~'22)을 통해 추진

- (지원내용)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벤처기업의 AI 분석·활용을 지원

- (사업예산) '20년 116억 → '21년 정부(안) 134억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지원규모/기간 : 총 95억원 이내('20년 15억원 이내) / '20~'22년

□ 신청 자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보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클라우드 보안인증(IaaS 표준 등급 기준) 보유 기업 : NHN, NBP, KT, 삼성SDS, LG헬로비전, LG CNS, 코스콤, 더존비즈온, 스마일서브, 가비아 등 총 10개사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유형(예시) >

구분		KISA 인증기관 단독 주관	KISA 인증기관 주관 컨소시엄		KISA 미인증기관 단독 주관
참여 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	주관	클라우드 (인증)	클라우드(인증)		클라우드 (미인증)
	참여		MSP	클라우드 (미인증)	
			* MSP : 클라우드 관리기업		
허용 여부		○	○	○	×

□ 신청 결과

- (공고기간) '20. 7. 13(월) ~ 8. 12(수)
- (최종신청) 3개 컨소시엄

< 신청 기업 정보 >

순번	주관기관	참여기관
1	NHN	KT, 아이브랩, 티쓰리큐, 스코인포, (재)경남테크노파크
2	스마일서브	크로센트, 베스핀글로벌(MSP)
3	더존비즈온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선정 평가 및 결과

- (평가일시) '20. 8. 19.(수), 13시 ~ 18시
- (평가위원) 산·학·연 전문가 7인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NHN-KT 컨소시엄

<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관별 역할 >

순번	기관명	주요 역할
1	NHN	사업총괄, IaaS 제공 및 운영, PaaS 개발
2	KT	IaaS 제공 및 운영, PaaS 개발
3	아이브랩	PaaS 개발, 제조데이터 관리(전송·수집 등)
4	티쓰리큐	PaaS 개발, 제조데이터 관리(전송·수집 등)
5	스코인포	SaaS(솔루션스토어) 개발
6	경남테크노파크	홍보

- (결과통보) '20. 9. 1(화)
 - * 행정절차법 제21조 3항에 따라 10일간의 이의신청접수 기간을 거친 후 최종통보
- (협약체결) '20. 9. 9(수)

참고2**AI 제조 플랫폼 구축 · 운영방안**

○ 별첨

참고3**AI 활용 지원 및 생태계 조성방안**

○ 별첨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3. 다양한 창업정보를 한번에, 창업지원포털 『KStartup』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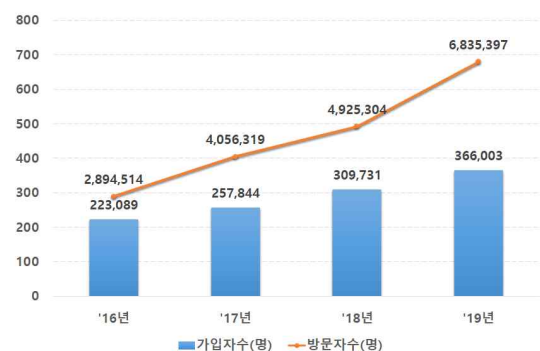
- ☐ 창업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창업메뉴판’ 방식으로 누리집을 개편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 가능
- ☐ 9월 9일(수)부터 시범 서비스를 오픈하고, 한달 간 ‘옥의 티 찾기’ 행사를 통해 오류 수정 등을 거쳐 정식 오픈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대표 창업지원 포털인 ‘K-스타트업(K-Startup)’(www.k-startup.go.kr)의 메인 화면을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창업지원포털로써 ‘15년부터 창업지원 정책의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해왔다.

‘K-스타트업(K-Startup)’ 가입자·방문자는 각각 ‘16년 22만명·289만명에서 ‘19년 37만명·680만명까지 증가해, 현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대표 브랜드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Startup 가입자·방문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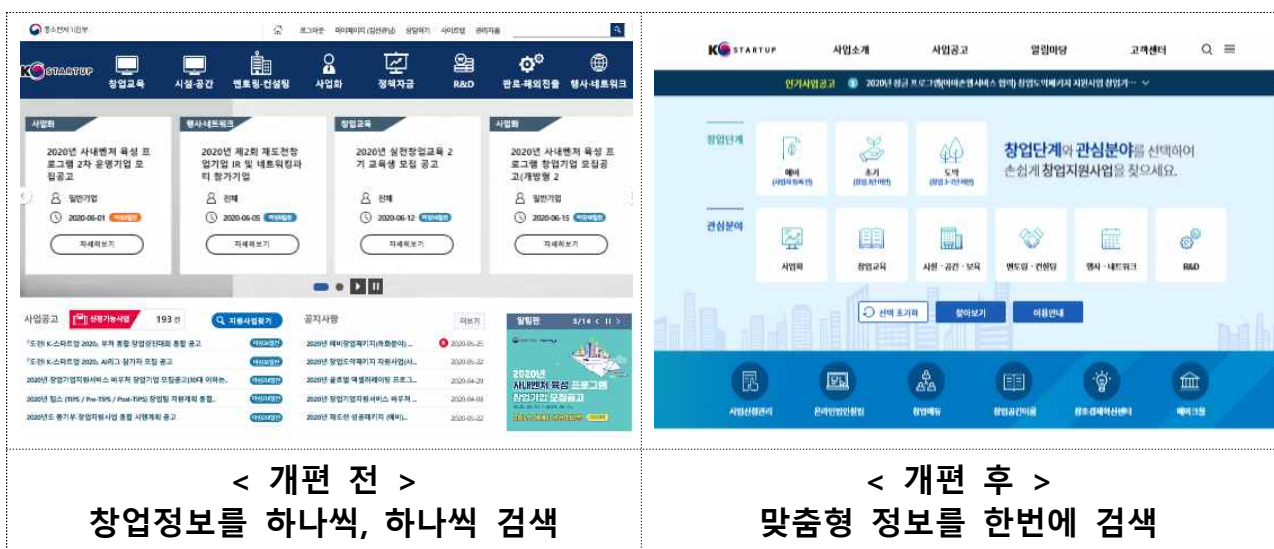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사이트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이트 개편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메인 화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바꾸고, 이용자가 원클릭으로 원하는 창업 정책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본인의 창업단계 (예비, 초기, 도약)와 관심분야 (사업화, 창업교육 등)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창업프로그램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메인 상단을 '창업메뉴판' 방식으로 개편하고,

현재 이용자가 많이 보고 있는 '인기사업' 공고를 추가해 실시간으로 인기 있는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와 마감 시기를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등이 '원클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메뉴판 하단에 '창업지원서비스' 영역을 신설했다.

< 원클릭 시스템 연계강화 >



아울러, 빅데이터, 라이브 커머스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해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해 많은 호평을 받아온 'K-스타트업(K-Startup) 이슈&트렌드'는 메인화면 하단에서 제공한다.

< K-스타트업(K-Startup) 이슈&트렌드 >

K-Startup Issue & Trend		+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20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 29일부터 「K-Startup Issue & Trend」를 공식 명칭으로 하여 대 국민 공개 서비스로 전환 하였으며, 5,000건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p>서비스의 진화, 이제는 O4O 시대</p> <p>2020-07-10</p>	 <p>스타트업 성공지침 "PRETOTYPING"</p> <p>2020-07-03</p>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국민들이 ‘K-스타트업(K-Startup)’을 통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사이트 고도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창업 네비게이션**’, ‘**모바일 웹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창업환경 속에서, K-스타트업(K-Startup)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K-Startup 포털 (<http://www.k-startup.go.kr>) 개요

☐ 추진배경

-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넷'을 확대 개편하여 분산된 부처별 창업지원 정보를 'K-Startup'으로 일원화

*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K-Startup" 구축(경제장관회의, '15.10.14.)

☐ 대 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청소년, 중장년 등

☐ 주요내용

- 창업단계 (3개), 관심분야 (6개)로 분류하여 “창업메뉴판” 배치

* 창업단계 : 예비(사업자 등록 전) – 초기(창업 3년 미만) – 도약(창업 3년~7년)
관심분야 : 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 16개 부처, 90개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 중

☐ 주요 통계

- '15년 대비 '19년 현재, 가입자수는 17만여명, 방문자수는 456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사업공고 또한 1,300여건 증가

< 'K-Startup' 방문자, 가입자 및 사업공고 현황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방문자수(명)	2,274,998	2,894,514	4,056,319	4,925,304	6,835,397
가입자수(명)	189,054	223,089	257,844	309,731	366,003
사업공고(건)	626	1,209	1,447	1,925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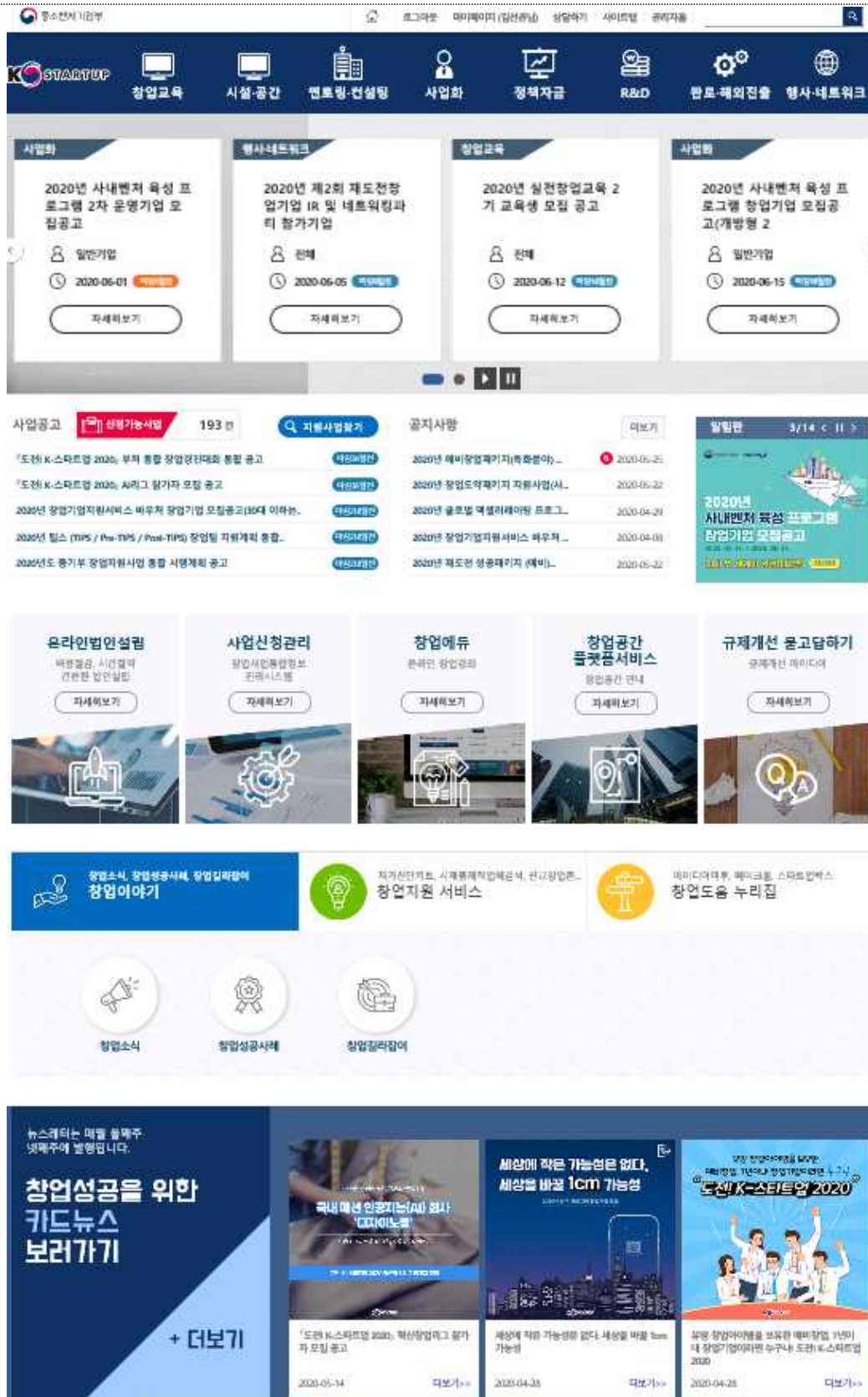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1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년을 기준으로 16개의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90개의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18) 7개 부처, 60개 사업, 7,796억원 규모
('19) 14개 부처, 69개 사업, 1조 1,181억원 규모
('20) 16개 부처, 90개 사업, 1조 4,517억원 규모

참고 2

K-Startup 사이트 메인 개편 전·후

< K-Startup 메인 개편 전 >



< K-Startup 메인 개편 후 >

K-STARTUP 사업소개 사업공고 알림마당 고객센터

2020년 창근 프로그램(어머존서비스 협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가

창업단계

- 예비 (사업자등록 전)
- 초기 (창업 1년 미만)
- 도약 (창업 3~7년 미만)

관심분야

- 사업화
- 창업교육
- 시설·공간·보육
- 멘토링·컨설팅
- 행사·네트워킹
- R&D

선택 초기화 찾아보기 이용안내

사업실행관리 온라인법인설립 창업매출 창업공간이름 창조경제혁신센터 배너크롬

신규 사업공고 마감 일박공고

-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수령) 창업지원 모집 공...
- 중앙대 독서 캠퍼스타운 제3회 창업경연대회 참가 모집 공...
-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기스마트미디어...
- 2020년 IP창업Zone 5기 교육생 모집 2020년 IP창업Zone 5기...
- 2020년 하반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2020년...

K-Startup Issue & Trend

- 서비스의 진화, 이제는 O4O 시대
- 스타트업 성공자침 "PRETOTYPING"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전에 미리 준비해 주라!
- 매개 상업을 미리 혁신적인 도전 도전! K-스타트업 2020 AI리그 참가

nipa 중소기업진흥공단 sb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P-Market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97 제1동 30, 35, 55 창문전용층 대표전화: 02-3389-2577 FAX: 02-3389-2578 COPYRIGHT © 2020 K-Startup All Rights Reserved.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4. 예비유니콘 등 유망 스타트업, 온라인 해외IR 개최

- ☐ 올해 5월에 실시한 K-유니콘 서포터즈 추천기업 10개사 온라인 투자설명회(IR) 결과, 3개 기업이 990억원 규모 대형 투자 유치 성공
- ☐ 9월 14일부터 예비유니콘, 유망스타트업 등 미·중·유럽·동남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 투자설명회(IR)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내 유망 벤처·창업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의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5월에 K-유니콘 서포터즈가 추천한 10개 유망스타트업의 온라인 투자설명회(IR) 결과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 기업인 '백패커' 300억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왓챗' 190억원, 인공지능 토의 학습 서비스 업체인 '뤼이드' 500억원 등 3개사가 99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유니콘 서포터즈는 국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해서 유망기업의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대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결성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창투사, 증권사 등 총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방식의 투자설명회(IR) 대신, 이들 K-유니콘 서포터즈가 추천한 10개사의 비즈니스모델과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해 5월에 K-유니콘 서포터즈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국내 온라인 투자설명회(IR)의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9월부터는 미·중·동남아·유럽 등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온라인 투자설명회(IR)는 두 가지 종류로 진행되며 하나는 K-유니콘 서포터즈 추천기업, 올해 아기·예비유니콘 등으로 선정된 국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아 성장성을 검증받은 20개사를 위한 'K-유니콘 온라인 해외 투자설명회(IR)'와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IR)다.

'K-유니콘 온라인 해외투자설명회(IR)'는 매주 2개 기업씩 10주간 총 20개 기업의 투자설명회(IR) 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해외(美·中·싱가포르) 벤처캐피탈 140여개사에 공개한다.

온라인 투자설명회(IR)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는 관심있는 벤처캐피탈과 기업 간 화상 미팅을 연결하고, 기업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벤처캐피탈의 추가질의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설명회(IR)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말에 해외(유럽·동남아) 투자자 간의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0월말에 계획된 온라인 투자설명회(IR)는 유럽(룩셈부르크, 벨기에 등)과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과 국내 벤처·창업기업 12개사(유럽·동남아 각 6개사)가 비대면으로 만날 예정이다.

온라인 투자설명회(IR)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년 이내의 창업자이거나

벤처기업이면 가능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분야 및 업종 제한은 없으며, 영어 발표와 영문자료 준비가 가능해야 한다.

- * 해외 투자자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참고하여 발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투자자의 관심분야 등을 사전에 확인 필요(공고문 참조)

온라인 투자설명회(IR)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은 9월 10일 (목)부터 9월 29(화)까지 e-mail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www.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시장성만 충분하다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도 투자유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네트워킹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투자설명회(IR)가 해외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유용한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투자유치 기업 (백패커, 왓챠, 루이드) 개요

기업체명	백패커	대 표 자	김동환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설립일자	2012.11.19.
업 종	이커머스	고용인원 (‘20년 4월 기준)	101명
주요제품 (서비스)	공예품과 수제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idus’ 운영		

기업체명	왓챠	대 표 자	박태훈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설립일자	2011.09.21.
업 종	콘텐츠	고용인원 (‘20년 6월 기준)	126명
주요제품 (서비스)	영화, 드라마, 도서 등 콘텐츠 추천·평가 플랫폼 ‘왓챠피디아’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운영		

기업체명	루이드	대 표 자	장영준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설립일자	2014.05.02.
업 종	교육	고용인원 (‘20년 4월 기준)	93명
주요제품 (서비스)	딥러닝 AI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개개인의 학습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타토익’, ‘산타 공인중개사’ 등 운영		

붙임2

K-유니콘 온라인 해외 IR 일정 및 참여기업

공개일	기업명	업종	주요사업
9/14	레이니스트	핀테크	개인자산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매스프레소	교육	AI기반 글로벌 문제 검색엔진 '칸다'
9/21	오피지지	게임	게임전적 분석 서비스 'OP.GG'
	파두	하드웨어	SSD 컨트롤러 개발 및 공급
9/28	메가존클라우드	하드웨어	아마존웹서비스(AWS)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MSP)
	스트라드비전	하드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공 및 솔루션 개발
10/5	이문메드	바이오	바이러스억제물질(VSF) 등 생물학적 제제 제조
	와이낫미디어	콘텐츠	웹드라마/웹예능 등 콘텐츠 제작
10/12	샌드박스네트워크	콘텐츠	360개 이상 크리에이터가 소속된 대표급 MCN 기획사
	진메디신	바이오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10/19	프레시지	음식	가정 간편식 제조 및 유통 플랫폼 '프레시지'
	이지엔도서지컬	헬스케어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 'K-FLEX'
10/26	이스트엔드	패션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원드롭	헬스케어	초고민감도 분자진단 솔루션
11/2	트위니	하드웨어	A.I. 기반 자율주행 물류 운송로봇 '나르고', '따르고'
	비주얼캠프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태블릿 기반 시선 추적 SaaS 플랫폼
11/9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바이오	비알콜성 지방간염 등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퇴행성디스크치료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등
11/16	이티에스	하드웨어	이차전지 전해액 주입을 위한 자동화설비 제조
	센스톤	핀테크	사용자 선택형 간편 2차인증 통합솔루션 'StonePass'

* 기업별 일정 변동 가능

□ 온라인 투자설명회(IR) 개요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에 참가하여 기업 홍보
- ※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VC·엑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하는 IR이며,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IR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을 모집
- (IR 일정) '20년 10월말 예정 (투자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
- (참가규모) 유럽·동남아 각 6개사

구분	참여 투자자
유럽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서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 VC 등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 VC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영어 발표가 가능한 자
-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자
- 분야·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직접 IR 발표기업을 선정 하므로 투자자의 투자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 * (유럽) AI, 데이터, 핀테크, 로봇, 생태학, 레크테크, CSR 등
(동남아) 정보통신, 물류, 헬스케어, 핀테크, 소비재, 농업, 환경 등

□ 신청기간·방법

- (기간) '20. 9. 10.(목) ~ 9. 29.(화)
- (방법) e-mail 제출(제출처 : invest@kvca.or.kr)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5.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 ☐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 개최
- ☐ 대상(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최우수상(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 우수상(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장려상(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유리보일러 상용화) 등 총 6개의 우수작 선정
- ☐ 향후 희망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 및 전문가를 매칭하여 특구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을 9월 8일(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기술·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특구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6월 22일(월)부터 7월 22일(수)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서 총 39건이 접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3명(팀)의 결선진출자를 선발했다.

현재 기업을 운영중인 기업대표부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참여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바이오의료 5건, 자율교통 및 친환경운송 4건, 자원에너지 4건) 선정된 13개 과제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매칭

하여 한 달간 자문을 받으며 기획서를 보완했다.

이 날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은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으로, 사랑니 발치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인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테스트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규제특례를 제시했으며 충실하게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 수상 과제는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유리보일러 상용화’** 등 총 3건이다.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은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가능한 사각 큐브형태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특례 필요성과 사업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경제성 등을 고려한 기대효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은 제주도 관광객에게 다른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관광객간의 차량 공유를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공유교통 서비스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규제의 참신성이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택시 업계 등과의 협의방안이 다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리보일러 상용화’는 전자레인지 형태의 가열기 속에 특수한 유리관을 넣어 가열해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보일러 개발에 관한 내

용으로, 난방용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사업 내용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한 과제 이외에도 면역세포 키팅시스템, 태양광열 발전시스템 등 실제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 하는 과제들과 더불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선박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선박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심사는 특구 옴부즈만 등 규제자유특구에 정통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가자들의 발표를 청취한 후 4개의 평가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정책의 이해도 및 완성도, 규제의 명확성 및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현장의 시각에서 특구사업으로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14개 지자체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참관해 우수한 아이디어에 투표한 점수가 가점으로 반영됐다.

이번 공모전 결선심사는 당초 규제자유특구박람회의 부대행사로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중기부에서는 공모전에서 발표된 과제에 관심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와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입상한 과제들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http://rfz.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써,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2019년 7월 1차 지정부터 2020년 7월 3차 지정에 이르기까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1·2차 지정 특구에서 투자유치 3,169억원과 기업이전 100개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특구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결선발표 사업기획서 주요내용

분야	주제	주요 내용	주요 규제특례
바이오 의료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스프레이 개발	흑미를 숙성·추출한 흑미발아액을 활용하여 항균/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를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①의약품 제조업 허가 특례 허용 ②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및 판매 허용
	특발성척추만증 진단기기	탈부착 센서 활용 척추측만증 진단 및 스마트폰 연동 기기 개발로 엮드린 상태 에서만 측정가능한 진단기기 불편함 해소	탈부착 센서를 활용한 척추 측만증 진단기기 실증 허용
	면역세포 키핑 시스템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 본인의 면역세포를 액체질소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요청에 따라 다양한 환자 맞춤 치료에 활용	면역세포 배양·증식을 통한 시술 허용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솔루션	의약품 조제·배송·상담 등 전 과정을 비대면 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원격진료 활성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허용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이식 재료 국산화를 통한 시장 선도	태반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특례 허용
자원 에너지	전기발전 가스레인지 및 생활안전관리 IoT시스템 '스마트 타이머 쿡'	에너지 하베스팅(에너지 재활용), 가스안전, IoT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생활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시장성 창출	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생활안전장치로의 가용장치 범위 확대 ②전기설비, 전선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
	태양광열발전 (Photovoltaic Thermal)	태양광열발전 시스템 상용화로 관련 기술 선도 및 세계 시장 선도	①태양광열 활용 해수 담수화 실증 ②태양광열 패널 실증 ③건물 일체형 태양광열 실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리보일러 상용화'	유리보일러 상용화를 통해 녹색 에너지 자원과 신산업 발굴 및 난방비 절감	마이크로파가열과 유리의 발열 능력을 이용한 가정용 보일러 실증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통해 한국형 그린뉴딜(스마트에너지)의 정형 창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혁신모델에 대한 풍력설비 시공기준 완화
자율 교통 및 친환경 운송	제주 관광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매칭 서비스	관광객에게 단기임대면허 발급을 통한 렌터카 공유서비스로 새로운 공유교통 서비스 시장 조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유상운송 및 대여 허용
	친환경 소형선박 (HDPE) 제조 및 해상 실증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친환경 소형 선박 건조로 친환경 선질개량 사업선도 및 선진국형 환경친화적 어선 인프라 구현	HDPE를 활용한 어선제조공법 및 HDPE 용접을 통한 어선 건조 허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노후 내연기관차를 스마트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친환경 전기차 개조산업 육성	①자동차 제조시설의 면적· 요구시설 축소 ②실증 테스트 간소화 허용
	중소형 암모니아 선박 상용화	암모니아 연료 상용화로 선박시장의 다양성 개척 및 기존 선박 재활용	암모니아 연료 추진시스템의 선박탑재 및 운항 실증 허용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6. 포스트 코로나 유망 중소기업 소개 영문 책자 발간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추천한 K방역, 비대면,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수록

- ☐ K 방역기업, 비대면,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주요 제품과 기업정보 영어로 홍보
- ☐ 외국 정부·기관, 상공회의소와 중기부 수출인큐베이터, K 스타트업 센터 등에 배포하고, 관심기업 매칭해 화상 상담 등 교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7일(화) 중소기업 유관 기관과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 “Grand Shift to Post COVID-19 World.”**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콜롬비아, 이란 등의 국가에서 중기부에 방역과 진단 키트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외국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해 외국에 소개할 각 분야 유망기업의 발굴을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노비즈협회와 무역협회가 기관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 기술력, 상품성, 해외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추천했다.

기업별 영문 정보제공에 동의한 **K방역 46개사, 비대면 분야 26개사,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21개사 등 총 98개사가** 수록됐다. 특히 워킹스루 진료소, 마스크, 방역용 고글, 손소독제 등 브랜드K 기업 4개사와 지난 4월 브랜드K에 예비 선정된 진단키트 4개사도 참여했다.

책자는 분야·기업별로 주요 제품, 특징, 회사 개요와 해외인증, 수상 내용 등 주요 성과, 연락처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별 QR 코드를 삽입해 영문 홈페이지나 홍보 동영상을 연결해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 등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K’에 대한 홍보와 수출 인큐베이터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해외 진출 거점 등을 소개하여 활용도도 높였다.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영문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기술교류 플랫폼(www.gtep.or.kr)에 등록해 상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해 관심 기업 또는 기관과 화상 상담회나 투자유치 설명(IR) 등 비대면 교류를 지원하게 된다.

외국 정부에 책자를 발송할 때 브랜드K 선정기업의 마스크를 함께 전달하여 현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교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책자를 통해 소개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국제사회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인공지능과 디지털경제 분야가 부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극복에 국제공조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
- * 콜롬비아, 이란 등에서 중기부에 방역 로봇, 진단키트 관련 한국기업 소개 요청(20.4~5월)

2. 책자 개요

① 영문명 : Grand Shift to Post COVID-19 World

* COVID-19로 인해 가속화된 대전환의 시대에 협력과 연대를 강조

② 수록기업 : 중진공, 창진원, 기정원, 중소유통센터, 경기창조, 이노비즈 협회, 무역협회가 1차 추천하고, 영문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업 98개사

- K방역(46), 비대면(26),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21) 등

* 브랜드K 기업 중 진단키트 5개사, 마스크·고글·손소독제 3개사 참여

구분	중진공	창진원	기정원	유통센터	경기창조	이노비즈	무역협회	소계
K방역	11	8	11	6		10		46
연택비대면	6	6	3	2	5	4		26
AI분야	5	4	1		3	7	1	21
축산가공등	3	1					1	5
소계	25	19	15	8	8	21	2	98

③ 책자목차 : 발간사, 분야별 기업 소개(주요제품, 주요성과, 회사개요, 연락처*), 브랜드K 소개, 중기부 및 유관기관 홍보, 해외거점 소개

* 기업별 QR 코드 삽입하여 영문 홈페이지·홍보 동영상 등 연결 상세정보 추가 제공

④ 활용계획 : 주한대사관, 외국정부·기관,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고,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교류에 활용 (*브랜드K 마스크 동송)

- ① 수출지원기관 화상 수출 상담회에 활용, ② 협력 의제별 화상 수출·IR 상담회 개최,
- ③ 외교부와 협의하여 재외공관에 배포, ④ 향후 양자협력 재개시 참여기업 발굴 등

3. 향후계획

- 주한대사관, 현지 상공회의소, 외교부(현지공관) 등을 통해 배포 (9월초)
- 중진공 현지거점(수출BI·KSC 등), 유관기관별 화상 상담회 개최 (20.하)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7. 모태조합 3차 출자사업 순조롭게 진행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규제자유특구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 등 3차 출자사업 경쟁률 2.3:1 기록
-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심리가 일부 위축된 가운데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20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3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54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8,000억원을 출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출자 계획 3,540억원* 기준 경쟁률 2.3대1에 해당한다.

* 스마트대한민국 모펀드 민간 협약재원 500억원 포함

모태펀드는 신청수요 중 3,500억원 내외를 선별 출자하여, 민간자금과 더불어 총 7,000억원 내외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3차 정시 접수현황 (단위 : 억원, 개) 〉

분 야		당초계획		접수결과		신청 조합수	경쟁률
		출자예산	결성목표	출자요청	결성목표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바이오	2,515	5,365	2,940	6,090	18	1.2:1
	그린뉴딜	500	715	2,670	4,080	18	5.3:1
	소 계	3,015	6,080	5,610	10,170	36	1.9:1
규제자유특구		250	420	484	827	7	1.9:1
소재부품장비		275	460	1,986	3,639	11	7.2:1
합 계		3,540	6,960	8,080	14,636	54	2.3:1

한국판 뉴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이번 3차 출자사업의 목표 조성금이 6,000억원 규모였으나, 모태펀드 출자를 신청한 펀드의 전체 조성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앞선 출자 사업을 통해 5,800억원 규모 펀드가 현재 조성 중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당초 조성 목표치 1조원은 쉽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차 출자사업(4.29 선정) 조성규모 : 비대면 1,850억원, 바이오 3,610억원, 그린뉴딜 354억원

특히,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멘토기업 등이 후원자로서 후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펀드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인데, 지난 7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 업무협약(MOU)에 참여한 멘토기업은 7개사였으며, 이번 출자사업에서 추가로 멘토기업 7개사가 참여를 희망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업무협약(MOU) 멘토기업 : 네이버, 넷마블, 크래프톤, 무신사, L&P코스메틱, 베스핀글로벌, 신세계 그룹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 등 비수도권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도 당초 모태펀드 출자계획 250억원 대비 484억원 출자 신청, 1.9대 1을 기록했다. 지역의 벤처투자 역량 확보 차원에서 본점을 지방에 두고 있는 벤처캐피탈로 신청 대상을 제한했음에도 당초 목표치를 상회한 점이 의미있다.

소재부품장비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275억원 출자에 1,986억원 규모 출자 요청이 접수되어, 경쟁률이 7.2대1에 달했다. 10.9대1이라는 지난 1차 출자사업의 높은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 육성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 투자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코로나19에 여파에도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펀드가 조기에 조성되어 빠르게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7. 한국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파크, 대전과 천안에 추가 조성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조성지역 2곳 선정결과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에 대전광역시, '복합형'에 충남 천안시 선정
- ☐ 선정 지역에는 올해 설계비 각 5억원씩을 지원, 내년에 스타트업파크 조성비 120억원 내외 추가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11일(금)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평가 결과 단독형에는 대전광역시, 복합형에는 충남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에프(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에는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중기부는 스타트업파크 조성 컨셉을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어 각 1개씩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단독형'은 현재 네트워킹 및 주거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혁신창업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복합형'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런던 킹스크로스를 모델로 삼았으며 현재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 높은 도심지 등 지역에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기업지원 인프라는 창업기업 입주시설인 스타트업 파크 외에 기술개발(R&D) 지원시설인 복합

허브센터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11일 사업을 공고해 9개 지자체가 '단독형'에, 3개 지자체가 '복합형'에 지원했다.

중기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 발표평가 시에는 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언론인 2명을 추가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순서로 진행하며 평가 단계별로 일부 지자체를 탈락시켰으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서면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난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는 평가위원들이 모든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현장 확인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합한 종합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대해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종합서면평가 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산출됐고 그 결과 '단독형'에는 대전광역시, '복합형'에는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 평가절차 : 현장 확인 → 종합서면평가(8.27일) → 발표평가(9.9일)

단독형에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유성구 궁동 일대를 스타트업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 충남대 등 우수한 창업인적자원과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주거·문화·상업시설도 집적돼 있어 창업 및 네트워킹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다수의 위원들이 평가했다. 또한,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민간과 협업해 벤처펀드도 조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스타트업 파크 운영 전략이 제시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 대전광역시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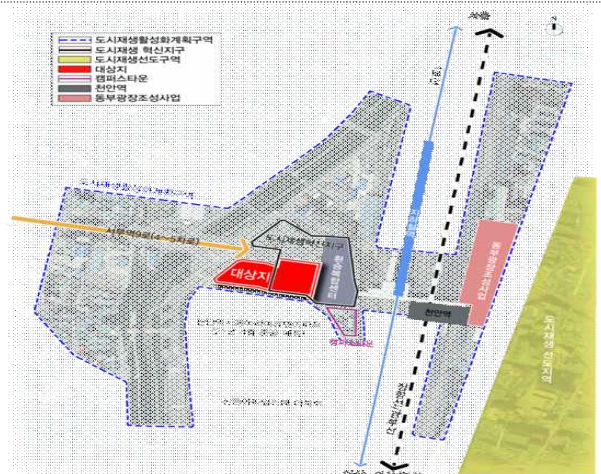
- (조성지역) 대전 유성구 궁동일대 (충남대-카이스트 사이)
- (조성규모) 대지면적 3,632 m², 연면적 12,000 m²
- (운영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복합형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의 경우, 천안역 교통 인프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후보지 주변에 밀집된 대학, 투자기관, 대학 등 혁신주체와 창업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 유입뿐 아니라 향후 성장 지원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기지정돼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이후 기업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충청남도(천안) 사업 개요 >

- (대상) 천안역(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 (조성규모) 대지면적 7,335 m², 연면적 17,640 m²
- (운영기관) 충청남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기부는 단독형에 선정된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5억원, 내년에 스타트업파크 조성비 12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는 국비에 매칭하여 120억원 이상을 스타트업파크 조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복합형에 선정된 천안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외에 복합허브센터 구축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올해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5억원과 복합허브센터 설계비 5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내년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120억원 내외와 복합허브센터 구축비 14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천안시도 국비에 매칭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스타트업파크가 창업혁신 거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8. 스타트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 ☐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D-100 프로그램 5개 참가팀 선정
- ☐ D-100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전략 구체화, ‘글로벌 진출’ 채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김지섭)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하는 최종 5개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다임러 그룹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2016년 다임러 독일 본사에서 시작해 미국, 중국, 인도 등 6개국에서 개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7번째로 개최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구글과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엔비디아, 아마존, MS, 다쏘시스템 등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메르세데스-벤츠와 공동 개최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7~8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총 106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21:1의 경쟁률을 뚫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최종 5개팀이 선정됐다.

< 'D-100 프로그램' 참가팀 프로젝트 내용 설명 >

서울로보틱스	3D 라이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머신러닝)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지하는 SW 플랫폼을 제공
코코넛사일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화물 및 운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해피테크놀로지	모바일 앱기반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서틴스플로어	VR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여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는 모빌리티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베스텔랩	GPS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차량 위치를 추적하여 주차공간까지 네비게이션 해주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제공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한 독일 다임러 본사 연구원 시몬 바인들(Simon Weindl)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과 최신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공존하는 한국은 매력적인 스타트업 시장이 아닐수 없다”**라면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선정된 5개팀은 11월까지 **‘100일 프로그램(D-100)’**을 통해 **각각의 프로젝트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보유기술의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보완 등 신규 비즈니스 도입에 앞서 사전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 세션’과 ‘멘토링 세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하우도 전수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개최되는 ‘엑스포 데이’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참가팀에게는 독일 본사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피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등을 위해 '21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화 기술개발(R&D)과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1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참가자 신청현황

□ (신청/접수 기간) '20. 7. 23 ~ 8. 21

□ (지원대상 및 세부분야)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미래차 전 분야

- (지원대상)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 보유한 법인 설립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제외)
- (세부분야) Future Mobility, Enterprise Solution,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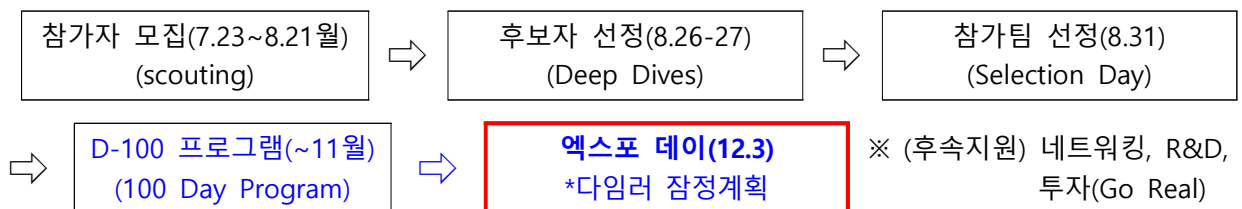
 Future Mobility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제품, 서비스 생산과정 아이디어
 Enterprise Solution	마케팅부터 CS까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전반을 향상시킬 아이디어
 Sustainability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에 기여할 제품, 신재료, 기능 아이디어

□ (모집 방법) 운영사 스파크랩스를 통한 직접모집*과 온라인 모집** 병행

* 벤처캐피탈, 포트폴리오사, 유관기관 및 파트너사의 운영사 네트워크 활용

** 스타트업 아우토반 홈페이지(<http://startup-autobahn.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 스타트업 발굴, 선정 및 지원프로그램 >



□ ‘D-100 프로그램’ 참가팀 선정 결과 : 총 5개 기업 선정

- (기본방향)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가 100일 프로그램 기간 동안POC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예상되는 기업

- (선정기업) 서울로보틱스, 코코넛사일로, 해파테크놀로지, 서틴스플로어, 베스텔라랩

구 분	Future Mobility	Enterprise Solution	Sustainability	기업 수
접수 결과	67개	38개	14개	106개 기업
서류심사(8.15~21)	23개	19개	6개	39개 기업
후보기업(8.26~27)	12개	10개	3개	20개 기업
참가팀 선정(8.31)	4개	2개	1개	5개 기업

* 분야별 ‘기업수’는 1개 기업이 2가지 이상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음

□ 100일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개요)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및 비즈니스 디지털화의 미래를 규정할 차세대 기업가를 발굴을 위한 100일간 컨설팅 제공
- (프로그램 구성)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기업 분석 후,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세션 진행
 -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대상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핵심성과지표 설정) 프로그램 기간동안 진행될 POC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진행 관련 미팅
 - (교육 세션) 다임러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세션 및 스타트업 아우토반 성공사례 공유 세션
 - (멘토링 세션) 스타트업의 집약 성장을 도울 기술 분야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세션

□ 100일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일정	내 용	구분
9월	POC plan 논의 및 목표 수립	KPI
	Startup Autobahn 독일 Alumni Team들의 경험과 성과 공유 세션	교육
	5G 기술 및 인사이트 관련	멘토링
10월	구체적인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업무방식, OKR(구글이 일하는 방식)	멘토링
	B2B Sales	멘토링
	POC 과정 및 성과 점검	KPI
	Startup Autobahn 독일 운영팀과 실무팀들이 말해주는 Startup Autobahn Best Practice와 성과/경험 공유	교육
	PR 기법, 기자/언론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등	멘토링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 및 성공사례 공유	멘토링
	투자 유치 방법 등	멘토링
11월	대중 앞에서 내 비즈니스를 5분안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 등	멘토링
	Daimler 대표이사 / 임원이 바라보는 스타트업과의 협업방향과 방안 그리고 Future of Mobiltiy	교육
	Pitch Practice and workshop for Expo Day	피칭 준비

기업명	주요 기술
Seoul Robotics 서울로보틱스	[라이더 센서를 사용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보틱스는 라이더 센서를 사용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 이를 통해 각 센서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
Coconutsilo 코코넛사일로	[빅데이터 기반 원스톱 물류 운송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넛사일로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으로, 실시간 위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운송 현황을 추적(주유, 정비, 보험)
Happy Technology 해피테크놀로지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타워시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1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전문 테크니션이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세차 플랫폼 - 앱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실시간/예약/정기 세차 서비스를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음
Thirteenth Floor 서틴스플로어	[엔터테인먼트/메디컬케어/교육/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VR, XR 콘텐츠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틴스플로어는 VR, AR, AI 및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메디컬케어/교육/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VR 및 XR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 - 실제 다양한 타겟 시장 및 사용자 대상으로 비대면 수요에 충족하는 차세대 교육 플랫폼 시장 진출
VEStella Lab 베스텔라랩	[V2X 스마트 주차 시스템 Watchmile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스텔라랩은 보유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GPS가 없는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맵 기반 실내 네비게이션을 개발 - 오차 0.5M의 주차 기술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하는 UI/UX디자인,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시각화로 주차 효율성 증대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19.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

- ☐ 예능형 콘텐츠 ‘ㅎㅎ마트’ 방송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로 소상공인 제품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
- ☐ 소상공인 매출 증진 위해 9월 11일부터 ‘가치삼시다 플랫폼’에 온라인 특별 기획전 개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제작한 ‘ㅎㅎ마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인 ‘ㅎㅎ마트’가 방송 2주(4회 방송)만에 누적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ㅎㅎ마트’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하하, 지조, 강재준 등이 출연해 소상공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로 총 12편의 웹 예능 형태로 제작되었다.

8월 25일(화)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와 ‘가치삼시다 TV’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방송 시작 2주만에 9월 7일(월) 07시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50만, 좋아요 4,400여개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댓글 창에 “대기업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소상공인 제품이 많은데 홍보나 마케팅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마트’를 통해 많이 알려져서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겼으며,

또 다른 시청자는 “삼촌도 소상공인이어서 누구보다 공감이 가는 영상입니다. 삼촌께 영상을 추천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콘텐츠에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것이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 듯하다.

‘에코비오스(제품 : 버섯 요쿠르트)’ 조항희 대표는 “방송을 통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방송을 보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아 정말 힘이 났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희소식도 알렸다.

‘파프리카(제품 : 집중왕 종이안경)’ 노재용 대표도 “유명 연예인들이 제품을 홍보해 한편의 광고 CF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다”라고 소감을 말하면서 “이번 홍보 영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품을 팔겠다”라는 다짐도 남겼다.

‘ㅎㅎ마트’ 출연자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것에 남다른 감회를 보였다.

자영업자 출신이기도 한 하하는 “이번 방송을 제작하면서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처음 접했는데 정말 훌륭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아서 놀랐다”면서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저도 항상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할테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강재준은 “ㅎㅎ마트 취지가 매우 좋아서 방송이 끝나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모두 힘내서 건디다 보면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다.

지조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 ‘가치샵시다 플랫폼’에 정말 좋은 제품이 많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며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9월 11일(금)부터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ㅎㅎ마트’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샵시다 플랫폼’에 별도의 ‘ㅎㅎ마트’ 구매 페이지를 구성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ㅎㅎ마트 기획전 URL : <https://v.dongbanmall.com/exhibition/1566>**

또한 9월 8일(화)부터 방송되는 5회부터는 바닷가 마을에서 마트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나선다.

게임이나 별칭 등 다양한 예능적 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참여형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요요미, 현수 등 깜짝 게스트의 등장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많은 분들이 ‘ㅎㅎ마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치 있는 소비가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ㅎㅎ마트’는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와 ‘가치샵시다 TV’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다.

*** ㅎㅎ마트 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v=mceUfYHz4TA>**

**** 가치샵시다TV 채널 : <https://www.youtube.com/c/가치샵시다TV>**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 본격 출범

-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 구성 완료, 20개 기업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평가에 국민심사단 참여
- ☐ 국민심사단장으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위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이 9월 4일(금) 출범하고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심사단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스타트업 선정·육성 과정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올해 20개를 비롯해 5년간('20~'24) 총 100개의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선정 예정

이번 국민심사단은 기존에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등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기존 평가와는 달리 **창업 유경험자, 대학·출연연 전문가, 기술·경영 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참여**한다.

심사단은 2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발표 평가(10월말)에서 60개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국민심사단 공모 접수에는 687명이 신청해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국민심사단은 인큐베이팅·투자자, 스타트업 대표, 기술·경영 전문가 등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추천을 통해 5개 분야*별로 12명씩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 모집 분야 : ①스마트엔지니어링, ②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③신소재, ④바이오, ⑤신재생에너지

국민심사단장으로 위촉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300여 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석학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한양대 기술자립화지원단’ 운영을 이끌어 왔고 소재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권오경 국민심사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 거점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기업의 수요와 연결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심사단장으로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60명의 국민심사단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연관성이 큰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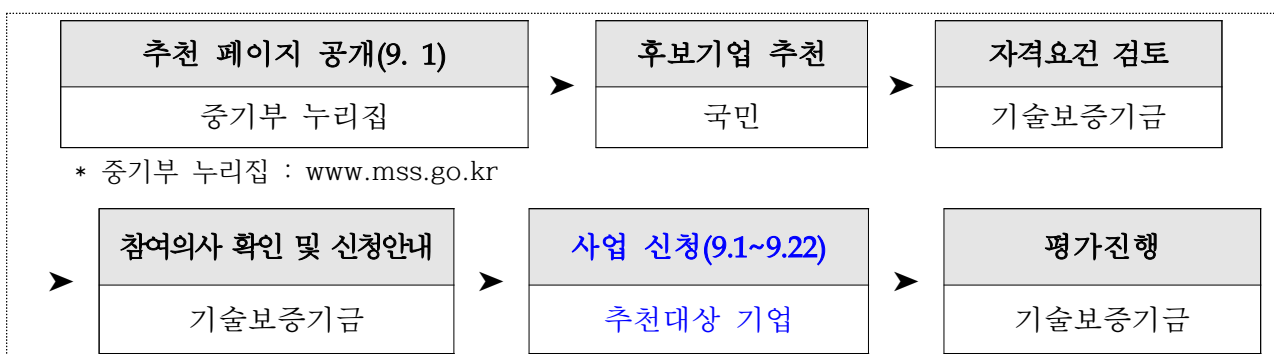
21. '20년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모집

- ☐ 예비유니콘, K-유니콘으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벤처 4대 강국! K-유니콘 프로젝트」 일환
- ☐ 시장성·성장성 등이 검증된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년 제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신청할 혁신기업을 9월 1일(화)부터 9월 2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니콘 특별보증 후보기업 국민 추천제'를 운영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국민추천제 진행 흐름도 >



1. 20년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 계획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또는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고,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이

신청 할 수 있다.

* 혁신성 : 기술평가 BB등급 이상

성장성 : 3개년 평균 매출성장률 20% 이상 또는 전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7.1월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 누적투자유치

이번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1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2.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의미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6),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 성장유망 적자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20.4.9) : 민간의 벤처투자금을 유치(50억원)하여 이미 시장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 최대 100억원 보증으로 유니콘 진입을 촉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올해 정규사업으로 전환했고, 아기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을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으로, 예비유니콘 기업을 K-유니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단계별 지원제도이다.

3. 20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성과 및 2020년 지원실적

‘19년에는 27개 예비유니콘들을 지원했다. 이들은 예비유니콘 선정 이후 기존 투자유치금액(총 7,31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3,754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

* 컬리 2,000억원('20.5), 루이드 500억원('20.7), 마이리얼트립 432억원('20.7), 스타일쉐어 250억원('20.1), 리디 200억원('20.3), 왓차 190억원('20.7), J2H 바이오테크 130억원('20.7), 피피비스튜디오 32억원('19.9), 바로고 20억원('20.3)

평균 고용 규모도 전년 대비 평균 22.5%가 증가하고, 매출도 '18년 대비 53%가 늘어나 급성장 추세를 보여 특별보증이 유니콘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간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균 매출 : ('15) 54억원 → ('18) 328억원 → ('19) 502억원

평균 고용 : ('15) 31명 → ('18) 126명 → ('19.6) 129명 → ('19) 138명 → ('20.6) 158명

'20년 1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66개 기업이 신청해 15개 기업에 총 940억원 (업체당 평균 62.7억원)의 보증지원 이루어졌다.

15개 선정된 기업들의 특징은 비대면 혁신기업 비율이 60%(9개 기업), 평균 업력 7.4년, '19년 평균 매출액 약 240억원, 기업가치 1,194억원을 보였다.

< '20년 1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특징 >

업력	매출	고용	벤처투자	기업가치	비대면
7.4년	240억원	111명	298억원	1,194억원	60%

이번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차 모집은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요건검토·서면심사), 2차 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와 국민 참여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중에 선정된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에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성·성장성·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추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기업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 추천대상

- 우리 주변에 숨겨진 예비유니콘기업을 추천해 주세요.

- 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2017.1월 이후 설립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공고문 참조)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 추천방법

- 예비유니콘 기업을 추천해 주시면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자격요건 검토 후, 추천받은 기업에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예비유니콘 육성사업’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 (추천방법)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정책 > 국민추천
- 사업목록 중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택 후 국민추천서 작성
- (추천기간) 2020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경품) 추천해 주신 기업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기념품 제공
(11월 말) 예정

* 단, 추천기업이 신청자격(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051-606-7646, 7678)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2. 다쏘시스템,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기업 육성에 나서

제조분야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다운다' 프로그램 공고

- ☐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에 3D 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야 전문 글로벌 기업인 다쏘시스템이 새롭게 참여
- ☐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세계 수준의 전문 소프트웨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내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을 위해 다쏘시스템과 협력하여 '다운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고 8월 31일(월)부터 9월 14일(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다운다" 프로그램) 다쏘시스템과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협력을 시작(On)한다는 의미(Dassault On 多 K-Startup)이며, 또한 이 프로그램에 우수한 스타트업이 '다운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함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함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구글과 함께 '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많은 창업기업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어서 올해는 '창구'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수를 60개사에서 80개사로 확대했고,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 【'19년】구글(창구, 60개사), 【'20년】구글(창구, 80개사), 엔비디아(N&UP, 30개사), 아마존웹서비스(정글, 30개사), 마이크로소프트(마중, 30개사)

이번에 다쏘시스템과 '다운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5개로 확대됐다.

특히, 중기부와 다쏘시스템은 '다운다' 프로그램을 제조 소프트웨어 글로벌 기업인 다쏘시스템의 강점을 살려 운영할 계획으로, 제조분야 창업 기업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기업(30개사 예정)에게는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다쏘시스템의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① 다쏘시스템은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 설계, 공학해석,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창업기업에게 제공한다.

② 소프트웨어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랩*'을 활용해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 등 보다 심도있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 3D익스피리언스 랩(3DEXPERIENCE Lab) : 다쏘시스템이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 연구소로서, 3D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공정 구현 가능

③ 다쏘시스템은 자체 비즈니스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에 창업기업을 등재하여, 창업기업이 다쏘시스템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 다쏘시스템 자체운영 설계자-생산자 네트워크로서 3,000만개 이상의 부품 서플라이 체인의 600여개 기업 등록

< '다운다' 프로그램 개요 >

- (사업목적)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 중심) 초기기업(창업후 3년 이내) 30개사
* 제품 설계·고도화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해 공학 S/W 활용이 필요한 초기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교육 및 멘토링, 글로벌 마케팅 등
- (신청접수) '20. 8. 31. ~ 9. 14. 18:00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온라인 신청

'다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3. 스타트업 축제 ‘컴업’ 기업설명에 1천76곳 신청...경쟁력 9:1

‘2020 컴업’ 온라인 기업설명(IR) 참여기업 모집에 국내외 스타트업 1,076개 신청... 경쟁률 9:1

- 11월 개최 예정인 컴업 2020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기업 설명(IR) 참여기업(COMEUP STARS) 모집에, 국내외 스타트업 열띤 호응
 - 총 120개 기업 모집에 1,076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국내보다 해외 스타트업 (646개사, 60%)이 더 많아
- 서면평가, 공개·전문성평가 등 총 3단계의 평가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120개사 최종 선정 (로켓리그 84개, 루키리그 36개)
 - * 기업 기업설명(IR) 영상 제작, 글로벌 투자자 비즈 매칭 및 네트워킹 제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2020년 컴업 조직위원회 (민간조직위원장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이하 조직위)는 8월 28일(금) 올해 컴업 행사에서 온라인 기업설명(IR)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조직위에 따르면 약 한달 동안(7.24~8.23) 온라인으로 접수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9개국에서 1,076개의 스타트업들이 신청해 최종 120개사 모집에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유럽 등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도 커다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스타트업 축제를 표방한 ‘컴업 2020’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88개국에서 646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는 전체 신청기업 1,076개사의 60%에 달한다.

< 컴업 2020 온라인 IR 접수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로켓리그			루키리그			계		
	선정	신청	비율(%)	선정	신청	비율(%)	선정	신청	비율(%)
계	84	576	100	36	500	100	120	1,076	100
국내		196	34.0		234	46.8		430	40.0
해외		380	66.0		266	53.2		646	60.0

국가별로는 유니콘 기업을 24개 보유하고 있는 세계 3대 스타트업 대국인 인도가 가장 많이 접수 (63개사)했으며 그 뒤로 미국·싱가포르·이스라엘 (각 46개사), 스페인 (41개사) 순으로 신청했다.

< 컴업 2020 해외 국가별 접수현황 (단위 : 개사) >

국가명	접수	국가명	접수	국가명	접수	국가명	접수
① 인도	63	⑤ 스페인	41	⑨ 독일	20	⑬ 스웨덴	12
② 미국	46	⑥ 캐나다	30	⑩ 인도네시아	20	⑭ 네덜란드	11
③ 싱가포르	46	⑦ 영국	29	⑪ 말레이시아	15	기타(74개국)	233
④ 이스라엘	46	⑧ 홍콩	21	⑫ 프랑스	13	합계	646개사

중기부와 조직위는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고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K-방역이 대한민국의 신뢰도 제고를 가져온 점 등이 해외 스타트업들의 컴업(COMEUP) 2020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컴업 2020 온라인 기업설명(IR) 참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신청 분야별로 보면, 상거래(커머스) 122개사 (12.7%), K-방역 112개사 (11.7%),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107개사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유형(트렌드)과 삶의 변화로 인해 비대면 관련 분야 신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컴업 2020 로켓리그 세션별 접수현황 (단위 : 개사) >

주제	Social System		Work		Life	
세션	K-방역	정책	오픈이노베이션	로봇 & AI	커머스	교육
접수기업 (비율)	112 (11.7%)	15 (1.6%)	107 (11.2%)	92 (9.6%)	122 (12.7%)	76 (7.9%)
세션	디지털헬스케어	환경	원격근무	제조	엔터테인먼트	유통
접수기업 (비율)	97 (10.1%)	75 (7.8%)	60 (6.3%)	65 (6.8%)	86 (9.0%)	51 (5.3%)

중기부와 조직위는 1,076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곧바로 120개 참여 기업을 엄선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결격사유를 검토(~8.27)하고, 2차 평가 (공개평가+전문성평가, ~9. 4)로는 선배 창업기업과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는 공개평가와 혁신성, 세계적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전문성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지막 컴업 조직위원회에서 9월 중 최종 120개사가 선정된다.

* 1차 평가(서류 평가)→ 2차 평가(공개평가+전문성 평가) → 최종 선정(조직위)

한편 이번 온라인 기업설명(IR)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120개 스타트업은 기업 홍보용 영상을 무료로 제작 지원하고 컴업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홍보 부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 구매자 등과 연계한 사업연결 투자상담회와 수출상담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선배 스타트업 및 동료 기업과 실시간 교류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이번에 선정되는 120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컴업 스타즈(COMEUP STARS)'라는 상표로 이름을 짓고 향후 컴업 2020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주인공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 해외 스타트업 전문가(7명)의 설문 결과와 컴업 조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

올해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변모한지 2회를 맞이한 ‘컴업 2020’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11월 19일 (목)부터 21일 (토)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컴업 (COMEUP) 2020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평가위원장을 맡은 컬리의 김슬아 대표는

“컴업 온라인 기업설명(IR)에 신청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원하면서 컴업을 대표하는 컴업 스타즈 (COMEUP STARS) 선정에 있어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요

- (목적)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확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일시·장소) '20.11.19 (목) ~ 21 (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대상) 스타트업, 대기업, VC 등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산업 트렌드 및 삶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 * 슬로건 : "Meet the Future - Post Pandemic"
 - ** 3대 주제 (Social System·Work·Life), 12개 세션 운영
- (비대면 온라인 중심) 온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
 - * 온라인 방송, 온라인 디지털부스, 온라인 IR 등
- (민관 협력)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활용하여 준비하기 위해, 컴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 (교류·협력) 글로벌 트렌드 및 12개 분야 미래 유망 산업별 키노트, 패널토크, 기업설명(IR)피칭, 투자상담회 등 교류·협력·투자의 장 마련
 - *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그랜드 챌린지, 비즈쿨 페스티벌 등
- (K-Startup Week) 11월 3째 주를 K-스타트업 주간으로 운영하고 민·관이 개최하는 창업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컴업 (COMEUP) 2020 추진일정 (안) >

구분	11/16(월)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개막식 및 메인 컨퍼런스				(개막식)		
스페셜 이벤트						
연계행사	K-Startup Week COMEUP 2020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4. 모빌리티 전북·제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 ☐ 제주, 개인용 충전기 공유를 통한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화
- ☐ 전북,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소방차·쓰레기 압축차 등) 활용기반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의 실증(8.27)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8.28)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제주·전북 특구 실증내용 >

특구	세부사업	실증 주요내용
제주 (8.27)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유희시간을 활용한 공유 사업 허가
전북 (8.28)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제주와 전북은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두 곳은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실증의 내용을 특구별로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희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

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이루어진다.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희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 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공유플랫폼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위탁·운영



본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다만,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1단계(30대 / 2개월), 2단계(60대, 누적 90대 / 7개월), 3단계(110대, 누적 200대 / 잔여기간)

아울러, 제주도는 10월 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주 도내에 거주하면서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며, 제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e-car@jeju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은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영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 : 22개 인증기준 적용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부품의 국산화도 고려하여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1단계 실증 (2020.8.28.)		2단계 실증 (2021.상반기)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
		 <참조용 이미지>	 <참조용 이미지>

올해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이에 추가해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제주,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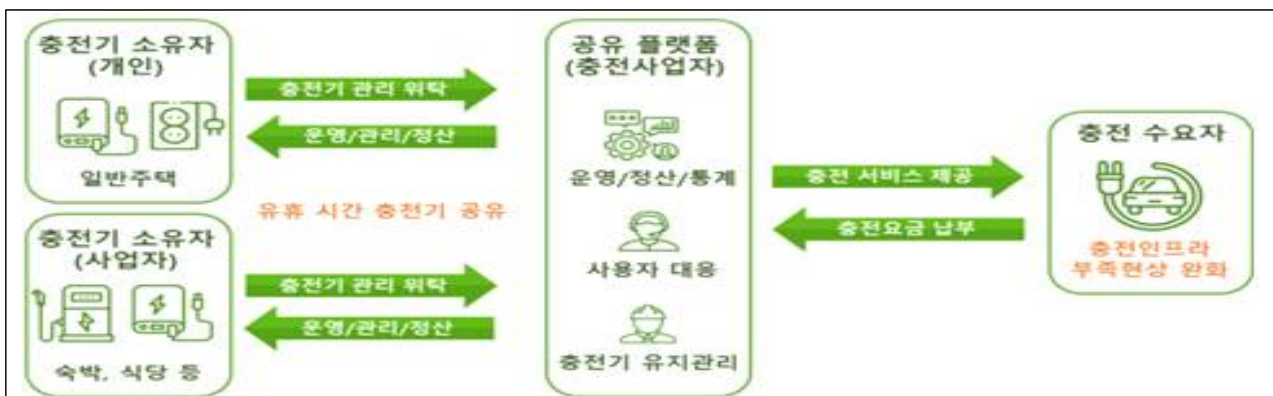
□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현황

- (실증 목적) 개인소유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충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유경제 검증
- (실증 기간) '20. 1월 ~ '21. 12월 *실증착수('20.8.27)
- (실증 구역) 인구밀집지역(공동주택, 비즈니스 빌딩 등), 유동인구 다수 지역 등

실증 단계	실증 기간	실증 지역	대상지	충전인프라 설치 수
1단계 (‘20.8월)	2개월 *조기 성과 확보 시 기간 단축 가능	인구 밀집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3개소 15개
			주차장	1개소 10개
			비즈니스 빌딩	1개소 5개
2단계 (‘20.10월)	7개월 *조기 성과 확보 시 기간 단축 가능	인구 밀집 지역, 유동인구 다수 지역	1단계 실증 결과 검토 후 대상지 선정	1단계 실증 결과 검토 후 수정 (60개, 누적 90개)
3단계 (21.5월)	잔여 기간 *조기 성과 확보 시 기간 연장 가능	인구 밀집 지역, 유동인구 다수 지역, 주요 관광지 등 제주 전역	2단계 실증 결과 검토 후 대상지 선정	2단계 실증 결과 검토 후 수정 (110개, 누적 200개)

□ 실증 대상

- (제품·서비스) 개인 또는 비(非)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플랫폼
 - 개인용 충전기에 통신모듈을 적용하여 공유플랫폼 연동
 - 위탁된 개인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운영(정산, 예약, 안내 등)
 - 충전기 공유를 통한 공유사업자 사업화 실증



참고 2

전북,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설명자료

□ 실증개요

- (실증목적)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 (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안전성 실증으로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 신설
- (실증착수) 2020. 8. 28.(금) 10:00 * 소방차 5대, 쓰레기 압축차 2대 주행
- (착수장소) 군산 소방서 인근 및 은파유원지 등

□ 단계별 실증 구역

실증	실증 기간	실증 지역	실증대상	비고
1단계	4개월 (20.8월)	군산소방서 인근, 은파유원지	소방차 5대 쓰레기 압축차 2대	차량 운행일지 및 고장이력 작성
	3개월 (20.9월)	역사박물관 등	쓰레기 압축차 3대	
2단계	5개월 (21.4월)	군산시 일대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	1, 2단계 실증 결과 검토 후 수정

□ 세부내용

- 주요 사항
 - 초소형특장차의 주행 안정성 및 좁은도로에서의 주행성 확인
 - 각 특장모듈별 사용능력 및 사용한계 확인
 - 사용자로부터 문제점, 개선점 및 사용성에 대한 의견 확보
 -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 도출
 - 특장차종별 실증 진행
 - 소방차 실증(군산 소방서 주변)
 - 화재 신고시 화재 규모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초소형 전기 소방차 투입 및 화재 진압 *작은 화재 규모, 일반 소방차 진압 불가 상황에 투입
 - 쓰레기 압축차 실증(은파유원지 등)
 -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유원지 등에서 실증
- ※ 1일 수거량, 주행거리, 특장모듈 개선점 등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5. 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지능형공방 지원 경쟁률 4.8:1 기록

- ☐ 소규모 제조업체(10인미만)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모집(3차 추정, 60개사)에 289개사 몰려, 4.8:1의 높은 경쟁률 기록
 - 9월 중 최종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 등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 발굴, '25년까지 1만 개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14일(금) 접수를 마감한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이하 스마트공방)에 소공인 289개가 신청해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로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도록 지원하여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이미 20개 소공인을 선정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도 디지털 뉴딜 과제(3차 추정)로 반영되어 9월 중 최종 60개를 추가 선정해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공방 선정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1개 제조업종의 다양한 분야 소공인이 신청하고, 경쟁률이 상반기(2:1)의 2배가 넘는 등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화에 소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120개), 서울 10.3%(30개), 인천 5.5%(16개) 등 수도권 지역의 관심이 많았으며, 충남 7.2%(21개), 대구·광주·대전 4.5%(각 13개)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했다.

< 지역별 신청현황 >

구 분	경기	서울	충남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북
업체수	120	30	21	16	13	13	13	13
구 분	강원	부산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세종	울산·제주
업체수	10	8	8	8	6	5	3	각 1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13.5%(39개), 기타제품 제조업 11.8%(34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3%(27개), 기타 기계과 장비 제조업 8.6%(25개) 순으로 신청했다.

< 제조업종(중분류)별 신청현황 >

구 분	식료품 (C10)	기타제품 (C33)	금속가공 (C25)	기타기계 (C29)	전자부품 (C26)	고무플라 스틱(C22)	전자장비 (C28)	기타
업체수	39	34	27	25	24	18	15	107
비 율	13.5	11.8	9.3	8.6	8.3	6.2	5.2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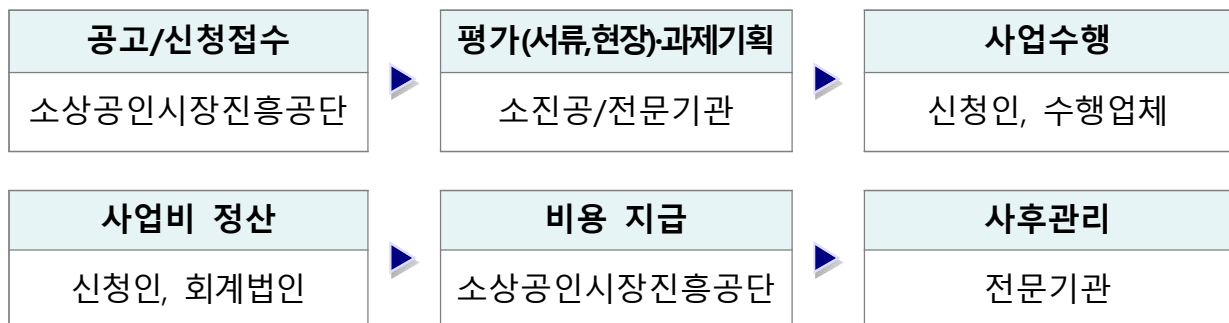
중기부 노기수 지역상권과장은 “올해 스마트공방은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우리 산업 전반의 제조혁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으로 지원하는 소공인 80개사를 스마트공방 표준모델로 만들고, 25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30억원, 6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0백만원 지원)
 -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우대선정)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 (추진절차) ① 평가(서류, 현장) → ② 선정 → ③ 과제기획 → ④ 협약
 - * (선정기준) 서류(40%), 현장평가(60%), 가점(5%) 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정
- (지원내용)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지원
 - (기획·컨설팅) 자체 진단 및 과제 설정이 어려운 소공인을 위해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수준 진단, 목표 설정, 과제 개발 등 지원
 - (개발비용)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 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 사업절차

- (평가절차) 서류평가, 현장평가 진행 후, 전문가를 통한 과제지원을 통한 서류 부담 완화 및 연내사업 추진 완료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6.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경연, '청청콘' 개최

☐ 스마트 헬스케어 등 6대 비대면 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진대회 개최

*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창업자

☐ 성공한 청년 대표(CEO)들이 청년 창업가를 발굴·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

*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 분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청청콘'을 열기로 하고 오는 8월 2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신선하고 기발한 감각이 평가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과 멘토단을 청년 선배 대표(CEO)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대회 이름을 '청청콘'으로 정했다.

*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교육 등 6대 비대면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 6대 비대면분야 >

- ① 스마트 헬스케어 : 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원격의료, 의료·건강관련 플랫폼 등
- ②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강의, 교육 매칭 플랫폼 등
- ③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 원격근무, 온라인홍보, 핀테크 등 스마트 금융 등
- ④ 생활소비 : 소비재(식품 등) 제조 온라인 판매, O2O 생활중개플랫폼, 스마트 상점, 전자상거래 등

⑤ 엔터테인먼트 : 게임, 콘텐츠, SNS 등 소통 등

⑥ 물류·유통 : 전자상거래 수요를 뒷받침하는 물류플랫폼·배송대행,
드론·무인기를 활용한 물류 등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6대 분야별로 10팀씩 총 6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를 통과한 60개팀은 선배 청년 스타트업 대표(CEO)가 4주간 멘토링을 직접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발표기술, 창업성공 비결 등을 주로 지도해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최종 발표에 대비하게 된다.

최종 발표는 선배 청년 스타트업 외에 국민심사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에서는 6대 분야별 3개팀, 총 18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 국민심사단 : 창업기업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모집(9월) 후 추첨을 통해 총 30인 선정

최종 18개 팀에게는 초기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청청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 배 경

- 청년이 보유한 비대면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콘테스트를 통해 겨루고 우수팀의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

□ 대 상 : 만 2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선정분야 : 6대 비대면 분야

*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등

□ 선정방식 및 내용

- (1차평가) 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총 120개팀 선발
- (2차평가) 선배 청년스타트업, 전문 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총 60개팀 선발
- (멘토링) 선배 청년 스타트업이 직접 선별한 후배 청년에게 발표스킬, 창업성공 노하우 등을 코칭 (4주 내외)
- (파이널 피칭) 선배 청년스타트업, 국민심사단, 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대국민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총 18개팀 최종 선발*

*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대상 1.2억원(6팀), 우수상 0.8억원(6팀), 장려상 0.5억원(6팀)

*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

□ 추진일정

- 공고·접수 (8월) → 서면평가(9월) → 발표평가(10월) → 멘토링(4주) → 파이널피칭(18개팀 선발, 11월) → 초기사업화자금 지원(11월중)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7. 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 ☐ 기존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기부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에 새롭게 참여
- ☐ 스마트 공장, 에듀테크,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추진하는 '마중(MS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8월 2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마중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앞글자를 활용하였으며, 협력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MS가 마중나가 모셔올 정도로 환영한다는 의미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구글과 함께 '창구'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해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협업 글로벌 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글과 함께 하는 '창구' 프로그램(4월)은 참여 스타트업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했고, 5월에는 엔비디아(N&UP), 7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정글)가 협업기업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참여하기로 해 중기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총 4개로 확대됐다.

'마중' 프로그램 지원규모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성장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을 연결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외 유통망이 연결돼 있는 공동 판촉 프로그램(IP Co-sell**)에 참여시켜 글로벌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높여 줄 계획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로 미국 뉴욕, 실리콘 밸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46개 도시에 위치, 한국은 서울에 '19년 개소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기업에게 컨설팅 및 체험형 실습교육, 디지털전환 설계 등을 제공

** (IP Co-sell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B2B 고객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스타트업의 아이템을 고객사와 공동 연구 및 판매, 마이크로소프트 영업팀에서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

< 마중 프로그램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도약기 스타트업의 기술 스케일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 (지원분야) AI (스마트 공장*, 바이오헬스, 에듀테크, 자율주행 관련)
 - *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효율화 등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
- (지원내용) 자금(최대 3억원) 및 기술 고도화,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20. 8. 21. ~ 9. 17. 18:00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온라인 신청

마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8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8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8. 비대면 건강관리, 최초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개시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와 세계 최초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개시

- ☐ 강원,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생체(심장)신호 모니터링' 실증
- ☐ 대구, 세계 최초 '인체 폐지방 추출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을 8월 20일 착수했고,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을 8월 31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로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증대상자 모집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실증에 들어간다.

*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고지, 기업이전 등

< 강원 & 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내용 >

특구 (실증착수)	사업명	실증 주요 내용
강원 (20.8.20.)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생체신호, 위치정보를 원격지 의료진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분석·대처* * 응급상황시 위치정보를 구조대에 전달 신속한 환자 처치 및 구조
대구 (20.8.31.)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재활용이 허용되지 않은 폐(廢)인체지방을 활용하여 바이오잉크, 창상피복제 등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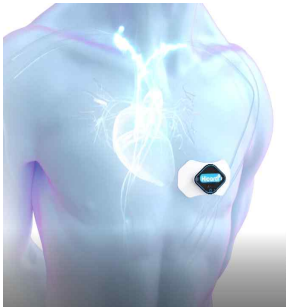
강원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주 소재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을 대상으로 병원 외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

중'이 이루어진다.

* (실증기간) 2021년 8월까지, (실증대상) 강원도 내 관광객 및 행사 참가자 2,000명

8월 20일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는 이용객 중 20여명을 대상으로 특구사업자[주)메쥔]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를 가슴에 부착 후 출렁 다리와 등산로를 1시간여 동안 이동하면서 심전도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의 원격모니터링센터에 전송한다.

원격모니터링센터는 실증참여자의 운동시간 동안의 심장 상태를 확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대를 통해 처치와 구조에 활용하거나 일상 생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패치형 심전계	모니터링 앱	모니터링 웹

그동안 국내에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과 시범사업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사업 수요발굴도 힘들어 관련 서비스 확산도 어려웠다.

이번 실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심전도 측정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직접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심장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세계 최초로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실증’이 이루어진다.

오는 8월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술연구용 인체태반유래 콜라겐(Sigma-aldrich 업체) 가격 : 5mg 당 최대 84만원 (20.8월),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수율 : 150mg/1kg

이번 실증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인체 폐지방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 액체형	창상피복제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특히 이번 인체유래콜라겐 실증에서는 안전한 의료제품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 연구동의서 획득, 미생물 오염과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미감염 여부 확인, 기증자 비식별화와 추적 시스템 마련,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등의 사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갖춘 실증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강원과 대구의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들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성과 유망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벤처캐피탈(VC) 투자유치 : 메쥬(강원) 10억원('19.11월), 엔도비전(대구) 27억원('20.2월)

실례로 강원 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특구사업자는 패치형 심전계를 활용한 심전도 검사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20.5월)받아 임상 진료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북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대구에서 추진되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실증은 향후 우리나라가 콜라겐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실증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확보와 첨단의료산업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 1

「강원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 실증 개요도



실증 활용 기기(하이카디) 생체신호 실시간 분석 및 사용자 위치정보 확인

다중 사용자 실시간 모니터링

□ 사업자별 실증현황

세부사업명	기관명	주요 수행역할	실증제품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주)메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 개발 · 사용자용 모바일 앱 개발 · 실증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식약처 인허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용 웹뷰어 및 리포트 서비스 개발 ·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지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신호 모니터링 · 임상 전문의 자문 · 기기, 서비스 효용성 검증 	

참고 2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 실증 개요도



□ 사업자별 실증현황

세부사업명	기관명	주요 수행역할	실증제품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실증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물 사용 IRB 심의 ▶ 인체유래 콜라겐 기술 개발 및 적용 제품 시험 평가법 구축 ▶ 인체유래 콜라겐 원자재 공급체계 구축 	
	(주)엔도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창상피복재 기술 개발 	
	(주)지티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창상피복재 기술 개발 	
	(주)바이오잉크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바이오잉크 기술 개발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29. K스타트업의 별,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120개 기업 선정

- 컴업 메인 프로그램, 온라인 투자 설명회(IR) 참여 스타트업 120개 선정
 - 서면평가, 공개·전문성평가 등 총 3단계의 평가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120개 최종 선정 (로켓리그 84개, 루키리그 36개)
 - 120개 중에서 국내 59개 (49.2%), 해외 61개 (50.8%)가 선정됐으며 해외는 이스라엘 8개, 미국·독일 7개, 싱가포르 6개 순
- 11월 컴업 행사기간 중, 투자설명회(IR)영상 제작 및 홍보, 글로벌 투자자 대상 온라인 피칭 및 네트워킹 등 사업화 촉진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2020년 컴업 조직위원회 (민간 조직위원장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이하 조직위)는 올해 컴업 2020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투자설명회(IR) 참여기업 (COMEUP STARS) 1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컴업 온라인 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은 크게 ‘로켓리그’와 ‘루키리그’ 2가지로 구분해 진행할 계획이다.

‘로켓리그’는 12개 분야*에 부합한 산업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 우수 창업기업, ‘루키리그’는 창업 3년 이내로 누적 투자유치 5억원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 12개 분야 : K-방역, 정책,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오픈 이노베이션, 인공지능(AI)&로봇, 원격근무, 제조, 커머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유통

중기부와 조직위는 올해 11월 19일~21일 (3일간) 개최되는 컴업 행사에서 온라인 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온라인 신청·접수 (7.24~8.23)를 마감한 결과 전 세계 89개국에서 1,076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최종 120개 모집에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이들 1,076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서류), 2차 평가(공개평가+전문성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컴업 조직위 의결을 거쳐 최종 120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컴업 스타즈 최종평가 결과 총 120개 혁신 스타트업이 선정됐고 로켓 리그는 12개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84개사, 루키리그는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 36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국내 (59개, 49.2%)보다 해외 스타트업 (61개, 50.8%)이 더 많이 선정됐다. 리그별로 살펴보면, 로켓리그는 국내 36개 (42.9%), 해외 48개 (57.1%), 루키리그는 국내 23개 (63.9%), 해외 13개 (36.1%)로 나타났다.

< 컴업 스타즈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로켓리그		루키리그		계	
	개수	비율 (%)	개수	비율 (%)	개수	비율 (%)
계	84	100	36	100	120	100
국내	36	42.9	23	63.9	59	49.2
해외	48	57.1	13	36.1	61	50.8

특히 해외에서 신청한 스타트업 중에서 총 26개국 61개가 선정됐고 이스라엘 (8개)이 가장 많고, 미국·독일 (7개), 싱가포르 (6개) 순이다.

< 컴업 스타즈 국가별 선정 현황 (단위: 개) >

국가명	기업 수	국가명	기업 수	국가명	기업 수
① 이스라엘	8	⑤ 인도	5	⑨ 스위스	2
② 미국	7	⑥ 스페인	5	⑩ 기타(17개국)	17
③ 독일	7	⑦ 인도네시아	2		
④ 싱가포르	6	⑧ 방글라데시	2	합 계	61

평균 업력은 3.4년이고, 1~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이 47개사 (39.2%)로 가장 많으며, 3~5년 성장기업은 27개사 (22.5%)이다.

< 컴업 스타즈 업력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업력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9년	9년 이상	계
업체수 (개)	23	47	27	9	9	5	120
비율 (%)	19.2	39.2	22.5	7.5	7.5	4.2	100

올해 새롭게 선정된 120개 컴업 스타즈의 평균 투자유치는 58.3억원이며, 미국 Spire Global (1,800억원), 스페인 Wallbox (300억원) 등 300억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도 6개사*에 달해 컴업이 전 세계 탑티어 (top-tier) 스타트업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20년 컴업 스타즈 3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 (미국) Spire Global 1,800억원, (스페인) Wallbox 300억원, (한국) 스트라드비전 506억원, (한국) 모노리스 462억원, (미국) Sense Photonics 396억원, (러시아) Healbe Corporation 360억원

국내의 경우 506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자율주행용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스트라드비전', 462억원 투자유치 받은 신개념 테마파크 플랫폼 업체인 '(주)모노리스'도 컴업 스타즈에 선정됐다.

< 컴업 스타즈 투자유치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투자유치금액	10억원 미만	10~50억원	50~100억원	100~300억	300억 이상	계
업체수 (개)	69	19	19	7	6	120
비율 (%)	57.5	15.8	15.8	5.8	5	100.0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120개 컴업 스타즈는 컴업 누리집 (www.kcomeup.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컴업 스타즈에게 기업 홍보용 영상을 무료로 제작 지원하고 컴업 누리집 등에 온라인 홍보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및 바이어 등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투자상담회와 수출상담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동료 기업과 실시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올해 컴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과 메인 컨퍼런스는 당초 계획대로 3일간 (11.19~21)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고 투자설명회(IR),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는 매칭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1~2주일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컴업 (COMEUP) 2020 공동조직위원장으로 “COMEUP STARS” 평가위원장을 맡은 켈리의 김슬아 대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컴업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된 컴업 스타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면서, “**이번 컴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세계적인 혁신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컴업 스타즈 최종 선정결과 (유형별)

□ 총괄 현황

구분	계		로켓리그		루키리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계	120	100.0	84	100.0	36	100.0
국내	59	49.2	36	42.9	23	63.9
해외	61	50.8	48	57.1	13	36.1

□ 국가별 (26개국)

국가명	선정기업수	국가명	선정기업수	국가명	선정기업수
① 이스라엘	8	⑤ 인도	5	⑨ 스위스	2
② 미국	7	⑥ 스페인	5	⑩ 기타 (17개국)	17
③ 독일	7	⑦ 인도네시아	2		
④ 싱가포르	6	⑧ 방글라데시	2	합 계	61

* 신청·접수 (개사) : 인도 (63) →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46) → 스페인 (41) 순

□ 리그별

○ 로켓리그 (84개)

구분	세션	국내		해외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계		36	42.9	48	57.1	84	100.0
1	K방역	1	14.3	6	85.7	7	100.0
2	교육	4	44.4	5	55.6	9	100.0
3	디지털헬스케어	5	71.4	2	28.6	7	100.0
4	로봇&AI	6	85.7	1	14.3	7	100.0
5	리테일	2	28.6	5	71.4	7	100.0
6	엔터테인먼트	2	28.6	5	71.4	7	100.0
7	오픈이노베이션	3	42.9	4	57.1	7	100.0
8	원격근무	3	42.9	4	57.1	7	100.0
9	정책	3	60.0	2	40.0	5	100.0
10	제조	1	14.3	6	85.7	7	100.0
11	커머스	3	42.9	4	57.1	7	100.0
12	환경	3	42.9	4	57.1	7	100.0

○ 루키리그 (36개)

구분	국내		해외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루키리그	23	63.9	13	36.1	36	100

□ 개요

- (목적)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확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일시·장소) '20.11.19 (목) ~ 21 (토), DDP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개최 등 일시·장소 등 변경 가능
- (참석대상) 스타트업, 대기업, VC 등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산업 트렌드 및 삶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 슬로건 : "Meet the Future - Post Pandemic"
** 3대 주제 (Social System·Work·Life), 12개 세션 운영
- (비대면 온라인 중심) 온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
* 온라인 방송, 온라인 디지털부스, 온라인 IR 등
- (민관 협력)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활용하여 준비하기 위해, 컴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 (교류·협력) 글로벌 트렌드 및 12개 분야 미래 유망 산업별 키노트, 패널토크, IR피칭, 투자상담회 등 교류·협력·투자의 장 마련
* AI 챔피언십,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그랜드 챌린지, 비즈쿨 페스티벌 등
- (K-Startup Week) 11월 3째 주를 K-Startup Week으로 운영하고 민·관이 개최하는 창업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컴업 (COMEUP) 2020 추진일정 (안) >

구분	11/16(월)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개막식 및 메인 컨퍼런스				(개막식)		
스페셜 이벤트 등 부대행사	K-Startup Week COMEUP 2020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0.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성과 발표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성과 및 세부 지원 과제 발표

-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수출 및 비대면품목 수출은 대폭 증가
- ☐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수출에 크게 기여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관련 상반기 지원성과 및 향후 추진할 세부 과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14일(월) 오전 8시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기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세부 정책과제를 보완해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출 여건에 대응하여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외 온라인마케팅과 한류마케팅 등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했으며, 이동 제한으로 인한 물류관련 애로 해소 등을 추진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망품목에 대한 중장기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다수의 성과사례를 창출했다.

< 참고 : 주요 성과 사례 >

- (화상상담회) 수출유관기관(중진공, 중앙회, 무협)·지방청 협업 통해 1천여개 기업

참여, 2천여건 상담매칭 및 2억달러 규모 상담진행(4~7월, 총21회)

- 사후 점검결과, 현재 131개 기업 1천8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 달성

A사 (다기능 조리기)	◦ 화상상담회 참여 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말레이시아 총판 구매약정(2백만달러 규모), 현재 론칭용 선주문 100대 발송
B사 (패션잡화)	◦ 일본 위주의 소량 온라인판매를 해오다가 화상상담회를 통해 인니로 시장다변화 추진, 현재 14종 구두 200여켤레 샘플오더 진행중

○ (해외몰 입점·판매)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마케팅 연계지원 등을 통해 참여기업 평균 수출 400% 증가

- 특히, 내수기업이었다가 해외몰 입점으로 첫 수출 달성한 기업 상당수가 7월 기준 수출액 1만 달러 이상을 기록

C사 (면마스크)	◦ 면마스크 전문기업, 아마존 입점 후 전년대비 판매실적 대폭 증가(19년도 3백만원→20.8월 현재 420백만원)
D사 (소형가전)	◦ 소형 마사지기fmf 주력제품으로 하는 뷰티·라이브가전업체, 큐텐(동남아) 입점 후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8,787% 증가

○ (브랜드K) 국가대표 브랜드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 및 브랜드K관, 한류연계 마케팅 등 지속적 브랜드 노출로 평균 수출 증가율 22% 기록

E사 (김스낵)	◦ 브랜드K 선정 후 바이어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등 해외 판로가 크게 확대(7개국 협의 중), 전년대비 수출 8,000% 증가
F사 (위생장갑)	◦ 브랜드K 선정으로 인한 인지도 및 신뢰도 기반으로 사우디 병원 납품 계약달성(1억장, 18억원 규모)

○ (K-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20.6~7월)에서 K-팝과 라이브커머스를 결합한 K-세일 방식으로 실제 판매까지 창출하는 성과를 확인

* 동행세일 기간 중 온라인기획전 등 비대면 유통을 통해 259.4억원 매출기록

- 왕홍 라이브커머스(7.10~12일) 접속자 176만명, 동행세일 기간 한류 마케팅 등이 연계된 해외 온라인몰 판매 7.3억원 기록 등

G사 (화장품)	◦ 동행세일 기간 해외 온라인몰(큐텐) 특판전을 통해 1달간 샴푸 1,300여개 판매 후 현재 현지법인 설립 추진 등
H사 (손세정제)	◦ 중국 티몰 입점 및 수출액 4백만달러, 전년동기비 1,556% 증가

중기부는 상반기 추진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확대·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세부적인 4대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4대 과제

① (비대면 방식 고도화) 오프라인 현장지원 연계 등 화상상담회 고도화

-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 결합, 자상한기업 등 협업 네트워크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제품 전용 오프라인 쇼룸 구축 등
- 해외 전시회 비대면 참가지원(현지전문가 활용) 및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중심의 테마별·지역별 화상상담회 상시운영

② (비대면 거래 확대) 해외온라인몰 판매지원 및 K-세일 방식 글로벌 진출

- 국내외 온라인몰 연계, 해외온라인몰 입점지원 개선을 통한 내수 기업의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및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
- 브랜드K, 한류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 등 활용 홈쇼핑·온라인몰 홍보강화

③ (비대면 新동력 발굴·육성) 온라인·비대면 관련 유망스타트업 진출지원

- 온라인·비대면 유망스타트업의 발굴-테스트베드지원-현지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전방위 지원

④ (기반 확충) 지원시스템 체계화·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 빅데이터 활용 진출전략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화상회의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기반 확충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중 종합적인 ‘비대면·온라인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1.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 ☐ 지원규모는 총1,567개소로 일반형 (1,562개소, 1,200만원이내)과 확장형 (5개소, 5억원이내)으로 구분해 지원
- ☐ 신청 방법은 2020.9.14.(월)~9.28(월)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 (www.gosims.go.kr)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9월 14일(월)부터 9월 28일(월)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수요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년 3차 추경으로 234억원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수요기관을 선정해 화상 회의 장비 구축, 국산 SW 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해 원격근무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로 기존에 사용 중인 회의실에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상시 개방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다.

* (예시)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 등
지원규모는 총1,567개소로 일반형(1,562개소, 1,200만원이내)과 확장형(5개소, 5억원이내)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전국 1,562개소에 영상장비, 모니터, 스피커폰,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으로 개소당 1,200만원이내로 지원한다. 이 중 50개소는 1~2인실용 별도 공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확장형은 지역 거점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시간 수출상담회, 투자설명회(IR)가 가능하도록 고화질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등 5억원이내로 설치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원격근무 등 비대면 업무를 촉진하여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9월 14일(월)부터 9월 28일(월)까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절차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567개소를 선정해 연내 구축을 완료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창업진흥원 누리집에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 하면 된다.

일반형 1,562개소 선정결과는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융합 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장형 5개소는 창업진흥원 누리집에서 10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면서,

“중소기업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內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 대상 : 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수출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 등

□ 선정규모

- 일반형 : 1,562개소 이내 (일반형 1,512개소, 일반형+스마트워크 부스 50개)
 - 일반형 화상회의실 중 50개소는 1~2인실용 별도 공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를 추가 지원 (단위: 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263	264	75	75	75	45	75	75	75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계
75	75	45	75	75	75	75	45	1,562

* 시·도별 수요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 확장형 : 5개소 이내 (대규모 수출·투자상담회, 지역거점기능 역할 수행)

-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SW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일반형	일반형 (1,512개) + 스마트 워크부스 (50개)	■ 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	<소형> 8백만원	소·중·대 회의실 中 택 1
				<중대형> 12백만원	
		■ 스마트워크부스 추가 설치 지원	■ 1~2인실용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부스 추가설치	8백만원	50개소
확장형 (5개소)		■ 대규모 실시간 수출 ·투자상담회 개최	■ 고화질·고음향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구축	5억원	나라장터 조달입찰

- **추진일정** : 수요기관 모집(8.26~9.28) → 선정평가(9.29~10.16) → 공급기업 모집(9.29~10.16) → 협약체결(10.19~10.23) →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매칭(10.26~30) → 구축(11.2~12.11) → 사업비 정산(12.11~)

참고 2

일반형 화상회의실 구축 선정평가 기준

□ 추진원칙

구분	내용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중요재산 관리 등), 이용실적 관리 등의 타당성
개방성	건물 내부 접근 용이, 외부와 네트워킹 원활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밀집,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서면평가 (1차 평가)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사후 관리 및 이용실적 관리의 타당성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현장평가 (2차 평가)	개방성	화상 회의실 구축 예정 입지 및 교통 접근성
		화상 회의실 개방 여부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등 밀집 여부 및 입주기업 여부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서면평가) 화상회의실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부적격) 처리

* (현장평가) 화상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 항목의 구성 및 점수 배점은 운영기관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 가능

참고 3

확장형 화상회의실 구축 선정평가 기준

□ 추진원칙

구분	내용
구축계획	화상회의실 구축방향의 적절성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대응자금	정부지원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사업수행 의지 및 책임성 확보)
활용성	서면평가 :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현장평가 : 지역 거점기능 수행 정도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중요재산 관리 등), 이용실적 관리 등의 타당성
개방성	건물 내부 접근 용이, 외부와 네트워킹 원활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밀집,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서면평가 (1차 평가)	구축계획	화상회의실 구축 예정 조감도, 평면도, 공간구성도의 적합성	30
		화상회의실 필수 구성요소(장비, 흡음벽 등) 산출금액의 적절성	
	대응자금	정부지원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	20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30
	사후관리	사후 관리 및 이용실적 관리의 타당성	20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소 계			100
현장평가 (2차 평가)	개방성	화상 회의실 구축 예정 입지 및 교통 접근성	30
		화상 회의실 개방 여부	
	활용성	지역 거점기능 수행 정도	40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등 밀집 여부 및 입주기업 여부	30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소 계			100

* (서면평가) 화상회의실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해 서류(필요시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부적격) 처리

* (현장평가) 화상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참고 4

시도별 신청문의 담당자 연락처

□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최예은	주임	02-944-6052	dpdms2318@seoul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331-0573	philia@k-sca.or.kr
경기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500-3076	dhl@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539-5044	arulee@gd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백유현	대리	031-888-5524	paiku@daum.net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유동식	과장	032-260-0613	dsyoo@itp.or.kr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서완교	책임	042-930-4882	mark2151@djtp.or.kr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김수영	연구원	044-850-2147	ksy88@sjtp.or.kr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이정현	과장	041-589-0634	fangse@ctp.or.kr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김경수	책임	043-270-2211	kskim@c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손대수	책임	053-757-4141	dsson@ttp.org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박시찬	주임	053-819-3064	psc34@gbtp.or.kr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동기	연구원	051-320-3681	sense742@btp.or.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최선아	연구원	052-219-8623	csa1407@utp.or.kr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허태영	선임	055-259-3373	yeshty@gntp.or.kr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박래열	책임	062-602-7221	daviz@gjtp.or.kr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장미정	선임	061-729-2541	jarose91@jnntp.or.kr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김재희	선임	063-219-2146	jhjh1205@jbtp.or.kr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조정민	연구원	064-720-3031	jungmin@jejutp.or.kr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구축 지원

□ 확장형 신청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전담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창업진흥원	조요한	대리	042-720-4548	yhjo@kised.or.kr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2.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선정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선정, (주)주스앤그로서리 대상

○ 매출과 고용 두 마리 토끼 잡은 '(주)주스앤그로서리' 등 5개사 선정

* 수상업체 : (주)주스앤그로서리, (주)우리집공간컨설팅, (주)더몽, 동동, (주)에이앤바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주)주스앤그로서리 등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과정) 7월20(월)부터 8월7일(금)까지 접수된 47건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된 틈새시장을 겨냥한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현재까지 5,000개사가 동 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혁신형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창업 성공 사례를 통해 주부·청년·재창업 희망자 등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성공의 노하우 전수와 창업 도전의 용기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에는 창업 2년 만에 매출 8억 원(직원 11명)을 올린 우수 기업으로 성장한 (주)주스앤그로서리(조철호 대표)가 선정됐다.

* ('18년) 매출 1.6억원, 고용 1명 → ('20년) 매출 8억원, 고용 11명

최우수상은 최근 tvN의 '신박한 정리'에서 공간컨설팅 전문가로 출연 중인 이지영 대표((주)우리집공간컨설팅)가 선정됐다. 창업 준비금 50만원과 생활 혁신형 자금을 발판으로 매출 6억원, 직원 28명(상용근로자 4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지영 대표는 공간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관련 아카데미 운영도 준비 중이다.

* (공간컨설팅) 인테리어 부분공사, 정리정돈, 가구소품 구매대행 등 주거 서비스 지원

또 다른 최우수상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주)더몽(나윤도 대표)으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자로 선정돼 매출과 고용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18년) 매출 1.3억원, 고용 2명 → ('20년) 매출 3.3억원, 고용 6명

우수상은 스마트폰 통화 시 주변 소음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음 방지 마이크를 개발한 동동(김동우 대표)과 반려동물 노화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에이앤바이오(이소윤 대표)가 선정됐다.

우수 사례 기업 5개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과 함께 해당 기업과 제품을 TV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성장 컨설팅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받게 된다.

중기부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생활 혁신형 창업프로그램은 소자본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성실한 실패는 융자 상환을 면제 함으로써 실패 부담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주부, 청년, 재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창업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생활 속 혁신 아이디어가 예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1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 기업 소개

(대상) 주스앤그로서리

- 조철호 대표, 17.6월 창업
- 과일·채소만을 사용한 건강 주스 제조
- 매출 8억원, 고용 11명



제품 패키지

(최우수상) ㈜우리집공간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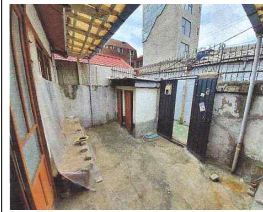
- (이지영 대표, 17.10월 창업)
- 공간컨설팅(인테리어 부분공사, 정리정돈 등) 주거 서비스
- 매출 6억원, 고용 28명(상용 4명, 일용 24명)



tvN 신박한정리 전문가 출연

(최우수상) ㈜더몽

- (나윤도 대표, 18.5월 창업)
-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 매출 3.3억원, 고용 6명



주택 개조 (전, 후)

(우수상) 동동

- (김동우 대표, 19.7월 창업)
- 음향 관련 스마트 기기 제조
- 매출 1.1억원('20년 상반기)



생산 제품

(우수상) ㈜에이앤바이오

- (이소운 대표, 18.11월 창업)
-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제조
- 매출 20억원



강아지 관절영양제



강아지 유산균껌

□ 사업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000만 원 융자 지원
- 융자실행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 성공불융자(용어정의) : 해외 자원개발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제도(실패 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지원 규모 : 1,000명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 (청년우대) 39세 이하 신청자는 평가시 가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 * (지원제한) 음식점, 도소매업 등 과밀업종, 유흥·향락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원칙적으로 제한

< 기술창업 및 생계형 창업과 비교(상대적 개념) >

생계형 창업	생활혁신형 창업	기술혁신형 창업
과밀 업종	생활 틈새시장에 기반한 아이템	고급 전문기술에 기반한 아이템
창업후 시장진입	창업후 시장진입(즉시 매출)	인큐베인팅 2~5년후 시장진입·투자
과밀창업으로 폐업가능성 높음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 1개 아이템으로 다수 창업가능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 성공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큼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3.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 ☐ 규제혁신의 중심 규제자유특구 그간의 발자취 담아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 1차(19.7월 부산 등 7개 특구), 2차(19.11월 광주 등 7개 특구), 3차(20.7월 충남 등 7개 특구)

또한 특구 내 공장설립 등 3,169억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 투자유치(3,169억원) : 경북 특구(1,964억원), 전남 특구(1,183억원), 충북 특구(22억원)

VC투자(402억원) : (주)딥바이오 140억원, (주)코인플러그 75억원, (주)휴레이포지티브 45억원 등

공장준공(13개사) : 전남 (주)캠시스(19.9, 준공), 울산 (주)RTX(19.11, 준공), 경북 (주)에코프로GM(20.2, 착공) 등

기업이전(100개사) : 1차 특구 58개사, 2차 특구 42개사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 기대와 기업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한 3차 지정('20.7)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 [1차]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 [3차]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생동감 있는 특구의 현장 모습과 실증제품 사진, 특구의 의미를 효과 있게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FOCUS)' 등 백서를 읽는 중간중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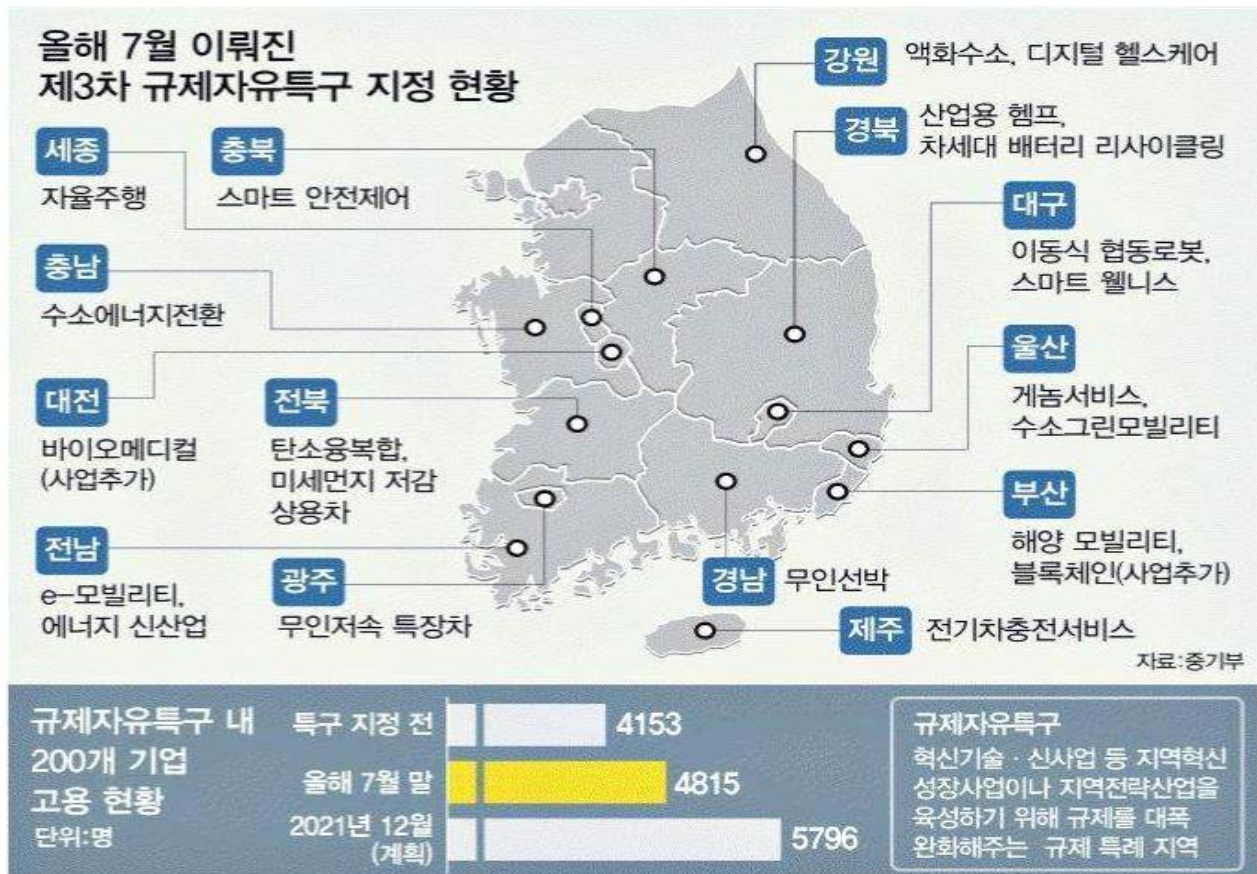
9월 15일(화)부터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하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4.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



- 지난해 83개 규제특례 부여받아 실증 추진 중인 특구 내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15.9%) 일자리 창출
 - 타 지역에서의 기업 이전으로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 투자 유치, 공장 준공, 기업 이전 등 가시적 성과
 - 13개 신규 공장 설립 등 위한 3,169억원 투자유치와 402억원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사 특구 내로 기업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작년 1차·2차로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의 '20년 7월말 기준 200*개 특구사업자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명(15.9%)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방법 : '19년에 지정된 1차·2차 특구사업자(기업 등) 246개사 중 병원, 공기업 등 (46개사)을 제외한 200개사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및 계획 >

특구 지정 전(명)		'20. 7월말(명)	고용증가(명)	'21년 12월 계획(명)
1,181('19. 6월말*)		1,476	295(24.9%)	1,769(+293)
2,972('19.10월말**)		3,339	367(12.3%)	4,027(+688)
계	4,153	4,815	662(15.9%)	5,796(+981)

※ 1차 특구지정('19.7월, 부산 등 7개 지역), 2차 특구지정('19.11월, 광주 등 7개 지역)

특히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최다 고용증가(98명)를 기록하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산 수소특구(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51명) 특구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두드러졌다.

* 1차 특구 : 대구(81명), 전남(54명), 강원(41명), 부산(38명), 충북(33명), 경북(25명), 세종(23명)

* 2차 특구 : 전북(98명), 울산(63명), 대전(51명), 광주(48명), 제주(43명), 경남(35명), 전남(29명)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00개)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262명)로 지역으로의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는 물론 규제자유 특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규제자유특구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효과 >

	1차 지정 특구							2차 지정 특구						
	전남	부산	충북	대구	세종	강원	경북	울산	제주	전남	광주	전북	경남	대전
고용증가 (262명)	52	27	24	17	13	10	2	37	31	29	15	4	1	-
계	145명							117명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1.9%(542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제자유특구) 제조업 내 고용증가 주요 3대 분야 :

- ①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129명, 14.7% ↑)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6명, 20.5% ↑)
- ③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42명, 5.1% ↑)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 고용현황 >

구 분(대분류)	특구 지정전(명)	'20.7월말(명)	고용증가(명)
제조업	2,702	3,022	320 (48.3%)
정보통신업	280	383	103 (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7	535	58 (8.8%)
기타	694	875	181 (27.3%)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이며 정규직 568명, 비정규직 94명을 고용해 고용품질에서도 긍정적 성적을 올렸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14.2%(94명), 창업 후 7년 이상이 71.6%(474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 폭이 컸다.

향후 특구사업자는 '21년 말 실증 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 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 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성과

분야	시·도	주요 성과
투자유치 (3,169억원) ※ 특구내 공장설립 등	경북(1차) (1,96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건설(주)(배터리 재활용 공장) 1,000억원 투자MOU 체결('20.1월) ▶ (주)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원 투자MOU 체결('19.12월) ▶ (주)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원 투자MOU 체결('19.12월) ▶ (주)엔씨이노션(ESS 생산) 34억원 투자MOU 체결('20.3월) ▶ (주)에코프로지이엠(실증Pilot 공장, 전구체 생산라인) 730억원, 투자('20.2월)
	전남(1차) (1,18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캠시스 433억원('19.9월), (주)대풍EV자동차 107억원 투자('20.6월) ▶ (주)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643억원 투자MOU체결('20.6월) * (주)KST일렉트릭 300억원, (주)성지예스코 123억원, (주)코리아하이테크 100억원, (주)DS이노베이션 60억원, 마스타전기차(주) 60억원(~'23년까지)
	충북(1차) (22억원)	▶ 인투카오스(주) 22억원(스마트차단제어 장치 개발) 투자MOU 체결('20.5월)
VC투자 (402억원)	부산(1차) (12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코인폴리그 75억원('19.10월) 투자 유치 ▶ (주)현대페이 45억원('19.12월), 5억원('20.8월)투자 유치
	강원(1차) (5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메쥔 10억원 투자 유치('19.11월) 및 북미시장 진출 예정('21.상) ▶ (주)휴레이포지티브 45억원 투자 유치('19.10월)
	대구(1차)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엔도비전 27억원 투자 유치('20.2월) ▶ (주)제나 12억원 투자 유치('20.6월) ▶ (주)하이드리솔루션 11억원 투자 유치('20.6월)
	대전(2차) (140억원)	▶ (주)딥바이오 120억원('20.3월), 20억원('20.6월) 투자 유치
	울산(2차) (32억원)	▶ (주)빈센 32억원 투자 유치('20.8월)
기업유치 (100개) ※ 총 246개 특구사업자 참여	1차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특구 총 58개 기업 이전 완료 * 부산(3), 대구(16), 세종(7), 강원(4), 충북(9), 전남(17), 경북(2) • (세종) (주)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완료('20.3월) (주)오토노머스2x(前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 인력) 신규 참여('20.5월) • (경북) (주)포엔(대용량 배터리팩 생산) 등 11개 사업자 신규 참여('20.7월)
	2차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특구 총 42개 기업 이전 완료 * 광주(6), 대전(1), 울산(12), 전남(9), 전북(2), 경남(2), 제주(10)
기반조성 (13개 공장)	전남(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캠시스 공장 준공('19.9월) 및 생산라인 가동('20.9월 예정) ▶ (주)대풍EV자동차 공장 준공('20.6월) ▶ (주)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공장 착공('20.3월~'21.8월)
	경북(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코프로GEM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 GS건설, (주)피엠그로우 등 4개사 착공 준비 중('20.1월~)
	울산(2차)	▶ (주)RTX(수소연료전지 촉매 개발업체) 생산 공장 준공('19.11월)
인력집중	부산(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한 전문인력 집중 * 부산대 內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이 확정('20.4월, 과기부 공모사업)되어, 블록체인 관련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예정('20~'23년)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5.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개경쟁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 (참석) 산업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문화부·복지부·방사청·산림청·중기부·특허청·해수부·행안부·환경부 등 15개 부처.청
-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능화 제고(Smart-up) · 속도 제고(Speed-up) · 규모 제고(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 ❶ **지능화 제고**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 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연구개발성과 창출
- ❷ **속도 제고** : 기술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 연결 기반 조성
- ❸ **규모 제고**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진출 · 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 · 인증 지원 및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 ❶ 시장이 원하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 · 투자연결 연구개발 확대**
 - ▶ 민간투자를 통한 선시장성 검증→후정부투자 방식의 연구개발 도입('21~'28, 1,925억원)
- ❷ **국제공급망(GVC) 연계 해외 연구개발 협력관계 강화**
 -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국제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 ❸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 ❹ **141개 기술거래기관 · 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 · 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인공지능 기술평가 · 기술연결 시스템 구축**
- ❺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연구개발 확대**
 -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테크 브리지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 ❻ 외부기술도입 · 기술지주회사 설립 · 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기금 조성('20~'22)**
- ❼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 ⑧ 우수기업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개발 샌드박스’ 도입
 - ▶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 ⑨ 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연구개발 확대
- ⑩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녹색기술 → 삭제)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이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붙임 2.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붙임 3.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전체본(별첨)

□ 회의 개요

- (목적)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공유
- (일시) 9.15(화) 15:00-16:30(90분)
- (장소) 온나라 영상회의
- (참석대상)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소관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한 **15개 부처**
 - *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과,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중기부 기술보호과,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농진청 연구성과관리과, 산림청 산림정책과
- (회의운영) 7차 계획 요약본 보고 후 부처별 향후계획 공유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회의 소개 및 인사 말씀	산업부
15:05-15:15('10)	7차 계획 보고	산업부
15:15-16:00('45)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	참석부처
16:00-16:25('25)	토 론	참석부처
16:25-16:30('05)	맺음 말씀	산업부

* 부처별 '17~'19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실적 및 '20~'22 추진계획 5분 내외 발표

1 추진 배경

- ◆ 기술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 촉진과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수단

* 고용증가율('07→'12) : 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 (응용경제학회, '15)

- 과학기술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新사업→新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방안 마련

*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현재 7차, '20~'22년)

2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 ◆ 국가 R&D의 기술이전·사업화 양적 성과는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인 질적 성과는 정체

- 국가 R&D 성과의 직접사업화(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및 기술이전 건수는 연간 26,171건, 연평균 5.4% 수준으로 증가 추세('14~'18)

* 기술이전의 최종 목적이 사업화인 만큼 직접사업화와 별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집계

- 기술료 징수액 역시 연간 2,800억원 규모로 연평균 5.7% 수준 증가('14~'18)

- 양적 측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건당 기술료 수입은 정체('14년 9.1억원→'18년 9억원) 되고 있어 질적 수준 개선 필요

* 기술료 수입 : R&D 성과를 활용해 직접사업화 하거나 기술 이전하여 발생한 수입에 기반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사업화(기술이전 포함) 건수 및 기술료 징수액('14~'18)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화 건수	21,205	20,088	28,025	32,994	26,171
기술료 징수액	2,311	3,169	2,663	2,400	2,891
건당 기술료 수입	9.1	6.3	10.5	13.7	9.0

※ 출처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KISTEP, '19)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외부기술 도입(Buy R&D) 제도적 기반 마련, NTB를 통한 기술공급 확대 및 부처별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 R&D 현물인정 기준에 외부기술 도입을 포함*, 기술 구매 유인 제고

* 산업기술혁신사업규정('16)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개정('17)

-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기술을 거래하는 문화 조성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비밀로 관리"로 완화

** 고의로 특허·영업비밀 침해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 '19)

- 공공 R&D 거래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 활성화*

* NTB 등록 기술(누적, 건) : ('15) 94,776 → ('16) 157,666 → ('17) 221,071 → ('18) 248,980

- 부처간 R&D 사업 연계*를 통한 시장진출 성과도출 지원

* 부처간(과기부 : 원천 - 산업부 : 응용개발)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33개 과제 지원('17~'19)

◆ (한계)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R&D, 기술이전 제도의 경직성, 자금지원 어려움 등이 제기

- 양적 성과* 대비 실제 사업화에 활용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

* 정부 R&D 특허생산성(연구비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 : 1.57(한), 0.4(미), 0.33(일) (특허개발원 '20)

**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 : 8.9(한), 11.2(미) 21.8(일), 12.3(중) (특허청, '19)

- 기업이 우수 R&D 성과를 신속하게 이전받아 과감하게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나 급변하는 환경 대비 기술이전 제도*는 보수적

* 현재 공공기술 전용실시(독점권 부여)는 1년간 통상실시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 공공연구 기술이전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되나, 추가개발·인증획득 등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확보 애로*에 직면

* 중소기업 대출 애로사항 : 까다로운 심사(31.8%),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19.4%),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16.3%) (중기중앙회, '17)

- 신기술 적용 제품은 인증·규제**대응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구매실적(track record) 부족으로 인해 시장진입·판로 개척에 어려움

* 중소기업의 47%가 제품생산 완료 또는 생산 중에 인증 필요성 인지(무역협회, '13)

** 기업의 48%가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규제 관련 비용을 지출(KISTEP, '17)

4 추진 방향

-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 해소
- ◆ 사업화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인 만큼, 기술공급자(tech-push)중심에서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의 관점 전환**

Smart - UP

1.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 ①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 ② GVC 연계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Speed - UP

2.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 ① 사업화 관점의 과감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 ②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 ③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Scale - UP

3. 사업화 투자 확대

- ①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상용화 R&D 확대
- ②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4. 시장진출·판로확대

- ①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애로 해소
- ② 공공조달 시장을 기술기반 혁신성장 마중물로 활용
- ③ 우수 기술 기반 창업 촉진

5 추진 과제

①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① 시장 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 (수요연계)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시장 연계를 강화* 하고 수요기업 부담을 완화** 하는 통합형 R&D 확대

* '20년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R&D 과제 60% 이상을 수요기업 참여 통합형 과제로 추진

**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R&D 참여시 매칭부담 중소기업 수준(33%)으로 감소

< 통합형 과제(예) >

기존 R&D : 다수의 소형과제			개선 : 중대형 통합형 과제
자율주행차 센서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성 검증) 민간 VC를 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先검증 → 後 정부투자 방식의 투자매칭 R&D* 도입

* 민간 VC 先투자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1년) 후 실제 VC 투자를 받은 사업성 있는 우수과제에 대해 정부자금 추가 지원('21~'28, 1,925억원)

- (IP R&D 확대)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연계 강화, 우수특허 창출** 촉진

* 15억원 이상의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IP R&D 적용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R&D에 대해서는 15억 미만의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 추진(국연사 규정 개정, '20~)

** 기업수요 기술을 선별하여 특허출원 및 마케팅 집중(지원기관 : '17년 2개 → '20년 30개)

② GVC 연계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 (수요연계 국제공동 R&D 확대) 국내기업의 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관 연계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 확대*

*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관 공동개발 과제 추진('20년 10억원 → '21년 50억원)

< 공동개발 과제 구성유형(예) >



- (권역별 기술협력 강화) GVC 권역별·품목별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전략품목 R&D 및 기술이전 연계 지원**

* 글로벌 파트너링(GP),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GCC) 등을 활용해 국가별 수요 발굴

** 우리기업이 우수한 해외 기술도입, M&A를 통해 조기에 글로벌 기술을 확보·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도입 기술 커스터마이징 및 사업화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21년 32억원)

- (아세안 진출 상설창구 마련) 공동 R&D·기술이전사업화·기술교류 등 기술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의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준비 TF 구성('20.11월) → 상시기구 설립('21.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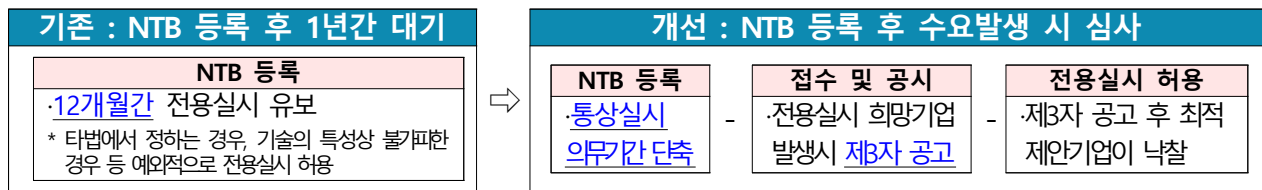
②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① 사업화 관점의 과감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 (전용실시 활성화) 현행 1년인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검토*(스토킹호스 방식)하여 신속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현행) NTB 등록 후 1년 이후에만 전용실시 허용 가능 → (변경) NTB 등록 후 통상실시권 수요 발생시 제3자 공고를 거쳐 최적 기업에게 전용실시권 부여(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전용실시권 허용 프로세스(안) >



②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실제 기술평가·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평가*·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

*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평가요소를 추출, 예상 평가값의 범위(range)를 제시

< AI 기술평가 시스템 구성(안) >





- (표준·인증 정보 제공) 국가참조표준*, R&D 시험평가·인증 데이터** 등 사업화 과정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데이터 제공

* 국가참조표준센터 확대('20년 36개 → '22년 100개)

** R&D 시험평가·인증 기관(KTL, KCL 등) 보유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하는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20년 3.2억원 → '21년 10억원)

<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업화 사례(예) >

참조표준	사업화 사례
한국인 목부위 동맥 두께 	중소기업 R사는 한국인 경동맥 혈관두께 참조표준을 자사 초음파기기에 탑재하여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 개발
한국인 청각 	중소기업 M사는 골전도 헤드셋 개발에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데이터를 활용

- (민간 R&D) 기술거래사(5,000여명), 기술거래기관(140여개)을 활용해 거래수요가 있는 **민간 R&D 결과물의 국가기술은행 등록*** 추진
- * 기존은 공공기관 보유 R&D만 등록 →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민간 R&D 등록 유도

③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 (산학협력 촉진)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산업계 확산 촉진
 - * 대학별 특화된 연구성과 활용·업계 확산 지원(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20년 81억원)
 - ** 기업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경영전문인력 육성(MOT 운영, '20년 50억원)
 - *** 대학 유휴부자시설 활용 입주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20년 80억원)
- (기술이전 기반구축) 기술거래 수요자의 탐색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거래 전문가 관리체계 강화* 및 기술평가 고도화**
 - * 기술거래사 활동정보 DB化 → 수요기업에 제공(기업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21년 15억원)
 - ** 대한변리사회 등 전문가 활용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고도화('21년 18.5억원)

3 사업화 투자 확대

①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상용화 R&D 확대

- (이어달리기 확대) 既 개발 기초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후속개발
 -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 (스케일업 추진) 인증·규제·회계 및 법률자문 등 사업화 컨설팅과 상용화 추가개발을 통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 지원
 -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21~'28년 1,925억원)

②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 (사업화 펀드 운영) 외부기술 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 창업·기술평가 등 기술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총 1.55조원의 펀드 조성**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펀드 조성 계획('20~'22 누적)>

펀드명	조성금액	주목적 투자대상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펀드	8,000억원	외부기술도입(Buy R&D), M&A, 기술평가 등 기술기반 사업화 및 제조업 분야 기술혁신 추진 기업	산업부
기술지주회사펀드	6,0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자회사	중기부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1,000억원	초기 대학창업 기업	교육부
국토교통혁신펀드	540억원	국토교통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국토부

- (신규 기술보증)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R&D 사업화 지원 보증사업 신설* 및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기업 보증** 확대

*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 공급('20.下)

** 보증비율 상향조정(85% → 90%), 보증료율 0.5% 고정, 기업당 최대 30억원 등

- (IP 담보대출 확대)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상품을 확대*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 IP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

* ('19) 국민·기업·농협·산업은행 등 7개 은행 → ('20년) 10개 이상으로 확대

** 정부·은행이 공동출연하고,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

4 시장진출·판로확대

①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 애로 해소

- (R&D 규제샌드박스) 산업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R&D 수행기관 대상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①사전 신청·협약, ②사업비 집행 세부 규정, ③정산 관련 조항, ④민간 부담금 등에 대한 일괄 규제 면제(또는 완화) (산촉법 시행령 개정)

- (표준화 로드맵) R&D 개발 단계부터 적정 표준획득·개발을 연계*하고 자율차·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중심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기존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특허·논문생산에 한정되었으나 표준획득·연계를 연구성과 항목으로 추가

** 4차 산업 및 소재·부품 분야 기술(1,800여종) 중 대상 선정, 국제표준 등재(300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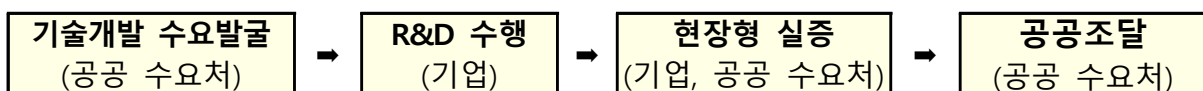
- (기술 신제품 인증) 異種 기술간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해외수출시 필요한 인증확보를 위한 해외인증 연계 R&D 도입**

* 인증기준 부재 및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 제정, 인증을 부여하여(6개월 이내)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 획득('19년 12건 → '20년 15건)

** 제품개발 후 수출 추진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수준 달성을 위한 추가기술 개발 지원

② 공공조달시장을 마중물로 판로 확대

- (공공수요 기반 수요연계 R&D)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수요기관 구매(수의계약)로 연계하는 R&D 확대*



*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산업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중기부), 공공조달 연계형 혁신제품 개발·실증(과기부)

- (혁신구매목표제)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약 4,0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 운영('20~)

* 혁신제품 구매면책 부여, 조달정책심의회 신설, 혁신제품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20.3월 공포, 10월 시행 예정)

- (NEP 제도개선)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가 적용된 중견·대기업 NEP 제품 우선구매 등 혜택 확대* 검토

*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등 중간재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중견·대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③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

- (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지분*·보유기술 범위** 등 규제 완화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기술·녹색기술 → 삭제)

- (공공창업 활성화) 분사창업 목적의 공공기관 임·직원 휴직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촉진

* 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 추가(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

** 스타트업형(역량강화, 시제품제작) → 시장검증형(경영활동 지원, 추가 R&D) → 도약형(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18년 704개 → '22년 목표 1,400개)

- (병원기술 사업화) 병원 연구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여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복)

* 인프라 개방 병원(수) : ('19) 5개소 → ('20) 5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6. 9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비셀' 선정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농산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모발관리 제품 개발·판매 -

《 주 요 내 용 》

= 9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비셀' 선정('19.3.4. 창업) =

- (대표/지역) 우봉현(만 47세) / 경상북도 경산시
- (사업 내용)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모발관리 제품 개발·판매
- (선정 이유) 기술기반 창업 성공사례,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기술기반 창업) 이전기술* 및 자체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발 관리 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
 - * 「혼합 한약재 추출물을 포함하는 탈모방지, 모발흑화, 발모용 약학적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대구한의대, 특허 제1895548)
 - * 천연 케라틴 고온(900~1300℃) 추출을 통한 이온화(영양분의 흡수 촉진)
 - (부가가치 제고) 농산물을 미용 분야에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비셀 우봉현 대표 >



< 비셀 제품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로 농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비셀(대표 우봉현, 이하 비셀)을 선정하였다.

*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월 선정하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

□ 비셀은 천연소재 추출 기술과 자체 노하우로 ‘케라틴 워터 헤어팩’을 개발, 단기간에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 농산물을 단순 가공이 아닌 미용(모발 관리) 분야에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창업 1년 만에 매출 6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9월의 A-벤처스로 선정되었다.

□ 비셀은 창업 초기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기술 이전을 받고 자체 노하우를 접목하여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 농산물*에서 모발과 두피의 잔류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고 모발을 더욱 검게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전* 받아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 구기자, 숙자황, 산수유, 석장포 등 약 10종

* 「혼합 한약재 추출물을 포함하는 탈모방지, 모발흑화, 발모용 약학적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대구한의대, 특허 제1895548)

○ ‘천연 케라틴* 고온(900~1300℃) 추출’이라는 자체 노하우를 접목시켜 추출된 성분이 모발 손상부위에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머리털, 피부, 손톱 등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일종

□ 비셀이 창업 1년 만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은 우수 제품과 더불어 독특한 자체 판매 전략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 비셀은 기존의 치열한 모발 관리 제품 시장에서 대형점포에 입점하는 대신 미용실 사업자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 미용사들이 머리 시술 시 제품을 직접 설명하고 사용해보도록 해 효과를 본 고객이 구매로 이루어지면서 입소문이 났고, 현재는 유명 미용실(프랜차이즈)을 중심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셀의 우봉현 대표는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매액 중 지역(경북) 농산물 비중 약 40% ('19년 기준)

○ “혼자 나아가기보다 다른 기업과 소통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향후 K-뷰티의 세계화에도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기업명(대표자명) : 주식회사 비셀(우봉현, 010-8578-3015)
- 주소 : 경북 경산 어봉지길 285-10, 514호(여천동 대구한의대창업보육센터)
- 아 이 템 : 지역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모발관리 제품 개발·판매
- 매 출 액 : ('19) 660백만원 → ('20P) 1,200백만원
- 일 자 리 : ('19) 2명 → ('20P) 4명
- 주요내용
 - 기술이전 협약(특허 10-2018-0084339, '19. 3.)
 -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간 투자협약('19. 8.)
 - 케라틴 워터헤어팩 출시('19. 9.)
 - 연구소기업 등록(제874호, '19. 12.)
 - 아쿠아 프라그란자(헤어퍼fum) 등 신제품 2종 출시('19. 12.)
 -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기업 선정 ('20. 5.)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손상복구 펌제 2종, 헤어케어 휴대기기 2종, 욱모 및 탈모완화 제품 출시 계획
 - 2021년 경산 화장품 특화산업단지 기반 부설연구소·생산 거점 설립 계획
 - 경상북도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클루앤코 해외매장 입점을 통한 수출 기회 모색

참고2

주식회사 비셀 참고 사진



< 모발 관리제 브로셔(함유된 한방재 안내) >



< 비셀 우봉현 대표 >

3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Value Chain

37. 코 건강 지키는 ‘쑥부쟁이’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

‘알레르기에 의한 코상태 개선’ 기능성원료 쑥부쟁이 산업체 기술이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알레르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토종 농산물 ‘쑥부쟁이’ 관련 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산업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 쑥부쟁이(Aster yomena)는 이른 봄 들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국화와 **여러해살이 야생초로 예부터 민간에서는 나물로 식용됐으며, 편도선염과 기관지염, 천식 등 염증 질환 치료에도 이용됐다.**
 -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적고 어린이나 만성질환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쑥부쟁이의 알레르기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알레르기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 우선 세포와 동물실험을 통해 **쑥부쟁이 추출물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IL-4) 분비와 염증세포(mast cells)의 자극을 억제하고,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을 감소시켜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가진 사람 48명을 대상으로 쑥부쟁이 추출물을 6주간 복용시킨 결과, 재채기(60%), 콧물(58%), 코막힘(53%), 콧물 목 넘김(78%), 코 가려움(70%) 증상이 개선됐으며, 수면, 피로감, 집중력, 두통, 감정 상태 등도 유의적으로 개선됐다.**

- 이 연구를 통해 쑥부쟁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자격을 산업체에서 대학, 공공기관 및 출연연으로 확대한 이후, 국가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 농촌진흥청은 기능성식품 원료 산업화와 제품 개발을 위해 1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련 산업체와 기술이전을 체결한다.
 - 기술이전 체결로 토종 농산물인 쑥부쟁이의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이 기대된다.
 - 또한, 앞으로 다양한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쑥부쟁이 생산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적극 추진해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우수한 기능성원료 발굴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돕고 지역특화작목이 수출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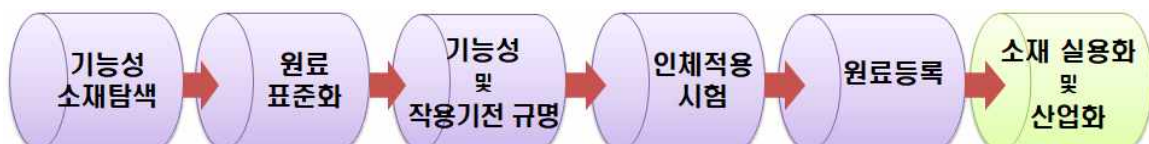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국내	수입
	○	
<p>제2019-13호</p> <p>대표자 : 이 용 범 업체명 또는 기관명 : 국립농업과학원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원료명 : 쑥부쟁이추출분말</p>		
<p>수출국 : 수출국 제조회사명 : 수출국 제조회사 소재지 :</p>		
<p>「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합니다.</p> <p>2019. 7. 5</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p>		
<p>※ 붙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명 2. 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제조 시 유의사항) 3. 규격 4. 제품의 요건(기능성 내용,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기타사항) 5. 시험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기능성원료 개발과정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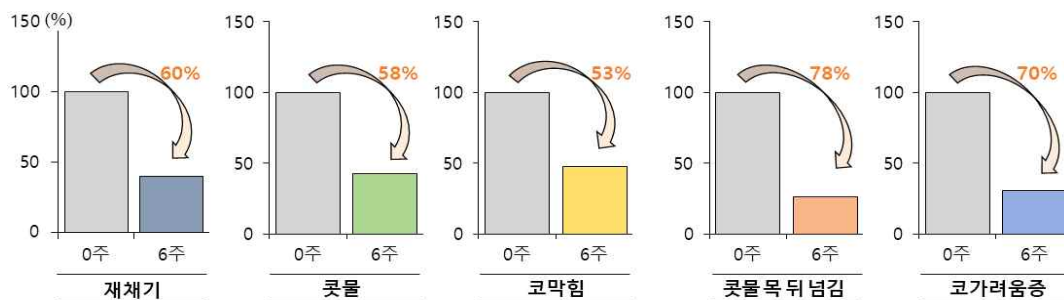
- 쑥부쟁이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효능 연구 ('15~'17) -

■ 연구배경 및 현황

-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알레르기(과민면역) 급증 심각
 -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유병율 증가 → 성인 2배
 - 알레르기 치료 약물 부작용 대체 천연물 유래 기능성소재 개발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응한 수입대체 국산 기능성 소재 발굴

■ 연구결과

- 국내 최초 「쑥부쟁이의」 과민면역(알레르기) 완화 효능 및 작용기전 규명
 - (효능) 염증사이토카인 감소(IL-4), 염증물질 감소(Histamine), 면역쇼크(아나필락시스) 치사율 감소(50%)
 - (기전) IL-4 분비 억제를 통해 basophils과 mast cells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물질 histamine, leukotriene release 감소
- 쑥부쟁이의 과민면역(알레르기) 개선 인체적용시험 결과



<쑥부쟁이의 알레르기 코상태 개선 효능>

*인체적용시험: 단국대병원(성인48명/6주)

- 쑥부쟁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획득(식약처 제2019-13호)
 - (기능성)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

■ 연구성과

- 학술 및 산업적 성과
 - SCI논문(2) : 쑥부쟁이 면역 및 알레르기 개선 효능(2018, JFF, IF 3.144 등)
 - 지식재산권(4건) : 쑥부쟁이 기능성원료 추출 및 분석법(10-2020-0040126 등)

<묻고 답하기>

Q1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와 기능성 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는 740개(고시형 96개, 개별인정형 644개)가 등록되었습니다('20년 9월 기준). ※ 농촌진흥청 등록 건강기능식품 9건
 - 고시형 :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법률로 고시한 원료
 - *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의 영양소 및 인삼가공품, 오메가 3, 대두단백 등의 기능성원료
 - 개별인정형 : 개별적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원료
 - ☞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6년', '일정량(50건)' 이상 품목 제조 신고한 원료에 한해 고시형으로 전환
- 2016년 국내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4,400억 원, 알레르기 개선 기능성식품은 1,45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 2016년까지는 연 10% 정도로 증가,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 18%, 2020년에는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시장 규모 8,500억 원, 알레르기 개선 기능성식품 국내시장 규모 2,800억 원으로 예측

Q2 쑥부쟁이에 대한 설명 및 국내 주요재배지?

- 쑥부쟁이(*Aster yomena*)는 염증, 천식 등에 한방약재로 사용(동의보감, 본초강목)되어 온 국화과 야생초(다년생)로, 부드러운 질감에 겨자향과 나무향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고유의 나물로서 새순으로 올라오는 어린 잎을 나물 등으로 조리해서 먹어왔습니다.
- 2012년에 구례군에서 지리산나물 육성계획을 통하여 전락나물로 선정되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시설과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구례군 지역농업특성화 작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 및 노지에서 19,834m² (1.98ha)규모로 재배·생산하고 있습니다.

Q3 **쑥부쟁이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효과를 연구하게 된 배경?**

-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소아 청소년 알레르기 유병률은 성인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 한국소비자원).
-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주로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제 등의 약물요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근본적인 치료 개선책으로는 미흡합니다.
- 따라서 농식품을 포함한 천연물이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안전하며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인 알레르기 질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민면역완화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Q4 **쑥부쟁이의 알레르기 질환 개선 인체적용시험 결과?**

- 연중 알레르기 비염증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48명을 대상으로 쑥부쟁이 추출물을 2g/일씩 6주간 섭취하게 하여 알레르기 개선 효능을 검증하였습니다.
- 증상별 유효성 평가결과 재채기(60%), 콧물(58%), 코막힘(53%), 코가려움증(70%), 콧물 목뒤넘김(78%) 증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고, 혈액면역지표에서도 염증매개물질인 루코트리엔(leukotriene)은 41% 감소되었고, 알레르기 개선 물질인 인터페론 감마(IFN- γ)는 35% 증가되었습니다.
- 쑥부쟁이가 염증유발세포의 자극을 억제시켜 염증물질 생성을 막음으로써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작용기전을 구명하여 2018년 journal of functional foods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Q5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선정범위와 피험자수의 적정성 ?**

- 피험자는 표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연중 알레르기원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 및 알레르기 비염이 확인된 만 20~65세의 성인 남녀
- 피험자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설계 안내서’에 따라 순응도(15%)와 탈락률(15%)을 고려하여 군당 32명 총 64명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순응도 및 탈락자를 제외한 4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레르기 비염과 면역개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유효한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Q6 쑥부쟁이의 지표성분 등 건강기능식품 등록 인정내용?

- 쑥부쟁이의 지표성분은 루틴(Rutin)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내용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입니다.
-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을 위한 섭취량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유효한 결과를 보인 50% 주정추출분말 2g/일로, 건조물로 6.7~10g 정도, 생물로 67~100g 섭취 시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Q7 쑥부쟁이와 동일한 기능성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종류?

- 현재까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는 2009년 구아바와 2010년 피카오프레토, 2019년 쑥부쟁이, 유산균 복합물(L.plantarum IM76, B.longum IM55) 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구아바와 피카오프레토는 수입원료이며 국산 천연물 기능성원료는 쑥부쟁이가 처음입니다.
- 민간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농산물이 많이 있으나,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소재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원료 대체, 향후 시행될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산자원의 기능성 입증에 위한 데이터 축적과 관련 연구는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슈 분석 스타트업 얼마나 알고 있니? 다양한 유니콘 용어들

유니콘 관련 용어정리		
용어	뜻	비고
미니콘(Minicorn)	기업 가치 100만 달러(약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국내(중소벤처기업부)에선 '아기 유니콘'으로 불림
유니콘(Unicorn)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전 세계에 약 700여개의 유니콘 있는 것으로 추정
수니콘(Soonicorn)	차세대(Soon) 유니콘	국내(중소벤처기업부)에선 '예비 유니콘'으로 불림
데카콘(Decacorn)	기업 가치 100억 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퀸과긴타콘(Quinquagintacorn)	기업 가치 500억 달러(약 50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우버콘(Ubercorn)
헥토콘(Hectorcorn)	기업 가치 1000억 달러(약 100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올해 6월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가 세계 최초로 헥토콘 인정
엑시콘(Exitcorn)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통해 회수(Exit)에 성공한 유니콘	전 세계 엑시콘 321개 (2020년 7월 기준)
유니콥스(Unicorpse)	유니콘으로 꼽혔지만 이후 가치가 급락한 스타트업	영국의 포와, 미국의 테라노스, 중국의 오포

기업가치 따라 데카콘·헥토콘 <10조원> <100조원> 자금 엑시트 성공하면 엑시콘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다고?”

스타트업에 관심이 적은 이들에게 ‘유니콘’ 기업을 설명하다 보면 종종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한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정보기술(IT) 중심의 스타트업은 당장 매출이 작아도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인다면 빠르게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이 꿈꾸는 유니콘과 관련한 용어는 훨씬 더 다양하다.

■미니콘부터 헥토콘까지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콘 보다 기업가치가 더 큰 스타트업은 데카콘(Decacorn), 퀸과긴타콘(Quinquagintacorn), 헥토콘(Hectorcorn) 등으로 불린다.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을 말하는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약 10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퀸과긴타콘’은 500억 달러(약 50조원) 이상이다. 50을 뜻하는 라틴어 ‘Quinquaginta’에서 가져왔다. 우버가 처음으로 퀸과긴타콘이 되면서 ‘우버콘(Ubercorn)’이라고도 불린다.

헥토콘은 1000억 달러(약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을 말한다. 100을 뜻하는 ‘헥토(Hecto)’와 유니콘의 ‘콘’이 결합된 말로 데카콘의 10배, 유니콘의 100배다. 영상 기반 SNS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올해 6월 전세계 최초로 헥토콘이 됐다.

유니콘 보다 작은 스타트업을 뜻하는 용어도 있다. 기업가치 100만달러(10억)를 넘기면 ‘미니콘(Minicorn)’이다. 시리즈A인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대부분 미니콘을 넘긴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을 뜻하는 ‘수니콘(Soonicorn)’도 있다. ‘곧(Soon)’ 유니콘이 될 기업이라는 말이다. 한국에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니콘과 수니콘을 각각 ‘아기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으로 명명했다.

■유니콘에 집착할 필요 없어

VC업계에선 “스타트업이나 벤처당국의 목표가 ‘유니콘 숫자 늘리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업계에서 유니콘은 엑시콘(Exitcorn)이 돼야 성공했다고 보는데다, 잘 나가던 유니콘이 한순간에 유니콥스(Unicorpse)로 전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엑시콘은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Exit)에 성공

한 유니콘을 뜻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엑시콘이 된 스타트업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했던 우아한형제들이다. 지난 2018년 유니콘으로 거론되고, 지난해 말 40억 달러(약 4조7000억원)에 인수됐다.

유니콥스는 유니콘과 시체(corps)의 합성어로, 유니콘으로 꼽혔지만 이후 가치가 급락한 스타트업을 말한다. 중국의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 오포(opo)는 지난 2017년 유니콘 대열에 들어섰지만 현재는 부채도 청산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국내에선 옐로모바일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유니콘으로 등재됐지만 인수회사와 송사에 휘말리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C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2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옐로모바일은 유니콘 리스트에 넣어 놓고 배달의민족은 빼버린 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니콘이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엑시트 하고 재창업과 재투자도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 시도별, 파트너사와 함께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D.N.A(Data, Network, AI)

CJ

물류·유통
바이오·헬스케어
한진, KT

인공지능(AI)·빅데이터
5G 모빌리티
KT

스마트시티
5G 모빌리티
SKT

에너지산업
물류·유통
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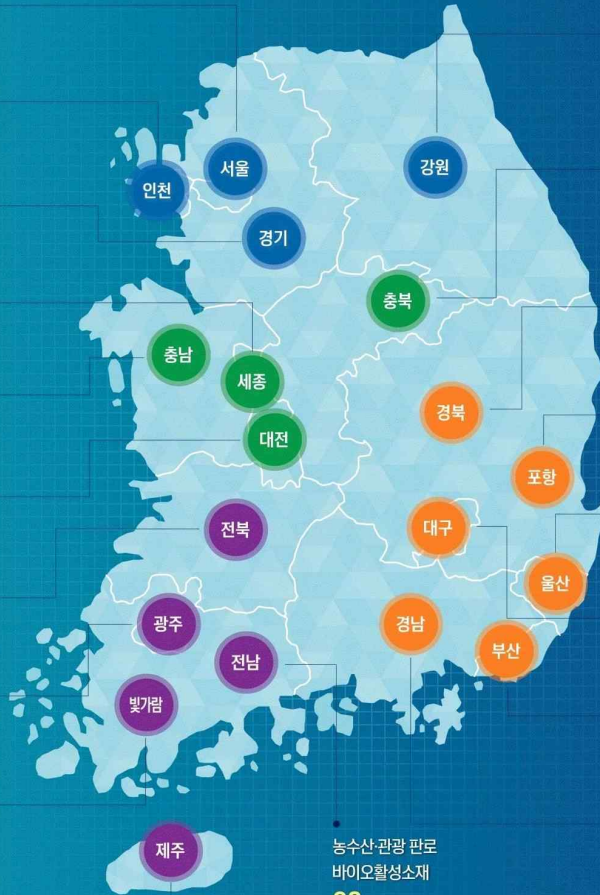
5G 모빌리티
소셜벤처
SKT

첨단소재(탄소)
농생명식품
효성

인공지능(AI)
친환경 스마트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로컬크리에이터
IT서비스
카카오



로컬크리에이터
E-Commerce
네이버

바이오·헬스케어
로컬크리에이터
LG

하드웨어(제조)
ICT 융복합
삼성전자

소재·부품·장비
스마트시티
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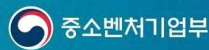
조선·해양
하드웨어(제조)
현대중공업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자동차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리빙랩
롯데

ICT 스마트기계
항노화 바이오
두산중공업

농수산·관광·판로
바이오활성소재
GS



온·오프라인 상담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지원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00
강원도 춘천시 강령로1길 1 한빛빌딩 2층(호자동, 강원대학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56-2700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대로 19-46 경남창원대학교기술진흥원 2층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2)222-9015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5호관 2층(무거동, 울산대학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88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하정로 100, 2층(KTX천안아산역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974-936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68(영동, KDB생명빌딩 16층)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31)8016-11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명동 629 한국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 1, 5층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1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도래일몰입센터 2층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 054)221-3800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80 포항공과대학교 제1공학관(C5동) 5층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청주시오송생명1로) 2, 3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 4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23-9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102동, 5층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6380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칠산동 105-7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6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나노융합기술원 9층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2002
전남 여수시 덕충 2길 32(덕충동)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 061)345-8455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스티밸류타워 2층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032)458-5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7층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051)749-89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층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00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8플라자 3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00
전북 완주시 완산구 송산로 245 서암빌딩 1, 2층

대마산업의 미래를 여는 창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마약이 아닌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재탄생합니다.

